☑ 논술지도의 원리와 실제 III (인문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회

연구위원	서정인	서울고등학교
	강영기	남주고등학교
	김평원	마포고등학교
	김흥규	광신고등학교
	이명수	대광고등학교
	이효근	하나고등학교
	최병기	영등포여자고
	최진규	서령고등학교
	황충일	서도고등학교
	정형식	하나고등학교
	김호경	숭문고등학교
	최두호	오산고등학교
	송창현	선덕고등학교
자문위원	윤희원	서울대학교
	조완영	충북대학교
연구협력관	오성근	입학전형지원실장
	구안규	입학관리팀장
	정청교	입학관리팀 전문원

논술지도의 원리와 실제Ⅲ을 펴내면서

복(福)을 가져오고 장수(長壽)를 누리게 해준다는 복수초가 노루귀와 함께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혹독했던 지난 겨울을 이겨내어 남보다 빨리 꽃을 피워내려는 복수초와 가녀린 노루귀의 집념어린 노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회에서도 공교육이 선도하는 논술교육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논술지도의 실제와 원리'는 그동안 계속해왔던 노력의 결실입니다.

진정한 통합교과논술 대비는 다양한 교과를 공부하며 전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흔히 적절한 자료나 교재가 없어서 효율적인 논술지도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이에 대한 해소책의 일환으로 본 논술연구회에서는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통합교과논술에 입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제시문과 논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 논술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글쓰기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실전에 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교과논술의 특징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고능력과 판단력을 토대로 교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반영한 글쓰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제시한 지름길이 고속도로 역할은 할 수 있어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읽고 토론하고 글쓰기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 연구회

차 례

1. 논술문 쓰기의 기본 ····· 1

- 원고지 쓰는 법 ····· 3
- 문장 쓰는 법 ····· 10

2. 제시문의 주제를 파악한다 ····· 13

- 원리 접근 ····· 15
- 원리 이해 ····· 16
- 예제 확인 ····· 22
- 원리 적용 ····· 31

3. 주제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다 ····· 35

- 원리 접근 ····· 37
- 원리 이해 ····· 38
- 예제 확인 ····· 49
- 기출 연습 ····· 54
- 원리 적용 ····· 61

4. 논제에 맞춰 개요를 작성한다 ····· 65

- 원리 접근 ····· 67
- 원리 이해 ····· 68
- 기출 연습 ····· 81
- 원리 적용 ····· 84

5. 상황에 맞게 원리를 적용한다 ····· 91

- 원리 접근 ····· 93
- 기출 연습 ····· 94
- 실전 연습 ····· 106

1. 논술문 쓰기의 기본

- 원고지 쓰는 법
- 문장 쓰는 법

1. 논술문 쓰기의 기본

▣ 원고지 쓰는 법

가 첫 칸을 비우는 경우 :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만 첫 칸을 비울 수 있다.

1. 새로운 단락의 시작일 경우

	동	해	안	에	서		가	장		아	름	다	운		관	광	지	는	

2. 따옴표가 있는 문장일 경우

면	서		마	이	콜	은	,												
	“	벤	쿠	버	의		하	늘	이		무	척		청	명	해	서		인
	상	이		깊	었	는	데		한	국	의		가	을		하	늘	은	
	색	다	른		감	흥	을		주	었	다	.	”						
라	고		말	하	면	서		황	급	하	게		자	리	를		떠	났	다 .
기	자	들	은		못	내		아	쉬	운		듯		자	리	를		뜨	지 ∨
못	하	고		바	라	볼		뿐	이	었	다	.							

3. 첫째, 둘째 등으로 서술할 때

	이	순	신	의		지	도	력	은		다	음	과		같	다	.		
	첫	째	,	부	하	에		대	한		믿	음	이		있	었	다	.	
	둘	째	,	스	스	로		모	범	을		보	였	다	.				

나 문장 부호 쓰기

1. 부호 표시법

	,		.		·			…	…	.		“	…	.	”		‘	…	’

(쉼표) (마침표) (가운뎃점) (줄임표와 마침표)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		?		/		–		–	–		~		:					

(느낌표) (물음표) (빗금) (붙임표) (줄표) (물결표) (쌍점)

	(	)		{	}		[	]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2. 한 칸 1부호 원칙 : 문장 부호는 한 글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한 칸에 하나씩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음표(?)와 느낌표(!)는 다음 칸을 비운다.]

	모	든		것	은			‘	신	’	의		문	제	였	다	.		

	어	머	나	,	네	가		아	니	야	?		나	는		네	가		그

	“	여	보	,	시	골	에		갑	시	다	.	”						

했	었	으	니	,		‘	가	을	(	秋	)	’	이	라		하	게		되	었
다	.																			

1.		다	음		물	음	에		맞	는		설	명	을		찾	아		답
	하	시	오	.															
	(가)		제	정	일	치		시	대	에		있	었	던		예	술		

	초	·	중	·	고	등		학	교	는		방	학	이	다	.			

3. 두 칸 이상을 차지하는 부호

	한	국	의		큰		산	들	–	–	설	악	산	,	지	리	산	,	한
라	산	–	–	이		단	풍	으	로		치	장	을		했	다	.		

	“	그	런	데	,	저	…	…	.	”									

4. 연속되는 부호 : 문장 부호가 연이어 나오거나, 문장 부호와 숫자, 알파벳 등이 잇달아 쓰일 때는 다른 칸에 쓴다.(※ 경우에 따라 한 칸에 쓸 수도 있다.)

	“	도	대	체		너	는		누	구	냐	?	”						

	“	도	대	체		너	는		누	구	냐	? ”							

	“	여	보	!		여	보	!	”										

	“	여	보	!		여	보	! ”											

영	재	는		‘	다	행	이	다	.	’	하	는		혼	자	말	을		하
면	서		마	음	을		놓	았	다	.									

영	재	는		‘	다	행	이	다	. ’	하	는		혼	자	말	을		하	면
서		마	음	을		놓	았	다	.										

다 숫자 쓰기

1. 로마 숫자와 날자로 된 아라비아 숫자는 한 칸에 한 자의 원칙에 따르되, 두 자 이상의 아라비아 숫자는 한 칸에 두 자씩 쓴다.

Ⅰ	Ⅱ	Ⅲ	Ⅳ	Ⅻ			20	12	년		10	월		9	일				

2. 한 칸에 두 자씩 쓰는 숫자 가운데 홀 수 개로 이루어진 것은 앞에서부터 두 자씩 쓴다.

25	6	만		원	의		보	너	스	를		받	았	다	.				

3. 한 칸에 두 자씩 이어 쓰는 숫자는 끊어지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한다.

	20	7	+	13	6	−	53	=	29	0		〈−	−−	−−	○				
	20	7	+	13	6	−	53	=	29	0		〈−	−−	−−	×				

4. 분수는 '1/2' 로 적거나 습관대로 '$\frac{1}{2}$' 로 적는다.

	1	/	2				$\frac{1}{2}$												

5. 빈 칸에 쓸 수 있는 숫자, 알파벳, 문장 부호들이 교차되어 만나면 이들은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적는 것을 원칙을 한다.

20	09	.	10	.	9	.		3	·	1		운	동	,	8	·	15		
'	1	:	2	=	3	:	x	'	의		값								
1	,	2	,	3	의		합	은	?										

단, 한 덩어리 속에서 교차되거나, 숫자, 알파벳, 문장 부호들이 서로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한 칸에 같이 쓸 수 있다.

4,	78	3,	67	0	명		17	.3	±	5.	3		5x	+	2y	+	4z	=	0

라 인용문 쓰기 : 본문에 인용문이 들어갈 경우, 줄을 따로 잡아 쓸 때는 인용 부분 전체를 한 칸씩 들여 쓴다.

1. 인용 부호를 사용할 때

면	서		마	이	콜	은	,												
	“	벤	쿠	버	의		하	늘	이		무	척		청	명	해	서		인
	상	이		깊	었	는	데		한	국	의		가	을		하	늘	은	
	색	다	른		감	흥	을		주	었	다	.	”						
라	고		말	하	면	서		황	급	하	게		자	리	를		떠	났	다 .
기	자	들	은		못	내		아	쉬	운		듯		자	리	를		뜨	지 ∨
못	하	고		바	라	볼		뿐	이	었	다	.							

☞ 인용문 뒤에 이어지는 지문은 글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므로 한 칸 들여 쓴다. 단, 이어지는 말(-고, -라고, -하거늘 등)로 시작되는 지문은 첫 칸부터 쓴다.

☞ 작은따옴표와 큰따옴표 사용 시 글의 마치는 부분에 찍는 마침표와 따옴표가 겹치는 경우 두 가지 부호를 한 칸에 쓸 수도 있다.

☞ 문장부호는 첫 칸에 쓰지 않는다. 첫 칸에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가 올 때는 오른쪽 끝 칸 다음이나 끝 칸에 글자와 같이 쓴다.

그	에	게	는		보	다		색	다	른		감	흥	을		주	었	다	. ”

그	에	게	는		보	다		색	다	른		감	흥	을		주	었	다	.”

2. 소괄호는 설명이 필요할 때 쓴다.(앞 단어와 띄우지 않음.)

컴	퓨	터	(	co	mp	ut	er	)	는		필	수	품	이	다	.			
6	·	25	(	19	50	)		당	시		아	빠	는		애	기	였	단	다.
베	토	벤	(	음	악	가	)	을		나	는		존	경	합	니	다	.	

3. 설명하지 않는 소괄호는 한 칸을 띄운다.

제	시	문		(	가	)	의		주	제	는			‘	사	랑	’	이	다	.

4. 중괄호는 나열할 때 쓴다.(앞 단어와 띄우지 않음.)

중	등		교	육		기	관	{	중	학	교	,	고	등	학	교	}	은	
전	국	에		수	천		개	나		된	다	.							

5. 대괄호는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

나	이	[	年	歲	]		낱	말	[	單	語	]							

6. 즉 또 또한 따라서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등의 접속어 다음에 반점을 쓰지 않는다.

노	홍	철	은		재	주	가		많	은		사	람	,	즉		탤	런	트
이	다.		그	러	나		지	금	도		떠	들	고		있	어	서		나
는		이	제		고	막	에		쥐	가		날		지	경	이	다	.	

7.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때 (시, 시조, 노랫말 등의 경우)

다	.	그	래	서		이		시	가		가	슴	이		시	리	도	록	
좋	은		것	이	다	.													
		꽃	이		지	기	로	소	니										
		바	람	을		탓	하	랴	.										
	나	는		이		시	를		읽	을		때	마	다		울	컥		계
절	을		앓	게		되	는		것	이	다	.							

☞ 인용할 경우, 인용문의 위·아래의 1행씩을 비운다.

마 대사 쓰기

1. 문장 속에서 대화를 쓸 때는 행을 달리한다.

가		말	을		하	였	다	.											
	“	네	가		의	심	스	러	워	.	”								
	‘	아	니	,	어	떻	게		알	아	차	렸	지	?		입	을		막
	아	야	겠	군	.	’													
	정	구	는		이	런		생	각	을		하	며	,					
	“	뭔	가		오	해	를		한		것		같	네	.	”			
하	며		능	청	스	럽	게		웃	으	면	서		정	희	에	게		다

☞ 대화 부분은 전체적으로 첫 칸을 비운다.

☞ 대화는 큰따옴표를, 생각은 작은따옴표를 쓴다.

2. 그러나 대화나 생각을 쓰더라도 다음과 같이 인용할 경우에는 행을 바꾸지 않고 바로 이어 쓴다.

①	나	는		그	가		“	위	대	한		발	명	을		했	다	.	”
는		말	에		믿	음	이		가	지	않	았	다	.					
②	나	는		계	속	된		협	박	에	도		불	구	하	고		전	혀 ∨
두	려	워	하	지		않	으	며		“	선	생	님	–	–	.	”	했	다 .

■ [참고] 큰따옴표(“ ”)와 작은따옴표(‘ ’)의 응용 사용

	그	러	니		글	을		쓸		때	는		무	엇	보	다	도		
‘	지	금		내	가		하	고		싶	은		말	이		무	엇	인	가 ’
를		생	각	해	서		써	야		합	니	다	.						

☞ 부호가 줄의 마지막 칸에서 시작할 때는 끝의 칸을 비우고 다음 줄 첫 칸에 쓰는 것도 좋으며, 읽기 쉽다.

▣ 문장 쓰는 법

가 띄어쓰기

1.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것 → 쓰는∨**것**이 중요하다.

☆ 지 → 마을을 떠난∨**지** 20여∨년이 지났다.

☆ 수 → 나는 노래를 잘 할∨수 있다.

☆ 뿐 → 먹을∨**뿐**이다(관형사형+의존 명사), 여자**뿐**이다(명사+조사)

☆ 데 → 주웠던∨**데** 놓아라.(관형사형+의존 명사)

얼굴은 예쁜**데** 몸이 뚱뚱하다.(종속적 연결어미 '-ㄴ데')

물이 없는**데** 어디 놓았지? 저기 있는데.(연결·종결형 어미 '-는데')

☆ 대로 → 하는∨**대로**(관형사형+의존 명사), 법**대로**(명사+조사)

☆ 만큼 → 필요한∨**만큼**(관형사형+의존 명사), 그 결과**만큼**(체언+조사)

2.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나마**,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3. 관형사는 체언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새**∨옷, **여러**∨친구, **좋은**∨연필, **헌**∨책, **한**∨남자, **어느**∨날, **이**∨물건, **맨**∨꼭대기

나 교정부호

원고지를 사용하여 글을 쓰다 보면 종종 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아무렇게나 줄을 긋거나 까맣게 칠을 하는 사례가 있는 데 절대 안된다. 반드시 정확한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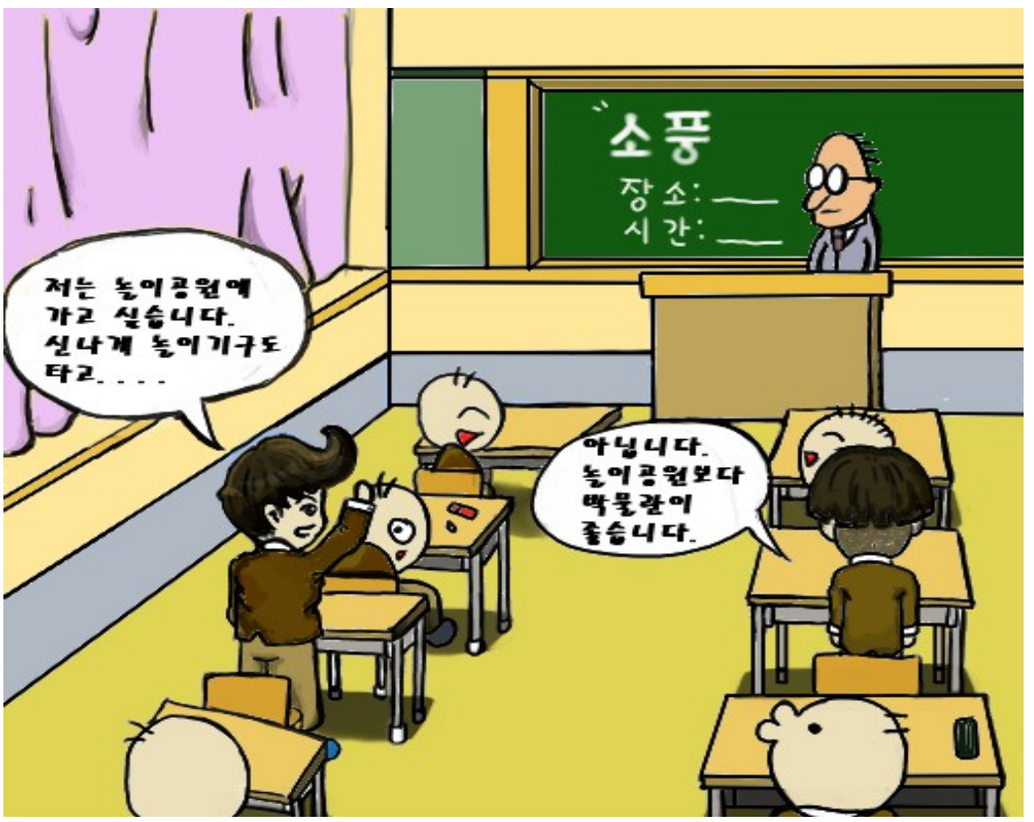
기 호	쓰 임	보 기
	글자 고치기	우리의 바램
	삭제하기	인간의 관계를 돈독히
	줄 바꾸기	"내일, 학교에서 만나자." 철수는 친구에게 말을 했다.
	여러 글자 고치기	아름답게 믿어보는 것을
V	사이 띄우기	나날이 푸르러가는
	글자 넣기	하늘을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사이 붙이기	아낌 없이 주는 나무
	내어쓰기	녹음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들여쓰기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자리 바꾸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줄 잇기	철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마음은 날아갈 듯 가뿐했다.

2. 제시문의 주제를 파악한다

- 원리 접근
- 원리 이해
- 예제 확인
- 원리 적용

2. 제시문의 주제를 파악한다

✍ 원리 접근



위 삽화는 학급 현안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다. 철수와 영수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학급회의의 주제는 소풍지 결정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학급회의는 학급 구성원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수합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현안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논술시험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학급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논술시험은 기본적으로 문제상황을 전제로 한다. 이 때의 문제상황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기보다는 한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진술된다고 보는 편이 맞다. 그런 점에서 논술시험은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출제시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주제다. 말하자면 주제를 결정한 후에 어떤 측면을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관련 제시문을 집필하거나 수합하는 절차를 거친다. 논술시험 출제 과정이 그렇듯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의 논술시험이든 시험지를 받으면 의도적으로 주제를 염두에 두고 제시문을 읽어야 한다.

☑ 논술지도의 원리와 실제 III (인문계)

✍ 원리 이해

주제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는 것은 제시문의 독해는 물론이고 논제에 맞는 답을 6쓰는 데 무척 중요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제시문을 읽다보면 알 수 있겠지 하는 정도의 안일한 생각으로는 주제가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주제를 파악하기 위한 일정한 단계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 원리 1 : 첫 번째 제시문의 내용에 집중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이어질 지문을 읽은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문제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주제는 대개 첫 번째 제시문을 읽어보면 대개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시험지를 받고 논제를 확인한 후, 제시문을 읽을 때 첫 번째 제시문에 주제가 담겨 있다는 인식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 내용은 2008학년도 부산대학교 정시 논술고사 제시문이다. 이 글의 주제는 **'인간의 창조성'** 이다. 제시문 (가)의 내용이 비유적이기는 하지만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글 전체의 주제가 인간의 창조성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누구나 생각한다. 그렇지만 누구나 똑같이 '잘'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요리의 대가에 견줄 수 있는 사고의 달인이 있다. 그는 여러 가지 정신적 재료들을 섞고 조합하여 맛을 내는 것에 도통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지적' 만찬을 준비한다면 그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생각의 부엌'에서 그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더 잘한다는 뜻이다. 대가가 되려면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수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역시 대가가 되고자 한다면 필요한 도구의 용법을 익히고, 정신적 조리법을 배우며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정신적' 요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 정신적 조리법은 '무엇을 생각(요리)하는가'에서 '어떻게 생각(요리)하는가'로 초점이 옮겨진다.

정신적 요리는 생각의 부엌에서 시작된다. 거기서 개념들은 절여지고 졸여지고 살짝 튀겨지기도 하며, 때로는 다져지고 구워지고 휘어져서 모양을 갖추게 된다. 마치 요리의 대가들이 어떤 재료는 조금만 뿌리고 어떤 재료는 듬뿍 넣는 등 변화무쌍한 동작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창조적인 상상**의 부엌에서도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솟아오르고 생각지도 못한 재료들과 섞이기도 한다. 조리법 자체만 들여다보아서는 완성된 요리가 어떨지 상상할 수 없다. 정신적 요리의 대가들은 요리가 어떤 맛일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들은 가상으로 재료를 혼합한 것만 가지고도 어떤 맛이 나올지 직감으로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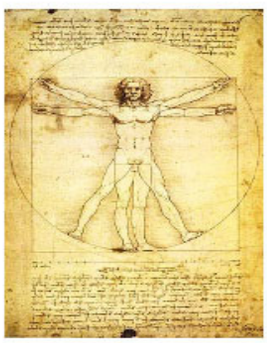
(나) 전신을 처음으로 발명한 미국인 모스는 부자들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연명하던 화가였다. 그는 유럽 여행 중에 전신의 가능성에 눈을 뜨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한 끝에 전신을 발명했는데, 그가 발명한 첫 전신은 화실에서 쓰는 캔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마르코니는 세계 최초로 무선전신을 만든 발명가이다. 그가 만든 무선전신은 유선전신의 키, 유도 코일, 모스 부호기, 리기 송신기, 코히러 수신기, 안테나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가운데 마르코니가 처음 사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안테나 하나밖에 없었다. 모스와 마르코니의 독창성은 무에서 전신, 무선전신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을 결합해서 쓸모 있는 발명품으로 바꾸었다는 것에 있다.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었던 와트의 증기기관은 광산에서 물을 퍼내는 데 사용되던 뉴커맨의 증기기관을 개량한 것이었다. 뉴커맨 기관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피스톤을 끝까지 밀어 올리기 위해서는 실린더를 최대한 뜨겁게 해야 하고, 피스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실린더를 가능한 차게 식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실린더를 가열해서 증기의 힘으로 피스톤을 들어 올린 뒤에, 실린더 안에 물을 분사해서 이를 식힘으로써 피스톤을 떨어뜨리고, 이 식은 기관을 다시 가열하는 식이었다. 당연히 열의 낭비가 심했고 효율이 낮았다. 과학기기 제작자였던 와트는 이 문제를 놓고 몇 년을 씨름했다. 어떻게 증기기관의 실린더를 차갑지만 뜨겁게, 뜨겁지만 차갑게 유지할 것인가? 1767년, 와트는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다. 실린더에 독립된 응축기를 설치해서 실린더는 항상 덥게, 반면에 콘덴서는 항상 차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기관의 효율이 깜짝 놀랄 정도로 증가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와트의 증기기관은 광산과 공장에 쓰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기차와 기선에도 사용되었다. 산업시대의 서두를 연 발명품은 이렇게 '양립 불가능해 보였던 두 개의 조건을 하나의 기술에 융합함으로써' 가능했다.

(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과 마찬가지로 서쪽에서도 상이한 문명과 문화의 전통에서 온 사람들이 온통 뒤섞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한 뒤, 알렉산더의 영토였던 아나톨리아에서 박트리아에 이르는 지역은 셀레우코스계 후계자들이 통치하였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그리스와 페니키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인도인과의 거래를 조정하게 되었다. 알렉산더가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허물었다면, 셀레우코스 왕조는 광대하고 국제주의적이며 여러 언어들을 사용하는 나라를 다스렸다.

이러한 정치적 과정에는 근본적으로 큰 문화적 함의가 있다. 특히 그리스 문화전통과 인도문명이 혼합된 박트리아와 인도 북부의 간다라 왕국에서는 다양한 문명 출신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섞였다. 이 문화교류의 가장 큰 시각적 증거는 간다라 불교미술이다. 간다라 미술에는 지중해식 미술 및 조각 스타일의 영향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초기 불교도들은 부처님을 나타내는 데 인간의 형상 대신에 보리수나무, 발자국, 비어 있는 보좌, 진리의 바퀴와 같은 적절한 상징물을 이용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주교역자 거류지를 박트리아와 간다라에 세우면서 지중해식 미술품을 가져왔고 그리스의 화가와 공예가들도 데려왔다. 그 결과 서기 1세기 무렵의 간다라 양식에는 그리스 미술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이때부터 간다라 미술가들은 부처님을 그리스 예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냈고, 그 부처님에게 지중해풍의 의상을 입혔다. 그 뒤 몇 세기 동안 인도의 불상은 지중해 스타일을 점차 벗어나 더욱더 인도적인 특징을 띠게 된다.

한편 헬레니즘 문화 자체도 알렉산더 이후의 정치적 여건에 적응했으며 그로부터 진행된 새로운 국제질서에 융화했다. 이 융화는 놀라울 정도로 종교적 혼합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교역자, 군인, 행정가, 노예, 여행자 등이 광대한 헬레니즘 세계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닐 때 자신들의 신앙, 가치, 신념체계를 함께 가져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다양한 신들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숭배의 통합(예컨대 제우스와 아몬 숭배의 통합 같은 것)을 이루었으며, 때로는 천상의 위치에 앉아 모든 국가와 종족의 일들을 관장하는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유일신을 창조하기도 했다.



[그림 1] 비트루비우스의 이론에 따른 인체비례 (레오나르도 다 빈치, 1490년 경)

(라) 미술과 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반된 것이 아니다. 미술과 과학은 자연을 포함한 우리들의 세계를 재현하고 해석하며 창조적인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활동으로도 볼 수 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미술가들이 과학자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다. 자연을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르네상스 시기 미술가들의 탐구 의욕은 과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빛, 색, 인체, 거리, 움직임 등을 결정하는 것이 회화의 진정한 과학적 원칙이라 규정하고, 미술과 과학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의 원근법과 해부학에 대한 연구는 후대 미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 동식물의 구조에 대한 연구, 물의 흐름에 대한 연구, 체인이 연결된 자전거, 자동차 공학 분야의 선구적 연구, 이상도시에 대한 설계 등은 후대의 많은 미술가와 과학자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그림 2] TV첼로 (백남준, 1971년)

19세기 말 신인상주의 화가들은 원자론이나 분자론이 제시하는 물리학적 세계관을 원색의 점으로 표현하였다. 과학이론을 광선이나 색으로 옮겨 세계를 재현하려는 작업을 시도했던 것이다. 한편 20세기 초에 미래파 화가들도 전통적인 미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속도의 미를 주장하고, 기계의 역동성과 소리 등을 찬양하며, 움직임이 심한 자동차, 기관차, 비행기 등의 소재를 선택하기도 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미술에 결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에 와서 미술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다. 현실 세계의 단편을 완벽하게 모사하는 카메라, 움직임이 정교하게 자동 제어되는 기계, X선이나 현미경을 통한 미시적 시각 등이 아무런 제약 없이 수용되고 있으며, 비디오, 컴퓨터, 레이저 등을 활용한 최첨단 과학의 기술과 이론, 상대성 이론과 같은 현대 물리학의 원리 등을 활용한 미술 작품들이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다. 그 결과, 키네틱 아트, 옵 아트, 비디오 아트, 레이저 아트, 홀로그래피 아트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미술이 나타나게 되었고, 전자 공학의 발달은 미술 표현에 새로운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 원리 2 : 제시문의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아낸다.

한 편의 글에는 필자의 생각이 담겨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 생각이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한 가지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서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글에 담긴 필자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일 수는 없다. 특정 부분에 필자의 생각을 담은 핵심어를 배치할 수 있고 또 필자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 드러날 수 있다. 논리적인 글은 더욱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핵심어와 중심 문장을 찾는 것만으로도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참고로 핵심어와 핵심 문장은 글의 앞 부분이나 뒷 부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다음 내용은 2008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정시 논술고사 제시문이다. 이 글은 주제는 '임금 격차' 이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이 남녀간 임금 격차를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입장이라면,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개인의 생산성 차이가 임금 격차의 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제시문에서 ㉠은 핵심어, ㉡은 중심 문장을 의미한다. 이처럼 핵심어와 중심 문장만 확인할 수 있어도 제시문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핵심 주제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1]

지난 30년 동안 영국에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줄기는 했어도, 고용된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평균임금에 비해서 훨씬 낮다. 1970년에 전일제로 일하는 남성 임금이 1파운드라면 전일제로 일하는 여성은 63펜스의 임금을 받았다. 1999년에 그것은 84펜스로 높아졌다. 이처럼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은 당연히 남성과의 평등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보인다.

여러 과정이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임금이 높은 전문직으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이제 능력 있는 젊은 여성들이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남성과 비슷해졌다. 그러나 직업구조의 상층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발전은 빠르게 확대되는 서비스 부문의 저임금 시간제 근로 여성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 상쇄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사회구조에 따른 성별 직업분리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유지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여성은 임금이 낮은 직종 부문에 과잉 분포되어 있다. 남성의 20%가 주당 100파운드 이하를 버는 것에 비교하여, 여성의 45%가 주당 100파운드 이하를 번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성들이 소득 분포에서 상위에 제대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 여성의 2%만이 주당 500파운드를 버는 데 비하여, 남성의 10%가 주당 500파운드를 벌고 있다.

[제시문 2]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과거에 비해 그 크기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과 직종(職種)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의 요인을 세 가지 부분, 즉 고용분포의 차이에 의한 고용차별, 임금계수의 차이에 의한 임금차별, 생산적 요소를 포함한 기타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성별 임금격차는 산업과 직종에서 0.52의 수치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차별적 요소를 비교해 보면 산업(3.6%)보다는 직종(6.0%)에서 차별적 요소가 심하게 나타났고, 특히 임금계수에 의한 차별적 요소는

산업(2.4%)보다 직종(5.2%)에서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이 존재하고, 특히 직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짐을 나타낸다. 셋째, 산업과 직종 모두에서 고용비중과 임금계수의 차별적 요소보다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전체 임금격차의 90% 이상을 설명하는 기타 요인들 중에는 교육, 경력, 근속기간과 같은 생산적 요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남녀간 인적자본 투자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3]

여성의 자격은 가정 내에서 여성의 복종을 유지하기 위해 고수되어 온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평등한 사람과 함께 산다는 생각을 관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정치학과 정치경제학의 수준에서는 누구라도 인류의 반을 수입 좋은 수많은 직업과 높은 지위로부터 배제하는 것의 불공정함을 인정할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여성은, 가장 어리석고 비열한 남성에게조차도 법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직업에 적합하지 않거나 어떻게 해도 적합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얼마나 적합하든지간에, 남성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그러한 직업들은 여성에게 금지된 것이다.

무엇이 여성에게 금지될 때, 여성은 그것을 할 수 없고 여성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길로부터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주장했던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주장할 준비를 해야 한다. 평균치의 여성이 지적으로 평균치의 남성보다 못하다든가, 남성보다는 적은 수의 여성이 높은 지성을 요구하는 직업에 적합하다든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느 여성도 그러한 직업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가장 뛰어난 여성이 현재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가장 평범한 남성보다도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주장이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다 현재의 경험을 덧붙인다면, 여성을 가장 철저하게 경시하는 사람조차도 소수만이 아닌 다수의 여성이 남성이 해온 일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믿을만하게 수행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증명해왔다는 것을 감히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중략)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여성이 지적 활동을 위해 남성과 경쟁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성에 대한 억압이며 사회에 대한 피해임을 충분히 그리고 그 이상으로 증명하지 않는가?

[제시문 4]

미국 국민은 누구나 법에 따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 그러나 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마다 약간씩 다르다. 학생들이 16세 이상이 되면 학업을 그만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도 있지만, 어떤 주는 17세인 경우도 있고, 18세인 경우도 있다. 더구나 이 연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어왔다. 각 주의 이러한 의무교육 연령 차이와 이 연령의 시간적 변화로 인해 학자들은 의무교육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게 되었다. 노동경제학자 앤그리스트와 크루거는 이 자료를 사용하여 학교교육과 임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를 오래 다니도록 의무화된 학생들은 실제로 나중에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학교 교육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실제로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그러므로 ㉡ 『남녀간 임금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두 성별간의 학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직장 경력의 차이에 따른 남녀간의 인적자본 축적의 차이도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 원리 3 : 제시문 간의 화제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을 파악한다.

주제가 직접 드러나 있는 제시문도 있지만 주제의 하위 요소에 해당하는 하위 요소들을 중심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제시문에서 핵심적인 화제를 추출한 후,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을 찾아내야 한다. 다음 내용은 2008학년도 숭실대학교 정시 논술고사 제시문이다. 이 글은 주제는 '사랑과 결혼' 이다. 【제시문 가】는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제시문 나】는 사랑이라는 본성과 결혼이라는 제도의 불일치를, 【제시문 다】는 결혼이라는 행위에 담긴 현실적 이해관계를 다루고 있다. 세 제시문 모두 '사랑과 결혼' 이라는 상위 개념에 속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가) 남녀 간의 사랑은 서로에 대해 전폭적인 관여를 요구한다. 남녀관계는 배타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부족한 것을 다른 이성과의 관계로 보완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때문에 남녀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이한 위상을 갖는다. '사랑에 빠진다' 거나, '사랑에 눈이 멀었다' 는 말은 뜨거운 감정에 사로잡혀 그 황홀함 때문에 이성(理性)을 잃는다는 뜻이리라. 그것이 또 순수한 애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만큼 사랑은 저절로 빠져드는 감정과 동일시된다. 낭만적 사랑, 다시 말해 에로스적인 사랑은 부모님과의 사랑이나 친구 또는 이웃과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독특한 경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그래서 젊은이로서 연인이 없으면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행복의 끈을 잡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결핍감을 느끼기가 일쑤다. 또 낭만적 사랑은 독특한 어떤 힘을 갖는다. 즉, 그 사랑이 일상의 얼룩들을 말끔히 닦아주고 삶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믿음이다.

(나) 진화심리학자들은 언어에서 짝짓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진화론으로 풀이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남자가 젊고 예쁜 여자를 선호하는 까닭은 여성미가 다산성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일수록 번식력과 종족보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요컨대 여성의 아름다움은 생존경쟁에서 이기려는 여성 자신을 위해 진화됐다. 반면에 여자들은 생김새에 더 너그러울 수 있다. 늙어 보이는 남성은 나이 들어 보이는 여성과 달리 번식력이 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은 다양하고 많은 파트너와 관계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짝과 관계하는 것은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더 잘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든다. 여성으로서는 고귀한 '유전자 기계' 인 아이를 제조하는 데 같이 참여할 남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생각' 은 자연 선택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이뤄진다. 여성은 그녀의 유전자 사업에 유익한 남성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남성들은 결혼—출산—육아라는 장기간의 사업을 같이 할 시점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유전자를 잘 키울 수 있는 상대를 신중하게 고르게 된다.

결국 암수간의 생물학적 차이가 수컷을 성적으로 적극적이게 만든 반면, 암컷은 비교적 신중하게 만들었다는 진화생물학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왜 성적 관계에 있어 남성이 보다 적극적이고 여성은 신중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 배우자 선택 유형에 대한 국내 연구는 교육 동질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동질혼의 증가는 부부관계가 보다 평등하게 변하는 정도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결혼이 계층화되는 경향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육 동질혼의 변화추세는 각 교육 수준별 남성과 여성의 인구 크기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동질혼이 강화되는 것은 남녀 교육 수준의 차이가 완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동질혼의 경향은 학력수준에서 양 극단 즉, 대졸과 초졸 이하의 학력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각 학력별로 남편과 아내의 동질혼의 경향은 달랐는데, 남성은 초등학교 학력에서 동질혼 경향이 두드러진 반면, 여성은 대졸학력에서 동질혼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의 계층 동질혼은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배우자의 학연을 포함하여 사회적 자본을 극대화하는 행위 양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 예제 확인

다음은 2008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인문계)에 나온 논술시험의 일부이다. 제시문을 읽고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제시문 가】

분업이 이루어지면 노동의 생산력이 크게 증진된다. 안정된 사회에서는 분업의 결과 기술이 진보하고 생산이 늘어서 최하층 계급에까지 부가 확산될 수 있다.

자신이 노동하여 얻은 생산물만으로는 인간의 수많은 욕망 중 극히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늘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때 단순히 남의 박애심(博愛心)을 기대하기보다는 상대편의 자애심(自愛心)을 유발시키는 편이 한결 나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준다면, 네가 원하는 이것을 주겠다." 인간의 욕망은 대부분 자기의 노동생산물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잉여부분을 다른 사람의 잉여부분과 교환함으로써 충족된다.

분업의 발생은 교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분업의 정도는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진다. 시장의 규모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한 가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에서 자신이 소비하고 남은 잉여부분을 다른 사람의 잉여부분과 교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이 유효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가치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수요자들 모두에게 그 상품이 공급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 중 일부는 다소 높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상품을 사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가격은 일시적으로 상품의 자연적 가치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한편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이 유효수요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품 가치 전체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수요자들에게 파는 것만으로는 상품을 다 팔 수 없으며, 일정 부분은 상품 가치보다 덜 지불하려 하는 사람에게 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가격은 일시적으로 자연적 가격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위의 두 경우와 달리 시장에 공급

되는 상품의 수량이 유효수요와 일치하는 경우 시장가격은 자연적 가격과 동일하게 된다. 공급자들은 수중에 있는 상품 전부를 이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더 비싼 값을 받을 길은 없다. 한편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 때문에 이 가격을 받아들이지만, 그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공급되는 상품의 수량을 자연적으로 유효수요에 일치시킨다.

상품이 지닌 가치의 보편적 척도는 노동이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 상품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의 양에 의해서 가장 정확하게 상품의 실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의 거래에서는 화폐로 그 가치가 평가된다. 특정한 시점과 장소에서는 화폐가 모든 상품의 진정한 교환가치의 척도이다.

【제시문 나】

[1]

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성립되고 나서 곧바로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사회주의 경제계산 논쟁'(이하 〈논쟁〉)이 있었다. 이것은 사회주의 체제 하의 경제가 과연 경제학적 합리성을 갖는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자유주의 입장에 선 그룹과 사회주의 입장에 선 그룹 사이에 오고 갔던 일련의 논쟁이었다.

가장 핵심적 쟁점은 경쟁적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였다. 1920년 「사회주의 공동체의 경제계산」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논쟁〉의 도화선에 불을 댕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폰 미제스였다. 그는 생산수단이 공유화되면 생산재를 교환할 시장이 없어지므로 생산재 가격이 수급균형점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어렵고, 따라서 자원 배분이 자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에 사회주의 경제란 논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입장에 섰던 경제학자들은 중앙계획당국이 시장경제의 일반 균형론 체계를 원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풀어감으로써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폰 미제스의 제자인 하이예크는 1935년에 펴낸 『집산주의 계획경제의 이론』이라는 책에서 그때까지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그는 두 주장을 비교하면서, 사회주의 경제의 이론적 성립 가능성이라는 논점에 관해서는 사회주의 입장에 선 그룹의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막대한 양의 통계 자료와 연립방정식이 필요하며, 이것을 푸는 것이 실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가 실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후 오스카 랑에는 분권적 사회주의 모델을 이용해서 사회주의 경제의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랑에는 중앙계획당국이 모든 가격을 결정하는 대신 시장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적절히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균형가격체계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한 동유럽 여러 나라 중에 헝가리는 자영농민을 비롯한 소생산자들이 시장에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소련에서는 1960년대에 시장 거래를 본뜬 이윤 개념을 도입하였다.

[2]

일반적으로 화폐는 교환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원시경제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시장거래와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화폐가 이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남태평양에 있는 미크로네시아의 작은 섬 야프(Yap)의 사람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중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한 지참금으로 커다란 돌 바퀴를 화폐로 사용해 왔다. 야프는 미국의 영토이므로 식료품 가게나 주유소에서는 달러가 통용된다. 그러나 돌 화폐는 이 섬의 전통의상인 풀로 만든 치마처럼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다. 돌 화폐에는 하나하나 고유의 역사가 있으며 그것에 따라 각각의 가치가 다르다. 더구나 증여가 반복되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덧붙여지기 때문에 돌 화폐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돌 화폐의 가치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의 구매수단으로서는 애초부터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돌 화폐는 작은 것일지라도 직경이 수십 센티미터에 달하며 큰 것은 2미터를 넘기 때문에 도저히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없다. 이곳의 관습에 의하면 깨진 돌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을 옮기지 않고 일정한 장소('돌 화폐 은행')에 남겨둔 채 소유권만 이전한다. 이 섬 안에는 6,600여 개의 돌 바퀴가 있다.

[3]

서양의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봉신(封臣)이 주군(主君)에게 군사적 의무와 충성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군은 봉신에게 영지(領地)를 하사했다. 봉건사회에서 지방의 제후(諸侯)는 자신의 주군인 국왕이나 더 높은 귀족에게는 봉신의 의무를 다했지만, 자신이 거느린 봉신이나 농민들에 대해서는 주군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주군이라 할지라도 영주가 자신의 영지에서 갖는 재판권이나 징세권(徵稅權)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었다. 장원제도는 봉건제도의 경제적 측면을 말한다. 중세의 농업 경제는 장원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이루어졌다. 장원의 중심부에는 영주의 저택과 교회, 그리고 농민의 집 등이 있었으며, 토지는 경작자·목초자·삼림·황무지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장원은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장원의 경작지는 영주 직영지와 농민 보유지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들 토지는 서로 경계가 없이 섞여 있었다. 영주 직영지는 농민들이 경작했으며, 장원 전체 면적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을 차지했다. 장원에 사는 농민들은 토지를 받는 대가로 영주에게 공물을 제공해야 했다. 그 대신 영주는 무력을 사용하여 농민들을 지켜주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자기 재산을 이용하여 농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했다. 장원의 토지를 경작하는 대부분의 농민은 농노였다. 그들은 고대의 노예와는 달리 토지와 가옥 등 약간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밀 수도 있었다. 그러나 중세의 농노는 거주 이전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고, 재판권·징세권 등을 가진 영주의 인신적(人身的) 지배를 받았다.

[4]

1953년 일본의 야마기시 미요즈가 제창한 공동체 운동을 야마기시즘이라고 부른다. 야마기시즘이 꿈꾸는 공동체는 한마디로 '돈이 필요 없는 사이좋은 마을' 이다. 1958년 일본에 야마기시즘 공동체가 처음 탄생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위스, 브라질,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 세계 각국에 40여 개가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환경 친화적 농법으로 먹거리를 생산한다. 우리나라에는 1984년에 최초로 야마기시즘 공동체가 생겼다. 이 마을의 홈페이지에는 "모든 생활과 경영을 일체 생활, 일체 경영, 일체 사회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

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함께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양계장이나 공동체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태만을 본 오해이고 실제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은 급료나 분배가 없는 일체 생활 속에서 사이좋게 즐겁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저희 자신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밝고 평화로운 사회로 바뀌기를 염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 이 마을은 무엇보다 무소유(無所有)를 삶의 근본 가치로 삼고 있다. 무소유는 공동소유와 다르다. 이들은 마을의 재산도 주민들의 공동소유물로 보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태양과 공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냥 존재할 뿐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마을 공동체의 무소유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 마을은 돈이 필요 없는 사회이며, 필요한 물건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야마기시즘 공동체가 물건을 필요로 할 때에도 물론 무료로 공급해준다.

제시문은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제시문은 4개의 소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문 전체의 주제는 **'경제 체제'** 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시문 (가)】는 분업, 욕망, 교환, 시장, 화폐 가격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시문 (나)】는 [1]사회주의 경제 체제 [2]화폐 공존체제 [3]중세 경제 체제 [4] '야마기시즘'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제시문을 읽으면서 분업, 욕망 등이 차례대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치 빠른 학생이라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고, 【제시문 (나)】의 [1]이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주제가 **'경제 체제'** 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처럼 주제를 미리 아는 것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지문을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즉 모든 제시문은 커다란 하나의 테두리(주제) 내에서 비슷하거나 또는 상대적인 관점의 이야기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주제를 염두에 두고 글을 읽는 것은 제시문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2008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 2학기 모집 논술고사(인문계)의 제시문이다. 제시문을 읽고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A〉

문화를 보는 관점은 초기에는 생물학적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류의 진화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류도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수백만 년을 거치면서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되어 오늘의 인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화도 수렵·채집의 문화로부터 농경 문화로,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서구적인 산업 문화로 점차 진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문화는 좀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질적으로 낮은 상태로부터 높은 상태로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문화 진화론에는 서양의 문화가 고립된 부족의 문화에 비하여 질적으로 높은 상태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서양 이외의 삶은 불편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서구 우월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해

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믿고 자기의 문화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自文化中心主義)라고 한다.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면 다른 문화는 문제가 있고 이상하다는 편견을 가지기 쉽다. 이러한 자문화 중심주의의 변형으로 문화 사대주의(文化事大主義)가 있다. 그것은 자기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질이 낮다고 평가하고 다른 문화를 동경하고 추종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후진국이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 많이 발견된다.

체계론에서는 문화가 하나의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보다 모든 문화는 다른 문화와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문화의 틀과 속성을 유지하며, 부분적인 조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변동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론에서 보면 문화는 우열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틀과 속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체계론은 문화 상대주의(文化相對主義)와 상통한다. 문화 상대주의는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동제(洞祭)는 신앙의 한 형태로서 존재 이유와 가치를 지니는 것이고, 불교나 이슬람의 예배 절차는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문화 상대주의이다.

〈B〉

우리가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는 윤리는 상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것인가? 윤리가 상대적이라는 말은 윤리 규범과 가치관이 문화권마다 서로 달라서 보편 타당한 규범과 가치관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윤리의 보편 타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상대론적 윤리설(윤리적 상대주의)'이라 하고, 그 반대의 입장을 '절대론적 윤리설(윤리적 절대주의)'이라 한다.

같은 바람도 몸이 찬 노인에게는 서늘하게 느껴지고 몸이 더운 어린이들에게는 미지근하게 느껴진다. 바람의 시원한 정도는 몸의 상태에 관련하여 상대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윤리 규범은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에서만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상대론적 윤리설이다.

반면에 절대론적 윤리설은 보편 타당한 삶의 원리가 인생의 목적 또는 행동의 법칙으로서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본다. 이 주장은 윤리의 본질적인 기능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조화롭게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두 손이 앞으로 묶여 있다고 하자. 이들 모두는 등이 지독하게 가려운 증세를 보인다. 천당에 있는 사람들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천당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 이들이 채택한 규칙의 차이 때문이다. 지옥에 간 이기주의자들은 서로 돕지 않고 자기 일만 챙기는 것을 삶의 규칙으로 채택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등을 긁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를 되풀이할 뿐 천당에서처럼 동그랗게 앉아 서로 앞 사람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려 하지 않는다. 이 두 종류의 규칙들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규칙일까? 인간을 행복하게 해 주는 이타주의 규칙이 타당한 규칙일 것이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유사한 욕구와 필요를 가졌고 이 욕구와 필요를 조화롭게 만족시키는 윤리 규범을 타당한 윤리 규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론적 윤리설의 입장이다.

한편, 상대론적 윤리설은 문화적 다양성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뉴기니의 도부족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을 허용한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누엘족은 기형아가 출산되면 하마가 살고 있는 강물에 던지는 풍속이 있다고

한다. 멜라네시아의 어느 부족은 친절과 정직함을 악덕으로 본다고 한다. 이런 예들은 규범과 가치관이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용기, 절제, 충성, 효 등의 덕목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찬양되는 공유 가치이나, 이 가치들 사이의 서열과 해석은 서로 다르다. 용기 있게 적과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집에 남아 병든 어머니를 돌봐야 하느냐 식의 딜레마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C〉

격세유전(atavisme). 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가! 모양도 좋고 음악적이고 발음하기 쉽고 듣기도 좋고 괴상하지 않으면서 기이하며 유식한 냄새를 피우지 않으면서 과학적이다. 이 이름은 돌연변이를 발견하고 연구한 네덜란드의 식물학자 휴고 데 브리스(Hugo De Vries)가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이 단어는 라틴어 어간 atavi(4대 조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제유(提喩)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4대 째의 조상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조상들을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 격세유전이라는 개념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개념 덕분에 하마터면 우리들의 직접적인 부모가 우리를 마치 판에 박은 듯이 찍어서 만들어놓을 우려가 있는 유전적인 덩어리가 엄청난—그러나 무한하다고는 할 수 없는—수의 작은 조각들로 분쇄되기 때문이다. 격세유전에 의해 유전은 더 이상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마치 토목 공사장의 인부들이 줄을 서서 손에서 손으로 전달 운반하는 벽돌장처럼—옮겨지는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개인적인 성좌를 구성하기 위해 골라 가지는 먼지처럼 많은 별들과도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로로 난 줄무늬 때문에 새끼 돼지는 아비 돼지와 어미 돼지를 우습게 여긴다. 그는 자신이 어쩌면 옛날 천 년 전 갈리아 숲 속에서 살았을 멧돼지와 더 가깝다고 확신하는 것이리라. 그리하여 그는 나름대로 자유를 구가한다.

격세유전은 영양생식의 반대다. 어떤 식림가(植林家)들은 나무의 씨앗을 심는 것보다는 꺾꽂이에 의존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무에서 가지를 떼어내어 땅에 묻으면 뿌리가 내리면서 그 자체가 나무가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같은 나무일까, 아니면 다른 나무일까? 그것은 나이로 보면 다른 나무다. 그 나무는 더 어려서 그에게 생명을 준 나무가 늙어 죽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살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같은 나무다. 그래서 거기에는 심각한 위험이 생긴다. 순전히 꺾꽂이로만 이루어진 숲이 있다면 그 숲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유전적 단조로움을 지니게 되어 질병, 기생식물, 퇴화, 기상이변 등 외부적 공격에 대하여 극도의 취약성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다. 공격에 대한 생명의 가장 훌륭한 방어는 그 생명이 구현된 개체들의 무한한 다양성이다. 유럽 삼림의 유전적 빈약함은, 특히 독일 같은 곳에서 개탄해 마지 않는 저 치유할 길 없는 쇠약증세의 경우에 있어서, 필경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식물의 꺾꽂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 조작에 의한 동물 복제다. 이 같은 방식에 의한 인간 복제가 내일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남자는 사내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고 여자는 여자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게 되어 그 아이들은 그들의 정확한 복사판이 될 것이다. (중략) 복제인간들의 사회는 꺾꽂이로 이루어진 삼림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유에서 극도로 허약한

사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개인이 전염병, 혹은 그를 마약 중독이나 자살로 몰아넣는 어떤 정신적 위기로 인해 쓰러진다면 그 피해자는 오직 그 개인뿐이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그 개인의 복제에 불과한 집단이라면 한 번의 치명적 타격으로 모든 인간이 다 제거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인류는 오늘날까지 온갖 질병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나게 다양한 사회집단 속에, 치명적인 세균들에 저항력을 가진 충분한 수의 개인들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이다.

〈D〉

다음은 미국 콜럼비아 대학의 Stepan과 Robertson이 이슬람 문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 중 일부이다. 〈표 1〉은 47개 이슬람권 나라(이 중 아랍권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16개국, 비아랍권은 말레이시아 등 31개국)를 대상으로 삼아 민주화가 양호한 나라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고, 〈표 2〉는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비이슬람권까지 포함시키되, 전체적으로는 소득수준이 1인당 GDP 1,500달러 미만인 나라(이슬람권 16개국, 비이슬람권 22개국)로 분석 대상을 한정시켜 각 그룹 별로 민주화가 양호한 나라의 비율을 구한 것이다. (자료 : *Journal of Democracy*, 2003)

〈표 1〉 이슬람권 나라 중 민주화가 양호한 나라

아랍권	비아랍권
16개국 중 1개국 (6%)	31개국 중 12개국 (39%)

〈표 2〉 1인당 GDP 1,500달러 미만(1996년 기준)의 나라 중 민주화가 양호한 나라

이슬람권		비이슬람권	
16개국 중 5개국 (31%)		22개국 중 7개국 (32%)	
아랍권	비아랍권	기독교 국가	기타
1개국 중 0개국 (0%)	15개국 중 5개국 (33%)	10개국 중 3개국 (30%)	12개국 중 4개국 (33%)

* 두 표에서 민주화가 양호한지 여부는 Polity IV 및 Freedom House 지수를 근거로 1973–2001년의 기간에 대해 평가한 것임.

〈E〉

사나운 야수를 끊임없이 만난다는 위험과 공포에 쭉 직면하고 있는 이 20일간을 마치면 산간에 다수의 작은 촌락이 산재하는 지방에 이른다. 이 고장에는 다음과 같은 결혼 풍습이 있다.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처녀를 아내로 맞지 않는다. 다수의 남자와 관계한 일이 없는 여자는 가치가 없다. 사내를 한 사람도 모르는 여자는 신들의 혐기(嫌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사내들은 이러한 여자를 기피한다. 바꿔 말하면 만약 여자가 모든 우상에게서 사랑을 받을 정도라면 사내들은 이 여자를 쫓아가서라

도 손에 넣으려고 할 것이 틀림없다고 간주한다. 이것이 이 고장 주민이 갖는 결혼에 대한 풍습이다.

외지에서 찾아온 낯모르는 사람들이 이 고장에서 천막을 치고 숙박할라치면 거리에서나 마을에서나 나이 지긋한 노부인이 저마다 자기 딸을 데리고 20명에서 40명이나 되는 집단을 이루어 천막을 찾아와서 자기 딸들을 이들 타관 사람에게 권한다. 나그네들은 이 처녀들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고 함께 잘 수도 있다. 타향사람들은 처녀를 텐트에 유숙시켜 마음 가는 대로 언제까지나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여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야영 장소는 늘 같아야만 한다.

나그네가 처녀들과 즐긴 뒤 그 고장을 출발하려 하면 자기와 같이 잔 처녀에게 보석이나 그 밖의 기념품을 주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 처녀들이 나중에 결혼할 단계에 이르러 전에 애인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처녀들은 이러한 수단으로 이 기념품을 20개 이상은 손에 넣어야 한다. 그녀들은 이 기념품을 손에 넣으면 곧 이것을 목 둘레에 드리워 자기에게는 수많은 애인이 있어 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같이 잤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낸다. 기념품을 가장 많이 입수한 여자, 즉 가장 많은 애인을 갖고 가장 많은 사내들과 잔 일이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처녀는 누구보다도 존중되며, 그 고장 남자는 이런 처녀라면 당장에라도 결혼하며, 그녀야말로 여러 신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여자라고 선전한다. 이들 처녀가 만약 나그네의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에는 그녀를 아내로 삼은 사내가 자기 자식들과 함께 같은 대우로 양육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은 아내를 엄중히 감시한다. 남의 아내에 손대는 것은 발칙한 행위라고 믿어지고 있어 누구나 조심해서 이것을 피한다.

〈F〉

태국의 고산족 중에서 카렌족과 이수족, 타이야이족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태국 북부 지방에 살고 있는 고산족의 대부분이 태국 원주민이 아니라 라오스나 미얀마, 중국 등지에서 피난 온 난민이라는 데 있다. 이들이 고국을 버리고 태국으로 넘어와 사는 이유는 정치적으로부터 경제적 이유까지 다양하다.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을 태국이 받아들여 일정한 거주지를 주고 그곳에서 살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한된 지역에서 살 수는 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 자기가 사는 마을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들은 태국 정부의 관광 정책에 의존하여 그 부족의 여인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관광객에게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한 카렌족 중에는 여성들의 목이 긴 부족이 있다. 이 부족의 여인들은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방영된 적이 있다. 이 부족의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목에 금빛으로 된 굴렁쇠를 감고 산다. 해가 가면서 하나씩 개수를 늘려간다고 하는데, 한 나이 많은 여자는 26개를 하고 있었다. 일정한 굵기의 굴렁쇠를 목에 감고 있으니, 목이 가늘어지면서 길게 늘어났다. 얼마만큼 많은 개수를 하고, 얼마만큼 목이 늘어났느냐가 미의 표준이라고 한다. 목은 길게 늘어날지 모르지만, 일정한 굵기의 굴렁쇠로 목을 고정시키고 있으니, 목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서 이들의 움직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카렌족[Karen] : 미얀마 및 태국에 거주하는 민족 집단. 여인들이 목에 링을 걸고 다니며 링의 수와 종류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이 여인들 중에 그림엽서에 소개된 이를 만날 수 있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카렌족 여성들은 다섯 살이 되면 목에 굴렁쇠를 끼기 시작한다. 지금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섯 살에 굴렁쇠를 꼈다고 하더라도 2년 후인 일곱 살이 되면 다시 한 번 의사를 물어 계속 낄지 안 낄지 기회를 준다고 한다. 그 여인보고 왜 굴렁쇠를 하겠다고 선택했느냐고 물었더니, "어릴 때 머리를 장식하고 목에 번쩍거리는 금붙이가 멋있어 보여서"라고 대답했다. 목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익숙해져서 괜찮다. 오히려 편하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길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절감할 수 있었고, 전율이 왔다. 익숙해져서 괜찮다? 그러나 이들은 목에 굴렁쇠가 없는 사람들의 자유로움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없으니, 진정 무엇이 편한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막상 이 굴렁쇠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그 폐해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걸 끼도록 만든 사람들은 그 폐해를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 중에 바람을 피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남편이나 가족이 목에서 굴렁쇠를 벗겨내는 벌을 주었기 때문이다. 굴렁쇠를 낀 여인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받침대 역할을 하던 굴렁쇠를 벗기면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고통스럽게 지내야 하고 심지어 목이 부러져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A〉부터 〈F〉까지 여섯 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A〉는 문화 진화론 및 체계론과 연계하여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을, 〈B〉는 윤리에 대한 절대론적 관점과 상대론적 관점을, 〈C〉는 '격세유전'을 통해 종(種)을 구성하는 개체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다. 〈D〉는 개별 문화(이슬람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통계자료로 제시되고 있으면 〈E〉와 〈F〉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사례로 〈E〉는 티베트 지역에 속한 어느 고장의 독특한 결혼 풍속을, 〈F〉는 동남아시아 카렌족의 독특한 문화가 소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섯 개의 지문을 통괄하는 주제는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원리 적용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제를 서술하시오.

1

(가)

선진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한다. 사회적 명예와 권력과 富부가 높고 강하고 많을수록 그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헌신의 필요성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이다. 1,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는 이튼스쿨 출신만 2000여명이 전사했다. 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희생자 비율보다 몇 배나 높았다. 세계적 부자 워런 버핏은 전 재산의 85%인 374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했다. 자녀들에게 돌아간 유산은 불과 몇 %도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쌓여 그들 사회의 튼튼한 基礎기초가 되고, 자기 실력으로 쌓은 富부와 권력의 正當性정당성이 확보되며,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는 사회적 안목도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선비의 전통이 끊어진 토대 위에서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하는 나라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느 곳보다 더 절실한 사회라는 말이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철하게 도덕의식을 실천하고 자기희생을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그들의 힘과 돈은 도전 받게 되고 사회 역시 모래 위에 쌓은 城성처럼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판·검사들은 무더기로 브로커에 놀아나고, 의사들은 법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불법 돈 로비를 한다. 사회의 상층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디에 권위가 설 땅이 있겠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인사 태풍이 사회 전체를 뒤집듯 휩쓸어 가는 것도 결국 곳곳에서 권력의 횡포를 막아낼 권위의 방파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법원, 대학, 의료계, 문화계에 권위가 서 있다면 정치 권력이 결코 제 집 안방 드나들 듯 버릇없이 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

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훅 들이키고 다음을 계속했다. ―섬사람들이 한창 둑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한다. 좀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강둑길에 검정 지프차가 한 대 와 닿은 뒤라 한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둑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둑을 막아 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인지 뭔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 봐도, 들어 주긴 커녕 그 중 힘깨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치째진 친구가 되레 갈밭새 영감의 괭이를 와락 뺏더니 물 속으로 핑 집어던졌다는 거다.

그리곤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후욕 패설을 함부로 뇌까리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갈밭새 영감도,

"이 개 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네놈들의 욕심이 중하냐?"

말도 채 끝내기 전에 덜렁 그 자를 들어 물 속에 태질을 해 버렸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 해 보고 탁류에 휘말려 가고, 지레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선지 이내 경찰이 둘이나 달려왔더라고.

"내가 그랬소!"

갈밭새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다행히도 벌써 그 때는 둑이 완전히 뭉개지고, 섬을 치덮던 탁류도 빙 에워 돌며 뭉그적뭉그적 빠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조마이섬을 지키다시피 해 온 영감인데……살인죄라니 우짜문 좋겠능기요?"

게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벌건 눈에서는 어느덧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나는 이방인처럼 윤춘삼씨의 캉캉한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요약하기

(가)	전략구사하기	
	주제	
(나)	전략구사하기	
	주제	

문제해결

2

(가)

1900년 출판된 '오즈의 마법사'는 원래 동화가 아니라 정치 풍자소설이었다. 악의 무리를 이끄는 동쪽의 마녀는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알고 보니 별 볼일 없는 오즈의 마법사는 연방정부, 허수아비와 깡통나무꾼은 농촌과 도시의 실업자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이런 설정은 당시 중서부 대평원지대의 농민운동에서 출발했던 인민당(populist party)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인민당 강령의 핵심은 은화를 무제한 발행하자는 것이었다. 인플레를 불러 금융자본에 타격을 주고 빚더미에 눌린 농민을 구해주겠다고 했다. 인민당은 한때 연방의회에서 20여석을 차지할 정도로 기세를 올리다 곧 몰락하고 말았다. 정치적 선동으로 농민과 뜨내기 노동자들을 휘어잡기는 했지만 현실적 정책을 내놓을 능력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는 용어만 남겼을 뿐이다.

포퓰리즘의 기원은 로마다. 공짜 빵과 서커스로 평민들을 매수하려 했던 선동정치가를 '포퓰라레스(Populares)'라고 했다. 로마 시민이 하는 일 없이 놀고먹을 수 있게 해주느라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정치가들은 정복전쟁과 식민지 수탈로 이를 해결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인은 식민지를 폐허로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고 했다.

오늘날 로마식 재원 마련은 어림없는 일이다. 그래도 국민을 빵과 서커스로 구워삶으려면 나라 곳간을 들어먹는 수밖에 없다.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인 아르헨티나의 페론이 그랬다. 20세기 초반 아르헨티나는 세계 5~6위 부국이었다. 1946년 집권한 페론이 최저 임금을 크게 올리며 갖가지 분배정책에 열을 올리자 순식간에 국고가 비고 세계의 빈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요즘 남미에 다시 포퓰리즘 바람이 거세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그 선두에 있다. 1998년 집권 후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소작농에게 나눠주고 무료 교육, 무료 의료로 빈곤층의 환심을 사는 정책만 펴왔다. 국제적 반미전선 지도자라는 기분을 내기 위해 주변국들에 퍼준 돈만 300억 달러가 넘는다. 2003년부터 시작된 고유가 덕분에 호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았다면 벌써 나라가 거덜났을 것이다. 빵과 서커스로 국민을 타락시키는 선전·선동형 정치의 말로(末路)는 경제 파탄과 나라의 몰락일 수밖에 없다. 말로 우쭐대고 선심으로 인기를 탐하는 지도자를 둔 죄로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나)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귤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 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濟州島)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 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없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을 흘러가서 어떤 빈 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沙門)과 장기(長崎)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 나를 그 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했다.

요약하기

(가)	전략구사하기	
	주제	
(나)	전략구사하기	
	주제	

문제해결

3. 주제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다

- 원리 접근
- 원리 이해
- 예제 확인
- 기출 연습
- 원리 적용

3. 주제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다

✍ 원리 접근

위 삽화는 소풍지를 놓고 급우들이 토론하는 장면이다. 아직 어디로 소풍을 갈 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각자 소풍 장소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철수는 놀이공원으로 가자고 하는 데, 영수는 학습 효과를 고려하여 박물관으로 가자고 한다. 민수는 철수의 의견에 동주하는 발언을 하고 인수는 아예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소풍을 취소하자는 듯한 발언을 한다. 이처럼 소풍 장소라는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논술시험의 제시문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앞의 장에서 언급했듯이 논술시험을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주제가 정해지면 그 다음 순서는 다양한 관점의 제시문을 수합하는 일이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제시문을 직접 집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관련 서적이나 교과서에서 발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출제자가 제시문을 구성할 때는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내용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출제 의도에 따라서는 그림이나 사진 통계 자료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상황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읽어야하는 지도 분명하다. 즉 각각의 제시문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된다.

✍ 원리 이해

제시문을 읽어 가면서 주제를 파악했으면 그에 따른 다양한 견해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 어차피 주제가 정해졌으면 각각의 제시문은 그와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이해하면 독해의 완성도 또한 높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논제는 제시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이해 여부를 묻는다.

▣ 원리 1 : 동조 또는 대조의 관점에서 제시문을 파악한다.

〈원리 1〉은 제시문 간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서술' 하거나, '비교' 하라는 논제가 나오면 제시문은 대부분 동조나 상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제시문을 접할 때, 의도적으로 동조와 대조의 관점을 견지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구분하기 쉽도록 동조의 경우에는 '+' 표시를, 대조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음 내용은 2008학년도 경희대학교 정시 논술고사 제시문이다. 이 글의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와 가치' 를 다루고 있지만 그 관점은 서로 다르다.

[가] 나의 유전자의 생존은 내가 자손을 갖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진화는 나의 자식의 생존과 번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를 선호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부모가 자식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화가 이타성을 산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유전적으로 가까운 혈연을 돕고자 하는 성향, 이것이 바로 혈연이타성의 기초를 이룬다. 따라서 공동체 일반에 대해 관심을 갖기 보다는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관심은 생물학적으로 따져 볼 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 모두 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도덕적 탁월성의 지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가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 자녀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을 단순히 허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칭송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관심이 보편성을 지니며 강렬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즉 가족을 돌보았을 때에 얻어지는 사회전체의 이익 때문에도 가족에 대한 관심은 칭송받고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될 수 있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또한 환자가 간호를 잘 받고 노인들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가족이 없었다면 공동체 자체가 짊어져야 했을 문제들을 가족은 자연스러운 애정의 결속을 통해 스스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가족에 대한 관심이 모르는 사람들의 복리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강하다면, 가족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성향을 인정하는 윤리적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가족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는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나] 한국의 근대화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발휘된 높은 경제적 동기와 헌신적 노동 투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이것이야말로 경제성장을 이끈 결정적인 동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동기와 투입을 자본주의 일반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한 사례로 보기에는 분명 석연찮은 면이 없지 않다. 경제성장의 욕구는 사실상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고 더구나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도 우리만큼 아니 우리 이상으로 경제성장에 목말라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달랐고 한국의 자본주의는 예외적인 경제적 성취를 이루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문화와 가족주의가 한국 자본주의의 긍정적 배경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유교의 효라는 의미의 원천으로부터 헌신적인 노동의 원동력을 제공받아온 현대자본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가족주의의 기저에는 효의 실천이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효의 실천이 혈연관계를 전제로 하고 또 그러한 혈연관계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효의 지향은 한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높은 혈연적 신뢰의 규범적 기반이기도 하다.

이렇게 높은 혈연적 신뢰는 단순한 도덕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주의를 매개로 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물론 가족주의가 일정 측면 집단이기주의의 폐단을 노정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족 간의 신뢰가 결과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유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혈연적 신뢰는 가족 상호간 강한 책임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경제적 동기화와 함께 긴밀한 상호부조로까지 이어졌던 탓이다. 지난 세기 경제발전의 성취는 이 같은 혈연적 신뢰와 혈연적 응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물론 그 이면에는 가족적 상호부조에 의한 사회적 복지비용의 절감이 중요한 효과로서 자리하고 있었다.

[다] 에드워드 밴필드(Edward Banfield)의 저작 『후진 사회의 도덕적 기초』(*The Moral Basis of Backward Society*)는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도시인 몬테그라노(Montegrano)에서의 사회생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인의 애착이 몬테그라노의 도덕규범을 설명하는 데 있어 출발점임에 틀림없다. 성인(成人)이 그 가족과는 별개의 사익(私益)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자아(ego)'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존재한다. (중략)

몬테그라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다른 가족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익도 자기 가족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도 마땅히 내야 할 것 이상으로 타인에게 베풀 여유가 없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주어야 할 공평한 몫을 낼 여유조차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족이라는 작은 집단 밖에 위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경쟁자이며, 잠재적인 적이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이성적인 태도는 의심인 것이다. 부모는 다른 가족들이 자기 가족의 성공을 시샘하고 두려워한다는 것과 피해를 입히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이들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이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해를 끼칠 힘을 갖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피해를 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몬테그라노 주민들이 느끼는 유일한 도덕적 의무란 자신의 핵가족 구성원에 대한 것뿐이었다. 밴필드는 이러한 형식의 가족에 근거한 고립을 '무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라고 명명했는데, 이 용어는 곧이어 대부분의 사회과학 사전에 수록되었다.

[라] '2000년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에 의하면 1 인 가구 수는 1995년보다 35.4 %가 증가하여 전체가구의 15.5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부와 1~2 명의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형태의 혈연중심의 핵가족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들이다.

"예술과 관련한 개인 사업을 하는 최 씨는 비슷한 계통의 일을 하는 사람과 5 년 전에 결혼했다.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결혼 조건이었다. 이들의 생활은 완벽한 부부 중심이다. 동호회 등 취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며, 서로의 여가나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

"김 씨에게 있어서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자손들이 아니다. 그녀가 이 집의 중심이라고 안내하고 있는 부엌은 60 명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대형 식당이다. 이곳은 일흔 살 이상의 노인들 50여 명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이곳의 노인들은 가끔 자신의 실제 혈연가족들을 불러 파티를 열기도 한다. 이들에게 혈연가족이란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특별한 날에 만나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

【제시문 가】는 혈연에 기초한 생물학적 관점을, 【제시문 나】는 유교문화에 기초한 가족주의를 소개하면서 효를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극단적 가족이기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으며, 【제시문 라】는 두 가지 유형의 가족 형태 즉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과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공동체적 가족을 형성하는 비혈연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가치라는 주제에 비춰보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는 동조적 관점이, 【제시문 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라】는 대조적 관점이 나타나 있다. 【제시문 다】의 경우 편협한 이기주의라는 점에서는 【제시문 라】의 딩크족과 동조적이나 비혈연 공동체와는 대조적이다.

▣ 원리 2 : 일반 또는 구체적인 관점에서 제시문을 파악한다.

최근의 논술시험을 분석하면 하나의 제시문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드시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여러 개의 제시문이 주어진다. 제시문 가운데 주제에 대한 내용을 좀더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경우와 사례를 들어 실증적으로 진술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포괄적 진술은 일반화로, 실증적 진술은 구체화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2008학년도 고려

대학교 수시 논술고사 제시문이다. 이 글의 주제는 '감정노동'을 다루고 있으며, 일반적 관점과 구체적 관점이 동시에 나타난다.

(1)

유통 시장에 한층 더 조직화된 대규모의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종전의 소규모 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했다면 새로이 등장한 대규모 기업들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판매한다. 기업가는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그의 노동과 기술을 구매한다. 그런데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의 경우 기업가는 피고용자로부터 노동과 기술뿐 아니라 인성도 구매한다. 노동자의 임금 노동은 고용주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일이다. 서비스 분야의 노동자는 그에 더하여 고객이나 관리자 같은 수요자를 위해 종종 자아를 희생해야 한다.

서비스 판매도 시장의 논리에 좌우되므로 '인성 시장'이 그 분야에서 형성되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상품 생산보다 인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피고용자의 인성이나 인맥 형성 능력 등이 교환의 영역에 이입되고, 그로써 상업적 관련성을 지닌 상품으로 변모되는 과정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개인적 특성들에 대한 통제권이 가격을 매개로 이전될 때 인성 시장이 형성된다. 인성 시장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피고용자는 기업의 관료 구조 속에 편입되어 상위의 권위자에 의해 훈련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둘째, 피고용자의 일상 업무는 고객과 접촉하여 그에게 회사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고객은 피고용자와 무관한 익명의 존재이어야 한다.

고객은 인성 시장에서 상업적 가면을 쓴 존재를 만난다. 따라서 고객은 백화점 판매원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면서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단지 판매원의 친절과 호의에 대해 값을 지불하면 된다. 백화점 판매원도 맡은 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된다. 친절과 호의는 기업의 판매 전략을 합리화하는 대외적 측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매원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정형적인 준칙과 규율을 지켜야 한다. 판매원은 상품들을 전시하고 그것들을 고객이 구매하도록 설득할 뿐이다. 바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판매원은 자신의 인성을 사용한다. 판매원은 자신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 익명적 조직에 충성하기 위해 언제나 고객에게 친절과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원의 본심과 고객에 대한 그의 행동 사이에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 매장에서 판매원이 짓는 미소는 상업적인 미끼이다. 판매원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영진이 부주의한 탓으로 보아야 한다. 판매원이 자기 규율과 성실성, 재치, 품위 등을 개인적으로 내면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판매를 위해 그러한 미덕들을 고객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인사 전문가의 교육 지침서에는 직원들이 '무던하고 무난하며 효과적인 인성'을 갖도록 육성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소규모의 자영 상인들처럼 판매 직원들도 서비스와 인성을 통해 서로 경쟁한다. 그러나 자영 상인들과 달리 판매 직원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격을 흥정하거나 시장을 판단하여 판매할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 시장에 대한 판단과 구매 결정은 전문가들의 몫이다. 판매 직원은 자유주의의 고전적 영웅처럼 자기 계발과 관리를 통해 승진을 위한 개인적 능력을 형성할 수 없다. 이제 직업의 세계에서 인성도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다. 인성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현대의 기업들은 치밀하게 짜인 장치로 직원들을 훈련하여 그들이 인성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도록 한

다. 그런데 인성 시장에서 작동되는 판매의 방식이 가장 유력한 처세의 방식으로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 공적인 사업 관계에서 형성된 기술이 사적인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새로운 처세의 방식을 전하는 책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 빙퉁그러진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누구도 가난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늘날 새로운 귀족계급이 생성되고 있다. 개인적 매력의 귀족이 바로 그 계급이다." 새로운 귀족계급의 성원은 겉으로는 다른 성원을 상급자로 우대하는 한편 속으로는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되뇐다.

현대의 대도시 사람들에게 보편화된 상호 불신과 자기 소외의 바닥에는 인성 시장이 자리 잡고 있다.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계약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화폐 중심의 거래 관계는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지고 개인의 삶과 대인 관계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침투한다. 고객에게 친한 척하는 판매원의 윤리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요구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윤리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처세를 위한 방편으로 그 윤리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 윤리가 보내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알아본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 행위에 조작이 내재한다는 것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2)

최근에 은행업, 보험업, 관광업 및 레저 산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의 직업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노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수도 현저히 늘고 있다. 그런데 감정노동은 특정한 범주의 직업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공적 · 사적 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동반한 쇼핑은 아이들 때문에 심하게 부대끼는 부모들에게 종종 감정노동을 단련할 기회가 된다. 부모들은 계산대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기보다는 억지 미소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및 병자를 돌보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포함한 사회관계 속에서 노동을 한다. 그들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그 직업에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얼굴 표정과 육체적 표현을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관리한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임무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 속에서 그들은 고객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표면 연기는 이 딜레마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러나 표면 연기가 위선적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노련한 직업인들은 표면 연기 대신 내면 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은 무례하고 공격적인 환자를 다룰 때 그 환자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내려고 애쓰고, 화를 내기보다는 스스로 미안한 감정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그런 대처 방식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한 자기감정으로부터 유리되는 현상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직업이 몸에 가하는 스트레스는 특정한 감정과 육체적 상태를 요구하는 업무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자신의 행위가 자아 개념과 모순된다고 인식될 때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진다.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면서 언제

나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우선적으로 부응해야 할 때 몸은 견딜 수 있는 이상으로 가해지는 긴장에 대해 무의식적인 저항을 드러낼 수 있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에게 기대하는 감정노동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3)

사무원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의자 고행을 했다고 한다.
제일 먼저 출근하여 제일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상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여간해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도 의자에 단단히 붙박여
보리밥과 김치가 든 도시락으로 공양을 마쳤다고 한다.
그가 화장실 가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사람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의 다리는 의자가 직립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는 하루종일 損益管理臺帳經손익관리대장경과 資金收支心經자금수지심경 속의 숫자를 읊으며
철저히 고행업무 속에만 은둔하였다고 한다.
종소리 북소리 목탁소리로 전화벨이 울리면
수화기에다 자금현황 매출원가 영업이익 재고자산 부실채권 등등을
청아하고 구성지게 염불했다고 한다.
끝없는 수행정진으로 머리는 점점 빠지고 배는 부풀고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 비해 팔다리는 턱없이 가늘어졌으며
오랜 음지의 수행으로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매일 상사에게 굽실굽실 108배를 올렸다고 한다.
수행에 너무 지극하게 정진한 나머지
전화를 걸다가 전화기 버튼 대신 계산기를 누르기도 했으며
귀가하다가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권 대신 열쇠를 밀어 넣었다고도 한다.
이미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사고를 대신할 만큼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30년간의 長座不立장좌불립'이라고 불렀다 한다.
그리 부르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치 않고 묵언으로 일관했으며
다만 혹독하다면 혹독할 이 수행을
외부압력에 의해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나마 지금껏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의 통장으로는 매달 적은 대로 시주가 들어왔고
시주는 채워지기 무섭게 속가의 살림에 흔적없이 스며들었으나
혹시 남는지 역시 모자라는지 한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의자 고행에만 더욱 용맹정진했다고 한다.
그의 책상 아래에는 여전히 다리가 여섯이었고
둘은 그의 다리 넷은 의자다리였지만
어느 둘이 그의 다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4)

〈표〉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 (천 명)

산업 \ 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5
1 차 산 업			3,712	3,272	2,403	2,243	1,815
2 차 산 업			3,647	4,992	4,884	4,311	4,252
3 차 산 업			7,562	9,801	13,168	14,602	16,789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전체	–	–	350	481	639
		남성	–	–	119	149	181
		여성	–	–	231	332	458

*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양로원, 고아원, 육아시설, 복지관 등의 종사자 포함.

【제시문 1】은 서비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인성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제시문 2】는 서비스 산업 종사자 가운데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고객을 대해야 하는 '감정 노동'에 관한 내용이다. 【제시문 3】은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저당잡힌 평범한 사무원의 일상이, 【제시문 4】는 산업별 종사자수 추이를 한국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제시문 4】는 3차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 조사자 수 변화를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 1】은 '감정 노동'이 형성되는 포괄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관점을, 【제시문 3】은 '감정 노동'이 개인의 일상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으므로 구체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 원리 3 : 확장 또는 연계적인 관점에서 제시문을 파악한다.

주제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의미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시문은 주제의 범위내에서 진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주제도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는 내용이 제시되거나 직·간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진술되기도 한다. 제시문을 읽으면서 주제를 추상화하는 내용이 있으면 확장적 관점으로, 주제를 다른 시각에서 진술하고 있으면 연계적 관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음 내용은 2009학년도 외국어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제시문이다. 이 글의 주제는 '정의' 를 다루고 있으며 확장적이며 연계적인 관점이 동시에 나타난다.

〈제시문〉

A Greek philosopher's saying 'Office will reveal the man' is felt to be valid; because an official is in a relation to, and associated with, somebody else. And for this same reason—that implies a relation to somebody else—justice is the only virtue that is regarded as someone else's good, because it secures advantage for another person, either an official or a partner, So the worst person is the one who exercises his wickedness towards both himself and his friends, and the best is not the one who exercises his virtue towards himself but the one who exercises it towards another; because this is a difficult task. Justice in this sense, then, is not a part of virtue but the whole of it, and the injustice contrary to it is not a part but the whole of vice.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자료 1〉

다윈은 한 때 "범인을 벌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서만 옳다" 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공리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과 거의 일치한다. 우리는 전체적인 행복의 수준을 높여주는 한에서 벌을 주어야 한다. 복수는 그 자체로서는 선한 것이 없다. 즉 잘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마찬가지로 슬픈 일이고 공리주의자들이 전체의 행복을 계산할 때 똑같은 비중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벌은 그 벌을 줌으로써 미래의 범죄를 예방을 통한 다른 사람의 행복 증진이 그 슬픔보다 더 클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자료 2〉

많은 국가에서 형벌은 몇 가지 분명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실용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그 중에는 철저히 도덕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는 순수하고 단순한 의미에서의 징벌이다. 비록 이러한 처벌은 실용적인 기능은 갖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 처벌은 선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당신이 우연히 어떤 섬에서, 이미 본토에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95세의 탈옥수를 발견했다고 하자. 아마도 당신은 정의를 이루기 위해 이 죄수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고통을 가할 것이다. 물론 당신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할 수 있다. 또 본토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 처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 하늘 어디에선가 정의의 신은 당신의 처벌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것이다.

〈자료 3〉

폭력적으로 보이는 사회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이고 부드러운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아메리카 평원지대의 인디언들을 한 예로 살펴보자. 이 인디언 사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기할만한데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부족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형태의 식인풍습을 갖고 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한 조직화된 일종의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찰력은 일종의 사법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인디언들은 죄인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 유대로부터의 단절이란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가령 한 인디언이 부족의 규례를 위반하여 그 결과 텐트와 말을 포함한 그의 전 소유물의 파기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하자. 흥미로운 점은 이 선고와 더불어 사법기관이 그 인디언에 대해 일종의 빚을 지게 된다고 하는 점이다. 이 기관은 처벌로 인해 그 죄인이 입게 된 손실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보상을 책임지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로 인해 범죄자는 다시 한 번 자신이 속한 사회에 빚을 떠안게 된다. 그는 그가 속한 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사회에 선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때 사법기관을 포함한 전 공동체는 이 선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 결과 채무 관계의 역전이 반복된다. 이러한 관계의 재역전은 증여와 대(對)증여의 방식으로 전개되며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로 인해 발생한 최초의 무질서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자료 4〉

유고연방이 해체되기 시작할 무렵인 1992년 보스니아는 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고, 보스니아 내 소수민족인 세르비아계도 보스니아에서 독립을 선언하였다.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긴 했지만, 보스니아는 3년여의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다. 보스니아 내전의 대표적인 참상은 내전 막바지에 7000명의 보스니아 이슬람교도들이 무참히 살해된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이다. 세르비아 접경지대에 자리한 스레브레니차는 이슬람교도 집단거주 마을로서, 세르비아계는 그곳에서 인종청소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에서 일어난 최악의 민간인 학살사건이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과연 세르비아계만 가해자일까? 물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니까 전범이고 가해자이다. 하지만 세르비아계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와 손을 잡은 크로아티아계에 의해 대거 학살당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서로 간 뿌리 깊은 증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내전이 악화되자 미국과 나토군은 보스니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사태를 진정시켰다. 1995년 데이튼 평화협정에 따라 내전이 종식되었고, 내전 때 세르비아계에 의해 저질러진 크로아티아계 대량학살의 책임을 묻는 국제 전범재판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조화로운 다민족 국가의 건설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민족과 종교를 국가보다 우선시하는 세력에 의해 허물어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자료 5〉

안티고네 : 이스메네야, 내 동기야. 온갖 고난과 파멸과 부끄러움과 욕스런 일치고 너와 나의 불행 중에서 안 당한 것이 없구나. 게다가 이제 왕이 오늘 선포한 것이란 무슨 일이란 말이냐? 듣지 못했니? 글쎄, 우리 소중한 분들을 원수로 몰다니, 넌 모르고 있니?

이스메네 : 안티고네 언니, 우리 두 오빠들이 서로 싸워서 하루에 다 죽고 만 다음부터는, 기쁜 것이건 슬픈 것이건, 소중한 분들의 소식을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아르고스의 군인들이 도망친 후로는, 내 운명이 더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그 이상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안티고네 :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네게만 말하려고 너를 궁문(宮門) 밖으로 데려온 것이란다.

이스메네 : 어떤 얘긴데요? 무슨 어둔 소식이 언니 가슴을 흔드는 것 같아요.

안티고네 : 글쎄 크레온 아저씨가 우리 오빠들을 한 사람은 정중하게 장사 지내도록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하시지 않겠니? 오빠는 바른 법도에 맞게 장사를 치르고,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훌륭하게 묻어 준다더라만, 불쌍하게 돌아가신 폴류네이케스 오빠의 시체는 아무도 땅에 묻거나 그를 위해서 조상해서는 안 되고, 아무도 그를 위해서 우는 사람 없이, 새들이 좋은 먹이라고 멋대로 쪼아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명령이 장안에 내렸다고들 소문이로구나. 그런 명령을 저 고귀하신 크레온 님께서 너와 나를 향해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내렸다고들 말하더라. 아직 그 명령을 모르는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제 곧 그분이 이리 오시겠지. 그리고 그분은 이 일을 가볍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것을 어긴 자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돌로 때려죽인다더라. 너도 이젠 알았지? 그러니 네가 높은 가문에 맞는지 아니면 천하게 태어났는지, 이제야말로 보여 줄 때가 됐다. 나와 함께 하겠니? 날 도와 주겠어? 나를 도와서 그 시체를 들어 내지 않겠어?

이스메네 : 장례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온 장안 사람들에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안티고네 : 내 오빠, 그리고 싫건 좋건 네 오빠가 아니냐? 아무도 내가 오빠에게 잘못했따고 말하진 않겠지.

이스메네 : 어떻게 감히 그렇게……. 크레온 왕이 금하고 있는데.

안티고네 : 그분에게는 권리를 내게서 떼어 놓을 권리는 없는 거야.

이스메네 : 글쎄 그래도 언니, 생각해 봐요. 우리 아버지는 지겹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스스로 죄를 들춰내고, 결국 당신 손으로 두 눈을 찔러서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리고 그분의 어머니면서 아내라는 두 이름을 가진 분은, 스스로 만든 고리로 목숨을 끊으셨죠. 그리고 이제 두 오빠는 같은 날, 무참하게도 동기간에 피를 흘리고 둘이 다 서로 죽이고 말았죠. 그리고는 이젠 우리 둘만 남았어. 그러니 언니, 우리가 만약 명령을 어겨서 왕의 법이나 권력을 손상시킨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경우보다도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하겠어요! 우린 약한 여자예요. 이건 잊지 마셔요. 남자와 싸우도록 타고나질 않았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에게 지배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쓰라린 명령에도 복종해야 해. 그러니 돌아간 분들에게도 용서를 빌고 아무래도 어쩔수 없는 일이니 나는 지배자에게 복종하겠어. 분수를 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안티고네 :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니, 이젠 네가 하겠다 해도 네 도움은 고맙지 않다. 너 좋을대로 하렴. 내 손으로 그분의 장례를 치르겠다. 그 일로 해서 내가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 고귀한 죄 때문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쉬련다. 살아 있는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을 섬기는 동안이 더 길단다. 나는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러나 신께서 숭고하게 세우신 법을 비웃고 싶거든, 실컷 비웃으려무나.

이스메네 : 비웃는 것이 아냐. 하지만 나를 상대로 해서 싸울 힘은 내게는 없어요.

안티고네 : 그건 너의 핑계야.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오빠 위에 흙을 덮어 드리겠다.

이스메네 : 그렇다면, 적어도 이 계획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해요.

안티고네 : 야, 말해도 좋아. 네가 세상에 떠들어 대지 않는다면 너를 더 미워하겠다.

이스메네 : 그 끔찍한 일로 언니 가슴은 타고 있어요.

안티고네 : 내가 가장 기쁘게 해야 할 일에서 나는 기쁨을 느낀다.

이스메네 : 성공만 한다면야, 하지만 안 될 일을 하려고 하거든. 하지만 안 될 일을 하려는 것은 억지예요.

안티고네 : 그따위 소릴 하면 나도 널 미워하게 되겠지만, 돌아가신 오빠에게서도 마땅히 미움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날 내버려 둬.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도 나 혼자만의 바보짓이야. 내 훌륭한 죽음을 뺏을 수 있는 벌은 없으니까

〈자료 6〉

(미국 ○○주의 형(刑) 선고 가이드라인)

범죄 수준 (몇 가지 예시적 범죄)		형(刑)의 범위				
9	모살(謀殺)*	종신형	종신형	종신형	종신형	종신형
8	살인(고의) 무장침입강도	96-144개월	108-162개월	120-180개월	144-216개월	204-206개월
7	무장강도(총기) 신체상해(고의)	60-90개월	68-102개월	84-126개월	108-162개월	160-240개월
6	살인(비고의) 무장강도(총기아님) 폭행구타(중한 상태)	40-60개월	45-67개월	50-75개월	60-90개월	80-120개월
5	비무장강도 절도(5만달러이상)	12-36개월	24-36개월	36-54개월	48-72개월	60-90개월
4	소매치기절도 폭행구타(보통 상해) 절도(1만달러~5만달러)	0-24개월	3-30개월	6-30개월	20-30개월	24-36개월
3	폭행 협박 절도(250달러~1만달러)	0-12개월	0-15개월	0-18개월	0-24개월	6-24개월
2	협박 250달러 이하의 절도	벌금	0-6개월	0-6개월	0-9개월	0-12개월
1	면허정지 후의 운전행위 풍기문란 소란 및 질서파괴행위	벌금	벌금	벌금	0-3개월	0-6개월
범죄 전력(前歷) 분류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전력	보통 전력	중대한 전력	심각한 또는 반복적 전력	중대한 반복적 전력

위 제시문에서 정의로운 사람이란, 자신의 덕(德)을 타인을 위해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덕(德)으로서의 정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의 개념을 〈자료1〉은 공리주의적 관점, 〈자료2〉는 도덕적(응보적) 관점, 〈자료3〉은 교환적 관점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의라는 주제를 유지한 채 〈자료4〉에서는 보스니아 내전에 관한 시사 자료, 〈자료5〉의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 〈자료6〉은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양형가이드라인과 연계하고 있다.

✍ 예제 확인

다음은 2008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 모의고사(인문계)의 제시문이다. 제시문을 읽고 주제를 파악한 후, 이를 중심으로 개별 제시문의 의미와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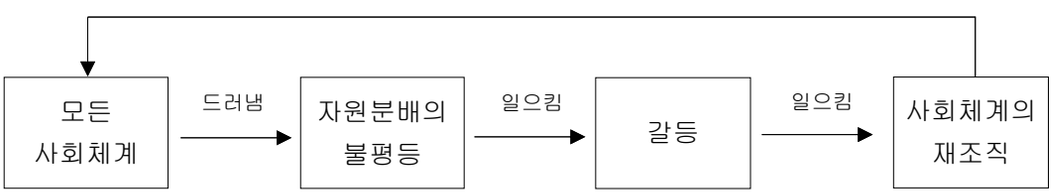
사회 불평등은 모든 유형의 인간 사회에서 존재한다. 심지어 재산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가장 단순한 원시 사회에서조차도 사회 구성원들 간에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으로 존재하였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근대 이후의 기본적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시기, 어느 사회에서나 왜 사회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일까? 한 사회에는 부, 권력, 위신 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 하는 자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들은 모든 사회 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자원이 개인 간이나 집단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 간에 수직적인 위계가 형성되고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 고등학교 '사화문화' 교과서에서

〈B〉

[도 표] 갈등이론의 전면적 인과상



위 표는 갈등에 대한 여러 이론가들의 분석을 종합한 것이다. 각 이론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조건 아래에서 불평등은 갈등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것이 또 상이한 조건들 아래에서 그 사회체계의 조직을 변동시킨다. 그림의 맨 위에 있는 피드백 화살표는, 체계의 재조직이 갈등의 발생과정을 다시 시작한다는 변증법적 가정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체계는 언제나 내재적 갈등 생성의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정되므로, 이 순환의 연쇄는 끝이 없다.

– J. H. 터너, 『사회학 이론의 구조』에서

〈C〉

대부분의 기능주의 사상가들에게 있어 사회는 서로 밀접히 조화하는 구조들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다루어진다. 인간에게 있어 신체 각 부위는 필수적으로 서로 조화하며 작동한다. 만약 신체 각 부위가 작동

하지 않는다면 그 유기체의 생명은 위험에 처하게 된다. 뒤르켐에 따르면, 이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사회가 계속해서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체적 제도들(예컨대 정치체계, 종교, 가족, 교육체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연속성은 협동—기본적 가치에 대한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일반적 합의 혹은 동의라고 차례차례 추정한다—에 의존한다.

갈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아주 다른 전망을 가진다. 그들의 주된 가정은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에 대한 설명을 하나의 보기로 사용해 보면 쉽게 윤곽이 그려진다. 현저한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이해관계의 분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갈등은 일정 시점에서 급진적 변동 과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계급간의 적극적 투쟁으로 발발한다. 이러한 관점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마르크스만큼 계급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다른 분화들 예컨대 인종 집단이나 정치 분파들 사이의 분화들이 갈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강조가 갈등집단에 주어지고 있으며, 사회는 본질적으로 긴장이 가득한 것으로 인식된다. 심지어 가장 안정적인 사회체계조차도 적대적 집단의 불안한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 앤터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에서

〈D〉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사항, 주거상태,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을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아래의 표들은 2004년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표 1〉은 전체 가구를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라 5개 계층으로 분류하여 각 계층의 평균 소득을 계산한 것이다. 또한 〈표 2〉는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5개 계층으로 분류하여 각 계층의 평균 부채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 3〉은 전체 가구 중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만을 골라 이들 가구를 소득에 따라 5개 계층으로 분류하여 각 계층의 평균 부채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표 1〉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연평균 가구소득

교육정도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소득(만원)	1,631	2,278	2,784	3,092	4,158

〈표 2〉 가구의 소득별 평균 가구부채

소득구간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부채(만원)	1,523	1,756	1,998	3,067	4,222

〈표 3〉 부채보유가구의 소득별 평균 가구부채

소득구간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부채(만원)	4,119	3,478	4,067	4,894	8,933

〈E〉

340여 년 간 지속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를 합리화한 가장 잔인한 인종 차별 정책이었다.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리는 인종 차별법은 전체 인구의 약 14%에 불과한 백인들이 주민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흑인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스포츠에서조차 배제시킴으로써 흑인의 민족성을 무력화하고 흑백 간의 인종 차별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인종 차별 정책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가들로부터 심각한 저항과 제재를 불러일으켰는데, 이 대열의 선봉에 서서 결국은 흑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만델라이다. 그는 1944년부터 아프리카 민족 회의에 참여하였고, 곧바로 흑인 해방 운동의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집권당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대항하다가 반역죄로 기소되어 두 차례에 걸쳐 체포되었다. 1960년에는 경찰의 발포로 비무장 군중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평화 시위 운동을 중단하고 무장 투쟁을 지도하다가 1962년에 다시 체포되었다.

그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비판적이던 국제 사회에서 만델라의 투쟁은 하나의 위대한 지향점으로 인식되었고 1990년 2월 석방 때까지 27여 년간을 복역하면서 그는 세계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윽고, 1992년 2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은 의회에서 인종 차별 정책의 완전한 폐지를 선언하였으며, 1994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이 참여하는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 총선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63%에 달하는 표를 얻어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정권이 들어섰으며,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제도적인 인종 차별의 철폐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정치적, 법적인 인종차별은 존재하지 않지만 아직도 사회 문화적으로는 불평등이 남아 있으며, 특히 소수의 백인들이 부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은 여전히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모든 종류의 부당한 차별을 일체 금지하는 평등 촉진 및 부당 차별 금지 법안을 제정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 남아 있는 인종 차별의 유산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고등학교 '인간사회와 환경' 교과서에서

〈F〉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 낙 원 구
>
> 주택 444,1-- 197x. 4. 10
>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김 불 이 귀하
> 제목: 재개발사업구역 및 고지대건물 철거 지시
>
>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 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x. 9.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
>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 철거 대상 건물 표시
>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 구조 건평 평 끝
>
> 낙 원 구 청 장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들어 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중략)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은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건 우리 집이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녜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공」에서

제시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다. 【제시문 A】는 자원배분의 불평등으로 사회적 위계와 사회 문제가 야기된다는 일반론을, 【제시문 B】는 불평등에 따른 갈등과 사회체계의 변화 과정을 도표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제시문 C】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전망이 나타나 있고, 【제시문 D】는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통계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제시문 E】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인종차별 정책이 철폐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체계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에 대한 확장이, 【제시문 F】는 경제적 불평등에 기인한 도시빈민의 힘겨운 삶의 양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기출 연습

다음은 각 대학별 논술고사 문항 가운데 제시문만 별도로 정리한 것이다. 각각의 제시문을 읽고 주제를 서술하시오.

1 2010학년도 인하대 수시 2-1 논술고사

〈가〉

삶에서 각자가 최대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도모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 자유가 허용되지 않거나 강조되지 않으면 인간의 지적 능력 발달과 그를 통한 도덕적 이상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까지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기 행동에 따르는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을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한, 다른 사람에게서 일체의 물리적·도덕적 방해를 받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유가 필요하다. 또한 인간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아는 진리란 대부분 반쪽짜리 진리일 뿐이다. 인간이 진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의견 일치라 할지라도 반대쪽 의견이 최대한 자유롭게 피력된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다양함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라는 사실은 개인의 의견 못지않게 행동 양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인간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의 존재가 유익하듯이, 삶의 실험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민 교육의 한 부분, 다시 말해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것, 즉 자유인들에 대한 정치 교육의 실천적 부분이라고 할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다.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가족 중심의 편협한 이해타산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공동의 이익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공동의 관심사를 다루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일, 곧 공공의 이익을 위해 또는 어느 정도 공공과 관계있는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고립시키기보다는 한데 묶을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습관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제해결

2 2010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2학기 논술고사

[가]

페르세스여,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여, 그대는 늘 내 충고를 명심하고 일하시라. 기아가 그대를 싫어하고 고운 화관을 쓴 정숙한 데메테르 여신이 그대를 사랑하여 그대의 곳간을 식량으로 가득 채우도록 말이오!

왜냐하면 기아는 게으름뱅이의 충실한 동반자이기 때문이오.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신들도 인간들도 싫어하는 법이오.

그는 빈둥빈둥 놀며 꿀벌들의 노고를 먹어치우는 침(針)이 없는 수벌들과 기질이 같소.

그대는 일을 사랑하되 시의(時宜)를 얻도록 하시라.

그러면 그대의 곳간들은 철철이 식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오.

사람들이 양떼를 많이 갖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일 덕택이오.

그리고 일하는 자는 불사신들께 훨씬 더 사랑스런 법이오.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그들은 게으름뱅이들을 싫어하니까요.)

일은 수치가 아니오. 일하지 않는 것이 수치요.

그대가 일하면 게으름뱅이는 곧 그대가 부자가 되는 것을 시기할 것이오.

하나 부에는 위엄과 명망이 따르는 법이오.

그대의 운수가 어떻든 간에 일한다는 것은 더 바람직한 것이오.

만약 그대가 그대의 어리석은 마음을 남의 재물로부터 일로 돌려 살림을 보살핀다면 말이오.

[나]

카알라일은 말했지!

'할 일을 얻은 사람은

또 다른 행복을 찾지 않는다' 고.

그러나 공장의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다네.

찰스 데바스는 말했지.

'많은 사람들은

기계의 핸들을 움직이고 있을 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독창성도 필요 없는

사물이 되고 말았어.

노동자들은

일을 하기 전이나 후나

전혀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네.'

[다]

농사짓는 기술이 정교해지면 차지한 농토가 적으면서도 곡식은 소출(所出)이 많으며, 노력이 덜 들면서도 잘 여물 것이다. 밭을 일구어서 갈고 씨뿌리고 김매고 낫질하고 벗기는 것으로부터 키질하고 방아 찧고 반죽하고 밥 짓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되어 노동력이 절감될 것이다. 베 짜는 기술이 정교해지면 투입되는 물자가 적으면서도 실이 많이 나오고, 작업을 빨리 하면서도 포백(布帛)은 올이 배고 결이 고울 것이다. 물에 담

가서 씻고 실을 뽑으며 베를 짜고 표백하는 일로부터 채색으로 물들이고 바느질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게 되어 노동력이 절감될 것이다. 병정(兵丁)의 기술이 정교해지면 공격하고 방어하며 식량을 운반하고 성벽 따위를 수축(修築)하는 모든 일이 속도가 빨라져 위태함을 면할 것이다. 의원(醫員)의 기술이 정교해지면 맥을 짚어서 증세를 살피고 약의 성질을 분별하여 사시(四時)의 기운을 살피는 모든 것이 옛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고 잘못된 점을 논박(論駁)할 수 있을 것이다. 온갖 공장이의 기술이 정교해지면 궁실(宮室)과 기용(器用)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성곽과 선박, 수레, 가마 따위의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두 편리하고 견고(堅固)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 방법을 다 알아서 힘껏 시행한다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백성을 잘살고 수(壽)하게 할 수 있을 터인데, 당장 익숙히 보면서도 도모하지 않는다. 수레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 나라는 산천이 험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하며, 양(羊)을 목축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있으면 "조선에는 양이 없다." 하며, 말은 죽을 쑤어 주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풍토(風土)가 각기 다르다." 하니, 이런 자들을 난들 또한 어찌하겠는가.

[라]

자공(子貢)이 초(楚)나라를 유람하다가 진(晉)나라로 돌아갈 때 한수(漢水)의 남쪽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한 노인을 만나니 그 노인은 바야흐로 밭이랑을 일구려고 굴을 파서 우물로 들어가 물동이를 안고 물을 퍼다 붓는다. 그런데 애써 힘들임이 심히 많으나 성과는 매우 적었다. 그래서 자공이 물었다. "여기 기계가 있는데 하루에 백 이랑에 물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임이 매우 적어도 효과는 큽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밭이랑을 일구던 노인이 자공을 쳐다보고 물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나무를 파서 기계를 만든 것인데 뒤쪽은 무겁고 앞쪽은 가벼워 물을 끌어 당기는 것이 물이 흐르듯 하고 빠르기가 넘치는 홍수 같습니다. 그 이름을 도르래라 합니다."

그 밭이랑을 일구던 노인이 버럭 성을 내다가 곧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우리 선생님께 들으니 기계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꾀를 부리는 일이 있게 되고, 꾀를 부리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꾀를 내는 마음이 생기며, 꾀를 내는 마음이 가슴속에 있으면 순백한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고, 순백한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신묘한 천성이 안정되지 않으며, 신묘한 천성이 안정되지 않으면 도가 깃들지 않는다 하시었네. 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네."

자공이 뻘겋게 부끄러워져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못했다.

[마]

현실적으로 실업자인 것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것은 없다. 사실 노동은 물질적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도 보

장한다. 노동을 통해서 개인은 재정적 독립과 사회적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개인 활동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그 결과 인격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러한 사회적 승인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통해 개인은 사회 속에 위치하며, 그 사회 속에서 자유로운 개인, 자립적 개인,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인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혼 여성들의 직업을 가지려는 성향, 퇴직한 사람들의 무위도식에서 벗어나려는 현상, 젊은이들의 첫 직장 구하기의 고통이 상징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노동은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의 고통을 덜어준다.

[바]

19세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노동이 점진적으로 분리되면서 그 경계가 뚜렷해졌다. 사업과 전문분야가 확대되면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직업이나 공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존재 의의가 규정된 반면, 여자들은 그러한 세계에서 멀어져 어머니 역할과 가사를 직업으로 삼게 되었다. 남성과 여성 세계의 이러한 분리는 종교적인 함의를 담고 있었다. 왜냐하면 장터는 위험하고 비도덕적인 공간이며, 이 영역에서 활동하는 남자들이 가정이라는 도덕적 세계와 부단히 접촉하지 않으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시장의 파괴적인 경향을 순화하는 역할을 가정에서 여자들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가정은 다정한 즐거움의 장소로서, 가정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느라 힘들고 고단한 남자들을 위한 안식처였다. 남성다움은 자기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고, 여성다움은 얼마나 의존적이 될 수 있는가를 의미했다. 여자가 만일 직업을 가지게 되면 여성의 고상함은 파괴되어 버린다고 생각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밥벌이를 하는 남편과 가정적인 아내와 아이들이라는 중간계급의 이상이 널리 확산되고, '주부'라는 새로운 범주가 도입되었다.

[사]

연지는 꽤 이름 있는 교양지 기자였다. 연지는 그 일에 보람도 느끼고 꽤 열심히 뛰고 있어서 인정도 받고 있는 모양이지만 경숙 여사는 그 직업이 연지를 선머슴같이 만드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경숙 여사가 연지의 직업에 흡족했던 건 딱 한 번 있었고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연지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 본 것이 그 잡지사였고, 여기자 공개 채용에 응모한 여대 졸업생은 자그마치 이백 명이 넘는다고 했다. 그 중 서류 심사에서 오십 명을 추려서 오십 명이 재차 필기 시험과 면접을 치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뽑는 데 연지가 뽑혔다. 이백 대 일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건 경숙 여사의 허영심에 대단한 만족감을 주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곤 못 배길 대사건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이백 대 일의 경쟁에 이긴 것을 삼 대 일의 대학 시험에 붙은 것만큼도 안 알아 줬고, 중매를 해 봐도 대학 졸업하고 고이 집에 들어앉아 있는 규수보다 여기자를 조금은 덜 쳐 주려는 낌새가 그녀를 놀라고 자존심 상하게 했다. 다달이 손에 쥐는 실소득도 이백 대 일의 경쟁을 뚫은 인재에 대한 대우로는 너무도 소홀한 것도 경숙 여사를 실망시켰다. 꼭 뭣에 교묘하게 기만당한 느낌이었다. 여자 직장이란 어차피 정거장같은 거, 머물러 봐야 몇 년이나 더 머물라구. 엄마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둘 딸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자위했었는데 약혼 날을 받아 놓고도 연지는 사표 낼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

[아]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조절하고 통제한다. 인간은 자연의 물질을 자신의 삶에 유익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팔, 다리, 머리, 손과 같은 자신의 신체기관을 움직인다. 이 움직임을 통해 그는 외부 자연에 작용하여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의 본성도 변화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에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실현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연의 힘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둔다. 우리는 여기서 동물 수준의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노동방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능적 노동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던 때와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된 때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다. 우리는 오직 인간의 특성을 가진 노동에만 주목하려고 한다. 거미도 방직공의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하며, 꿀벌의 벌집구조는 건축가들의 솜씨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서툰 건축가라 해도 숙련된 꿀벌보다 나은 면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가가 벌통 속의 벌집을 만들 경우 미리 자기 머릿속에 그 벌집을 그려보기 때문이다. 노동의 결과는 노동자의 상상 속에 관념적으로 이미 존재한다. 인간은 단지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한다. 바로 그 목적이 규범적으로 그의 행동양식을 규정하며, 그의 의지는 끊임없이 그 목적을 따라야 한다. 인간은 노동하는 동안 신체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긴장하면서 주의력을 발휘하여 그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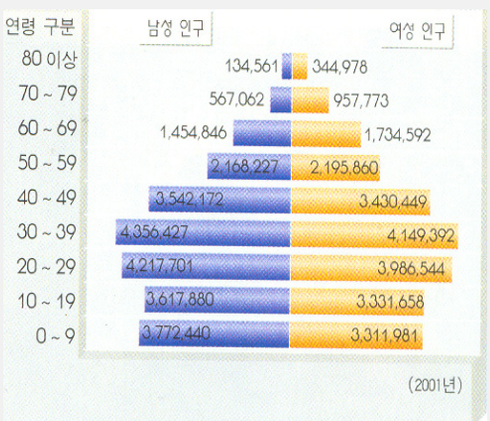
문제해결

✍ 원리 적용

다음 제시문을 읽고 주제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시오.

1

(가)



– 두산,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은 부부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 자녀가 혼인을 하면 대체로 독립하여 자신들만의 가정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가족도 형태상으로는 서구와 같이 핵가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은 이념상으로는 전통적인 특성을 여전히 뿌리 깊이 간직하고 있다. 현재의 가족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얻어 가계(家系), 즉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통계는 출산 순위에 따라 아들로 태어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과연 출산 순위에 따른 성비의 차이를 자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차이는 아들을 선택적으로 낳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신생아가 아들일지 딸일지는 확률적으로 거의 반반이다. 다른 한편, 남아 선호 사상의 문제는 단지 인구 구조상 성비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들을 선호하다 보면 과잉보호를 하게 되고, 남자 아이들을 의존적이며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아들이 없이 딸만으로도 만족하는 경향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그들에게는 아들을 낳아서 장차 가계를 계승하게 하든가, 자신들의 노후 생활을 자식들에게 의지한다는 식의 전통적인 관념을 찾아볼 수 없다.

또, 혼인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연상의 여성과 연하의 남자 간에 이루어지는 혼인도,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상대방이 이미 혼인하였던 경험이 있다는 점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늘

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만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친족 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현대의 도시 생활에서는 친족 간의 접촉 관계가 아버지 쪽의 친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아버지 쪽의 친족과 어머니 쪽의 친족들 사이에 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 교학사,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현대 사회에서는 점차 공동체적 가치가 약화되는 반면, 개인주의적 가치가 지배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진행은 공동체의 붕괴와 관련이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스의 개념을 빌리면, 공동 사회(gemeinshaft)가 붕괴되었고 그 자리에는 이익 사회(gesellshaft)가 들어선 것이다. 공동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깊이 있으며, 사람과 생활 모두를 포함한다. 반면에 이익 사회에서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간접적이고 인공적인 성격을 띠며, 생활의 일부분과만 관련을 맺는다. 이익 사회에서의 인간은 얼굴을 맞대고 개인적이며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가 함축된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고 익명적이며 매우 한정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하게 된다. 여기서는 상황이 변함에 따라 대인 관계가 달라지며 또한 그 관계는 일시적이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인간 관계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이것은 소외를 가져온다. 바로 이런 사회 변동 속에서 인간을 수단화하는 경향이 초래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현대 사회가 이익 추구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사회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상대를 만나면서 먼저 자신의 이익을 염두에 둔다. 동네 가게와 주민의 유대 관계에도 이해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만일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대부분의 인간 관계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이윤이 최상의 가치이며 사람들은 돈을 숭배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시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산다. 그런데 대도시 속의 사람들은 서로 낯설고 인간적 유대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모래알 같은 존재들이다. 이처럼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생활하다 보니 정서적 유대 없이 서로 무관심해지는 것이 대중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다.

이러한 대중 사회의 특성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익명성이 심화되고 건조한 인간 관계가 야기된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고, 설령 그들과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치거나 무미건조한 인사만 주고받을 뿐이다. 이처럼 주위 사람의 신상을 알지 못하고 서로에게 낯선 존재로 살아가는 상황을 두고 '익명성이 심화되었다'고 표현한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익명의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렇게 익명성이 심화되는 것 자체가 인간 소외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진학에듀, 『쓸거리 말할거리』

(라) 지금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급증과 생산 활동 인구(15~64세)의 감소는 사회 보장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뿐 아니라 생산과 소득의 감소, 조세와 사회 보장 수입 감소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물론이거니와 노인층도 중요한 인적자원 개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인 가구 및 고학력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생산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은 보수적이고 의사 결정 속도가 늦지만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고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노인층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노인층은 21세기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며 지식 근로자로 재정립돼야 한다.

한편, 현재 한국의 노인층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또 이들은 최대 연금 수혜자란 점에서 비교적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계층이며 노인 고학력자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노인들은 상당한 건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게 될 것이고 동시에 자식과의 동거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도 현재의 노인들 중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노인들은 전체 노인 인구 중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3/4의 노인들은 여가 선용을 위한 욕구가 가장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인 교육은 평생 교육의 차원에서 노인학교, 노인대학, 노인교실 등의 명칭으로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대학의 사회교육기관, 기타 민간단체에서 주로 노인들의 오락 및 레크레이션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욕구와 사회 현실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 된다.

– 김길룡, 「생산적 고령화 사회 준비해야」·박석돈, 「노인의 욕구 변화와 노인 교육」 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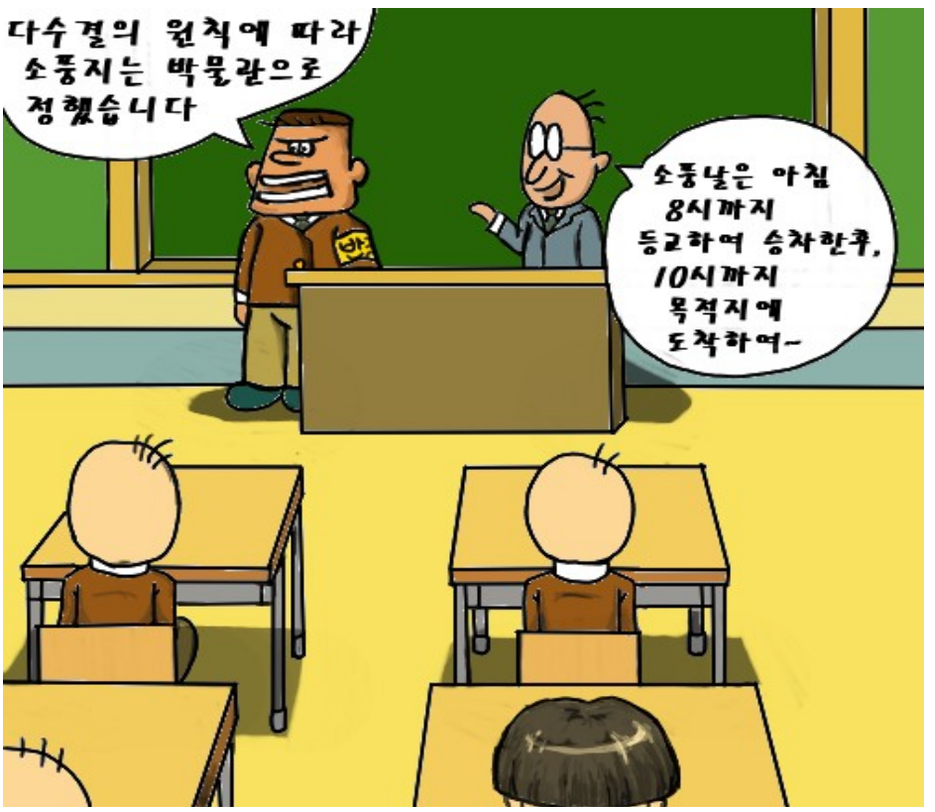
문제해결

4. 논제에 맞춰 개요를 작성한다

- 원리 접근
- 원리 이해
- 기출 연습
- 원리 적용

4. 논제에 맞춰 개요를 작성한다

✍ 원리 접근



위 삽화는 학급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소풍 장소에 대한 공고와 담임 선생님이 소풍 일정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 장면이다. 소풍 장소를 결정할 때는 개인의 의사가 아닌 다수의 의사를 수합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한 단체 행동이 이루어질 소풍날도 적절한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처럼 모든 일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논술문을 쓰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논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 과정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논제 분석이다. 출제자가 수험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출제자는 '요약하라' 고 했는데, '논술하라' 로 잘못 답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는 무엇을 묻는지 모르고 작성한 답안인 것이다.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면, 답안의 단락 구성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분석된 논제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읽어야 한다.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했다면, 제시문에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제시문 독해의 수준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논제들은 이 두 단계만 거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답안의 구성과 분량 등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개요 작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글에서의 개요란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면 설계도에 해당한다.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개요 없이 논술문을 작성할 수 없다. 개요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출제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그러나 개요 작성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요약형 논제나 비교, 자료 해석형 논제 등에 답하기 위해서는 개요를 간단하게 작성하면 된다. 분석된 논제를 바탕으로 첫 번째 단락에는 어떤 내용을 쓸 것이고, 다음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즉, 단락 구성 정도만 하면 된다. 하지만, 서술논술형 논제에서는 개요를 치밀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일 개요가 없다면 '가분수형 논술문' 이 되기 쉽다. 서론에 모든 내용을 다 쓰고는 본론과 결론에서는 중언부언을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서술논술형 논제에서 개요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제문과 논거를 마련해야 한다. 주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논제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 답안에서 결론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다음으로 그 주제에 대하여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논술문의 핵심은 타당한 근거 제시에 있다. 논술문이 글로써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근거가 보편타당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위와 같은 고민을 거쳐서 개요와 답안을 작성한다면 훌륭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원리 이해

> 대학별고사 중 하나인 논술은 같은 주제라도 대학마더 출제 경향이나 방법, 요구사항 등이 다르다. 따라서 독해가 아무리 완벽하게 이루어졌어도 논제의 요구 사항대로 글을 쓰지 않으면 결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논제는 출제자의 입장에서 수험생이 글을 써야 하는 방향과 과제를 안내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논제에서 요구하는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논제 분석이 중요한 것이다.

▣ 원리 1 : 논제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논제는 여러 요구 사항과 단락 구성의 실마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무엇을' ,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어떻게' 쓰라고 하는가는 아주 중요하다. 논제에서는 '요약하라' 고 했는데 논술문을 작성한다거나, '설명하라' 고 했는데 자신의 주관이 개입된 서술문을 쓰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논제에서의 '어떻게' 는 대체적으로 '요약하라' , '분석하라' , '비교하라' , '대조하라' , '설명하라' , '해설하라' , '서술하라' , '논술하라' 등이 있다. 따라서 평소 이런 요구사항의 글들을 많이 접해보거나 작성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요구사항 중에는 어떤 것을 '고려해서' 답하라는 부분이 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의 2008학년도 수시2학기 논술 문항이다. 이 논제는 한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2가지를 묻고 있다. 더욱이 첫 번째 물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두 번째 물음은 해결할 수 없다. 【제시문 2】의 논지는 '감정노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이다. 이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3】의 '도시 사무원의 직장 생활을 수도승의 고행에 빗대어 형상화한 시'를 해설해야 하는 것이다. 이 2가지 물음의 답안에는 일정 정도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만일 '이것을 참고하여'라는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수험생 본인이 느끼는 대로 【제시문 3】를 해설하면 되지만, 이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제시문 3】의 해설하는데 수험생의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논제를 분석할 때에는 '무엇을(What)', '어떻게(How)' 쓰라고 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요구사항(Requirement)'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찾아내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의 답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논제 : 제시문 (2)의 논지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3)을 해설하시오.700자(±50자)

(2)

최근에 은행업, 보험업, 관광업 및 레저 산업과 같은 서비스 분야의 직업이 증가함에 따라 '감정노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수도 현저히 늘고 있다. 그런데 감정노동은 특정한 범주의 직업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공적 · 사적 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가정과 직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동반한 쇼핑은 아이들 때문에 심하게 부대끼는 부모들에게 종종 감정노동을 단련할 기회가 된다. 부모들은 계산대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기보다는 억지 미소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및 병자를 돌보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포함한 사회관계 속에서 노동을 한다. 그들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그 직업에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얼굴 표정과 육체적 표현을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관리한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임무는 고객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 속에서 그들은 고객들에게 짜증을 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표면 연기는 이 딜레마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식이다. 그러나 표면 연기가 위선적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노련한 직업인들은 표면 연기 대신 내면 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은 무례하고 공격적인 환자를 다룰 때 그 환자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내려고 애쓰고, 화를 내기보다는 스스로 미안한 감정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그런 대처 방식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한 자기감정으로부터 유리되는 현상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직업이 몸에 가하는 스트레스는 특정한 감정과 육체적 상태를 요구하는 업무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자신의 행위가 자아 개념과 모순된다고 인식될 때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진다.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면서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우선적으로 부응해야 할 때 몸은 견딜 수 있는 이상으로 가해지는 긴장에 대해 무의식적인 저항을 드러낼 수 있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에게 기대하는 감정노동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3)

사무원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의자 고행을 했다고 한다.
제일 먼저 출근하여 제일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상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여간해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도 의자에 단단히 붙박여
보리밥과 김치가 든 도시락으로 공양을 마쳤다고 한다.
그가 화장실 가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사람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의 다리는 의자가 직립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는 하루종일 損益管理臺帳經손익관리대장경과 資金收支心經자금수지심경 속의 숫자를 읊으며
철저히 고행업무 속에만 은둔하였다고 한다.
종소리 북소리 목탁소리로 전화벨이 울리면
수화기에다 자금현황 매출원가 영업이익 재고자산 부실채권 등등을
청아하고 구성지게 염불했다고 한다.
끝없는 수행정진으로 머리는 점점 빠지고 배는 부풀고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 비해 팔다리는 턱없이 가늘어졌으며
오랜 음지의 수행으로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매일 상사에게 굽실굽실 108배를 올렸다고 한다.
수행에 너무 지극하게 정진한 나머지
전화를 걸다가 전화기 버튼 대신 계산기를 누르기도 했으며
귀가하다가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권 대신 열쇠를 밀어 넣었다고도 한다.
이미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사고를 대신할 만큼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30년간의 長座不立장좌불립'이라고 불렀다 한다.

그리 부르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치 않고 묵언으로 일관했으며
다만 혹독하다면 혹독할 이 수행을
외부압력에 의해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나마 지금껏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의 통장으로는 매달 적은 대로 시주가 들어왔고
시주는 채워지기 무섭게 속가의 살림에 흔적없이 스며들었으나
혹시 남는지 역시 모자라는지 한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의자 고행에만 더욱 용맹정진했다고 한다.
그의 책상 아래에는 여전히 다리가 여섯이었고
둘은 그의 다리 넷은 의자다리였지만
어느 둘이 그의 다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제시문 (2)의 논지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3)을 해설하시오.(700자±50)	
논제분석	
what	how
–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요구사항(Requirement) – 제시문 (2)의 논지를 잣대로 제시문 (3)을 해설하라. – 700자±50자로 써라.	

▣ 원리 2 : 논제에 맞춰 논술문의 내용과 단락을 구상한다.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하면 답안에 써야 할 내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답안의 단락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성균관대의 2009학년도 모의논술 문항으로 요약형 논제이다.

> 아래 4개의 제시문들은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관한 상이한 입장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요약형 논제를 출제하는 이유는 분석력과 이해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시문을 제대로 읽었느냐를 측정하는 것이다. 요약 문제는 수험생들이 쉽게 접근하지만, 답안 작성에 오류가 많은 문제이기도 하다. 수험생들이 평소에 '요약하라'를 '줄거리를 정리하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논술 문제의 유의 사항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을 주문하는 경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제, 논지, 논거'를 찾아서 자신의 어휘력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평소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주제, 논지, 논거'를 찾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용어로 요약하는 훈련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이런 논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제는 형벌의 의의와 목적이 응징을 위한 것인지 예방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주장하는 4개의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핵심 내용 즉, 논지를 요약하라는 논제이다. 4개의 제시문은 각각 2개씩 입장이 대비되며, 이중 2개의 제시문은 각 입장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논의와 연관되고, 나머지 2개는 그것들의 구체적 현상에 관한 것이다. 【제시문 1】과 【제시문 2】는 형벌의 의의 또는 목적에 관한 상이한 입장들을 원리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제시문 3】과 【제시문 4】에서는 구체적인 형벌인 태형과 사형을 언급하면서 그 입장들을 암시 혹은 명시하고 있다. 【제시문 1】은 형벌의 의의가 정의 실현 차원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응보(응분의 대가를 보상함)에 있다는 원리적 입장이다. 【제시문 2】는 형벌의 목적이 시민에 대한 권리 침해로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는 원리적 입장이다. 【제시문 3】은 가혹한 형벌로서 태형이 형벌의 진정한 목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지니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응징에 불과할 뿐, 새로운 폭력을 낳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제시문 2】와 같이 예방주의 입장에 속한다. 【제시문 4】는 형벌로서 사형 제도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그 제도가 인명의 살상이라는 최악의 범죄에 대한 유일한 속죄 방식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제시문 1】과 같이 응보주의 입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요약을 하는데 있어서 제시문의 주요 문장들을 있는 그대로 발췌하기 보다는 각 입장을 대변하는 키워드(정의 실현, 권리 침해, 자유 보장, 보복, 생명)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논지를 기술하는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원리와 사례라는 관계로 제시문들을 상호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지적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논제 분석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답안이 단락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제는 두 입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라고 했기 때문에 단락은 최소 2단락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먼저 네 제시문의 공통 주제와 그 주제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언급해야 한다. 이어서 상이한 입장에 대한 제시문의 분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분류된 제시문들의 연관관계를 밝힐 수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다음으로 두 입장에 대한 논지를 요약하면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공통 주제와 그 주제에 대한 상이한 입장, 제시문 분류까지 포함시키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에서 각 입장에 대한 논지 요약으로 구성하면 무난하게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논제] 아래 4개의 제시문들은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관한 상이한 입장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1) 법관의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건 시민사회를 위해서건 어떤 다른 선(善)을 조장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일 수 없다. 도리어 그것은 언제나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과하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형벌은 일종의 정언명령*이다. 공리론이 형벌관념 속에 뱀처럼 기어들어와 형벌이 약속해 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통해 이 정언명령을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마치 '전체 백성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한 바리새인의 말에 따라 그 정도를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경계하고 방어할지어다! 왜냐하면 정의가 몰락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그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해체된다 하더라도(예컨대 한 섬에 사는 백성들이 그 섬을 해체하고 다른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결의한 경우처럼) 감옥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의 살인자만은 미리 처형하고 나와야 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범행이 어떤 값을 치루어야 할까를 경험하게 되고, 이 처형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흘린 죄가 전체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처형을 하지 않은 백성도 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에의 동참자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언명령: 무조건적 명령

(2) 국가의 목적은 모든 시민 상호간의 자유보장, 다시 말해 각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달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권리 침해는 시민 공동체의 본질적 목적과 모순되며, 그 때문에 국가 내에서 어떠한 권리 침해도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그 목적에 따른 필연적인 요청이다. 그 결과 국가의 임무는 그러한 침해를 완전히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는 데 있다. 〈중략〉
국가의 인간의 그러한 욕구 능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만 하며, 그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어떤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이 선호하는 일정한 쾌락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자신의 본능에 반하는 것으로서의 불쾌

나 고통으로부터는 달아나려는 존재이다. 그 때문에 인간은 더 큰 쾌락을 얻을 수 있을 때에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쾌락을 거부하며, 그 큰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약한 불쾌는 감수한다.....따라서 일정한 행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겪게 될 불쾌보다 그 욕구를 충족시킬 때, 즉 법을 위반했을 때 뒤따르는 해악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모든 시민들이 확실히 인식한다면, 범법 행위는 저질러지지 않을 것이다.

(3) 영국의 경우, 특별히 가증스럽다고 여겨지는 범죄가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을 때는 태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여자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벌어오는 소득으로 살아가거나 여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태형을 명하는 판사들은 판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뚜렷한 만족감을 과시한다. 그들은 그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잔인한 본능의 배출일 뿐이다.
최근에 런던 《타임스 The Times》지에 한 성직자가 보내온 편지가 실렸는데,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교도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이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 몹시 유감스러워하는 내용이었다. 이 훌륭한 기독교 목사는 자신이 '피에 굶주렸거나 특별히 앙심이 싶은'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공언한 다음 이렇게 주장한다. "타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자기행위의 결과를 철저히 감수해야 한다."
범죄에 대해 분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가혹한 처벌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든다. 그러나 벌을 가하는 사람들에게 쾌감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범죄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다 과학적인 태도가 바람직하다. 모든 폭력과 잔인성은 그 답례로 다시 폭력과 잔인성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직접 보복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가혹하고 잔인한 형태로 말이다. 맹목적인 분노 상태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바람직하게 다룰 수 없다. 육체적 형벌을 지지하는 모든 주장들이 과학적 이해가 아니라 분노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인간이 보다 과학적으로 변하면 그런 야만적인 관행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4) 그들이 앗아간 것은 피해자의 목숨만이 아니다. 피해자는 탁월한 과학자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천부적인 예술가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위대한 정치인일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어쨌든 누군가는 될 수 있었다. 피해자에게는 인생이 있었을 테니까. 그 가능성을 빼앗긴 것이다. 피해자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빼앗긴 것은 바로 삶이다. 피해자만이 삶을 빼앗긴 것은 아니다. 유족들은 그날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살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지 못한 회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해자의 친지들, 친구들, 동료들 또한 깊은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된다. 어디 그뿐이랴. 사회는 어떤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 함부로 다니지도 못한다. 사회 전체에 평화도 믿음도 자유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야만이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우리들이 과연 그들과 이 땅에서 한 하늘을 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이 세 끼 밥을 먹고 잠을 잘 곳이 있다

는 사실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을까.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사회로 돌아와 우리와 같이 거리를 활보하고 우리와 마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을까. 또 언젠가는 그들이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고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을 우리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지 않고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까.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우지 않고서 그들을 기억 밖으로 쫓아버릴 수 있을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그들이 자신의 생명 말고 무엇으로 속죄할 수 있을까. 죽였으니 죽어야 하고, 죽어야 하니 죽이는 것이 불가피한 것 아닐까.

논제 : 아래 4개의 제시문들은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관한 상이한 입장을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논제분석	
what	how
– 네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
– 각 입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고려사항(option)
–

▣ 원리 3 : 논거는 제시문에서 찾아야 한다.

주로 단일 논제로 구성된 고전논술에서는 1,500자 내외의 장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지식이 글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여러 개의 논제로 구성된 통합논술은 600자 내외의 단문으로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배경지식을 발휘할 만큼 여백이 충분하지 않다. 물론 다양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제시문을 읽고 분석하거나 논술문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다양한 독서로 배경지식을 풍부하게 갖추는 것이 논술문 작성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통합논술은 독해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시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논거로 활용하면 훌륭한 답안이 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쓰는 것은 오히려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로 변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인하대의 2010학년도 모의논술 문항 3번이다.

(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의 〈조건〉에 맞게 논술하시오.(800±80자)

단순한 논제같지만, 요구사항이 무척 까다로운 논제이다. 별도의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맞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논제이다. (나)의 상황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위한 국무회의 내용을 가상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각 부처별로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국내 총생산의 성장률 둔화, 정부의 재정 부담 가중, 젊은 층의 이민 증대,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등)

조건에서는 먼저 (가)에 나타난 정부의 대책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내용은 몇몇 시민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일 뿐이지 정부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가)에서 말하는 정부 정책은 출산보조금 지급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 대책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다만, 출산장려포럼 대표는 20대 청년인구의 결혼과 출산을 앞당기는데 초점을 둔 정책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논제의 조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정부의 대책은 '출산보조금 지급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 대책' 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출산보조금' 이 아니라 '일시적인 대책'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정부의 대책은 '일시적인 대책' 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근본적 대책' 이 되어야 한다고 답안을 서술하는 것이 좋겠다.

또 다른 조건이 (다) ~ (마)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다. 따라서 복지, 교육, 여성 문제 중에서 수험생 본인이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셋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논리적인 논거를 제대로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요구사항에 충

실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을 분석할 때, 자신의 용어로 정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단락 구성 역시 두 가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단락도 최소 두 단락이 되어야 한다. 하나는 정부의 대책(출산보조금 지급과 같은 일시적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서술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험생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마) 중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서술하면 된다. 이 부분을 두 단락으로 구성해도 무방하겠다.

[문항 3](4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명의 역사에서 스스로 출산율을 낮추는 생물은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특히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속도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 인구 비율이 7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프랑스가 156년, 영국이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이 36년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26년에 불과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몇몇 시민 단체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출산장려 포럼은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이날 포럼에서 출산장려포럼 박흥보 위원장은 고령화는 자연스러운 추세이지만, 저출산 현상은 매우 문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0대 청년인구의 결혼과 출산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포럼에서 "최근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불과 10년 뒤부터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로 경제성장 추진력이 떨어지고 고령사회 심화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앞서 언급한 정책들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한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시민들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보조금 지급과 같은 일시적인 지원 대책이나 처방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쪽에 입을 모았다. 특히 문제의 당사자들인 청년층은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등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 모두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일자리가 없어요. 직장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에게 지금의 저보다 나은 삶이 보장되지 않는 한 아이는 낳지 않을 거예요."

"일하고 싶은데 아이를 맡길 육아시설이 마땅치 않아요. 제가 기껏 벌어봤자 아이 육아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어요."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얻게 하려면 결국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학원에 들어가는 사교육비를 저희 처지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과 일치하는 주장들이 다양하게 개진되어, 향후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들이 제시되었다. 포럼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결국 사회 전반의 제도와 가치관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감되었다.

(나) 다음은 지금으로부터 13년 후인 2022년의 상황을 예측하여 꾸민 가상 뉴스이다.

2022년,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구 성장률이 드디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00%, 사망률은 0.93%를 기록하여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0.07%에 그쳤고, 해외 이민 등과 같은 인구의 사회적 감소로 인구 성장률이 −0.01%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 날 열린 가상 국무회의 현장이다.

사　회 : 2001년 1.4명꼴이던 가임여성 한 명의 평균 출산 자녀수가 0.42명으로 낮아져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각 부처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 :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산부 : 출산보조금 지급이 누적되어 정부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 무거운 세금과 연금 부담으로 인해 젊은 층의 이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들로 채워 왔는데 그마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으로 입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해외 이민을 택하는 자의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다) 모든 사람은 지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사회가 평등하지 못하다면 기술 개발과 문화 발달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같이 사는 이웃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불리한 입장에 빠지는 것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사회 제도의 잘못 때문인 경우가 많고, 한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봄으로써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손해를 볼 때가 많다.

그러므로 고소득층이 사회적 약자의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에 대한 자선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사회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놓인 사람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회는 안정적인 사회로 발전한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사회의 안정, 살만한 사회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 사회가 이러

한 복지의 개념을 실현하고 있을 때 각 개인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 보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라) 한국은 헌법 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권적 해석에 의거하여 이해하지 않으면 '균등'의 실현은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다만 교육을 받는 기회와 교육을 받은 결과에 대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학력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 기회의 균등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더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입시제도로 진학이 좌절되거나,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저해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매우 다양하다. 하나는 여성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그 사회의 경제 상황의 기복과 맞물려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경제상황이 호황의 국면에 접어들어 많은 일자리가 있을 때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강조되고, 일자리가 줄어들 때에는 가정의 수호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강조된다.

사실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정작 손해를 보는 것은 여성이다. 여성은 호황일 때에는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가정에서의 역할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불황일 때에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도 먼저 생산 활동에서 배제됨으로써 다른 의미의 고통을 겪게 된다. 여성이 출산과 양육 등의 가정에서의 역할이든, 생산 활동에 당당히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에서의 역할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 (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의 〈조건〉에 맞게 논술하시오. (800±80자) [40점]

〈조건〉

1. (가)에 나타난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
2. (다)–(마)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근거를 들어 논술할 것.
3. 〈조건 1〉과 〈조건 2〉의 답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할 것.

논제 1 : (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의 〈조건〉에 맞게 논술하시오.(800자±80자, 40점)

〈조건〉

1. (가)에 나타난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
2. (다)~(마)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근거를 들어 논술할 것.
3. 〈조건 1〉과 〈조건 2〉의 답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글이 되도록 할 것.

논제분석	
what	how
– (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하라.
고려사항(option) – 별도의 조건에 맞게 논술하라. – 800자±80자로 답하라.	

✍ 기출 연습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논제에 맞게 개요를 작성해 보도록 하자.

〈이화여대 2008학년도 수시2학기 논술 문항 7〉

[논제] 아래의 '성찰적 물 운동'의 관점에서 [가], [나], [다]의 '물'에 대한 인식을 활용하여 [라]의 '물-문화경관' 개념을 비판하시오.

> 경제성장에 따라 여가 수요가 커지면서 수상 레저 산업이 발달하였으나, 근대적 삶의 편리함과 즐거움의 뒤에는 자연의 파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 보존을 깊이 생각하는 '성찰적 물 운동'이 관심을 끌게 되었다.

[가]

우리 조상들은 물을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지니고 있는 것일까? 새벽이 열리는 시각에서부터 우리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즉, 미명(未明)이라 불리는 그 시각에 우리네 조상들은, 그 한 어머님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 그 시각을 우리는 존재가 비롯하는 때라고 불러도 좋다. 새벽은 그러한 때이다. 그 물은 그렇게 새벽을, '처음'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처음은 맑음 그대로의 '순수'이다. 새벽 샘물은 그 순수를 담고 있었다. 바위틈에서, 혹은 땅의 깊은 바닥에서, 휘저은 탁함이 아직 거기에는 없는 그 시각에 물은 그렇게 솟아 그렇게 맑다. 존재하는 처음 모습이 그럴 것임에 틀림없다. 온갖 것의 처음은 바로 그랬으리라. 새벽 샘물에 담긴 가장 맑음의 순수, 그것은 그대로 존재의 모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물은 '있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정갈한 그릇에 떠 담아 삶이 번거롭지 않은 아득한 뒤뜰, 장독대 위에나 나무 아래 있는 낮은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렇게 물을 떠 모시는 것으로도 삶의 온갖 일그러진 물음들을 고이 풀어 다듬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새벽이 오면 우리네 어머니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서 삶을 곱게 다듬어 갔다. 물은 그렇게 있었다. 삶이 구겨지고 사정이 급하고 초조하면 거기에서 온갖 사연을 아뢰는 비손을 하기도 했다. 악귀를 물리쳐 달라고 애원을 하기도 했고, 병든 자식을 위한 치병의 기원도 그렇게 맑은 처음의 물 앞에서 했다. 태초의 맑음 속에 담긴 신과의 교류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는지 모른다. 천지신명이 거기 그 물에 모두 고여 있어 비손하는 간절함이 가서 닿지 못할 힘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사실 묘사일는지도 모른다. 이런 저런 까닭으로 결손이라 여겨지는 일그러진 삶을 되살려지이다 하는 기원이 거기 있었고, 예측할 수 없는 귀한 혈육의 장래가 풍요롭기를 비는 기대가 또한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또한 거기 있었다.

[나]
수도꼭지 끝의 내 목마름은
나뭇잎 끝의 멍한 물방울에 닿아 있다

水草(수초)들 털에 걸린 양떼구름을
집단으로 습격하는 물고기떼

살아 있는 것들의 더러움을
자기 몸으로 걸르고 걸러

내 목마름을 통과하는 강은
쓰라린 遠距離(원거리)를 흘러간다

[다]
세례는 예수가 받았던 것처럼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방식이 가장 좋은 것으로 믿어졌다. 초창기 세례는 옥외에서 행해졌다. 요단강까지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의 강, 호수, 바다 등에서 세례를 했다. 그러나 옥외에서 하는 세례는 불편했고 특히 기독교 박해기 때에는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는 곧 실내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가정교회에서 했다. 당시 로마의 도무스에는 마당에 분수나 우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요단강을 대신했다. 분수나 우물이 없을 경우에는 실내에 세례용 목욕탕을 별도로 만들었다. 세례를 통해 예수의 죽음을 공유한다는 상징성은 세례당의 기본성격을 무덤공간으로 정의하는 배경이 되었다. 세례당은 동시대 로마의 무덤 유형인 중앙집중형 구성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무덤 교회와 동일한 유형이 되었다. 또한 세례를 통해 예수의 부활을 공유한다는 상징성은 세례당에 팔각형이 특히 많이 쓰이는 배경이 되었다. 세례당은 팔각형 공간 윤곽 위에 돔으로 천장이 마감되는 구성을 표준형으로 가졌다. '8'이라는 숫자는 기독교에서 두 가지 상징성을 가진다. 하나는 천지창조가 끝나고 이 세상이 시작된 날이 여덟 번째 날이었다는 의미에서 재생을 상징한다. 다른 하나는 첫 번째 창조인 천지창조에 이은 두 번째의 새로운 창조의 의미로 부활을 상징한다.

[라]
자연 속에서의 물이 진경산수화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한강변이 되거나,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물의 도시 베니스의 경관으로 인식되기까지는 인간의 손길을 거치는 과정, 즉 물의 인공적 처리라는 과정이 있게 마련이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그대로의 자연 풍광이지만, 거대한 운하를 파고 도시를 건설하며, 아름다운 다리를 놓고 거기에다 항상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공원에 분수를 조성하면 그 때는 이미 조용한 강물이 아닌, 그 장소 그 도시의 혼이 담긴, 그러니까 그 시대 그 민족의 독특한 문화적 경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 우리는 그러한 경관을 문화경관이라고 말하고 단순한 자연의 풍치보다는 훨씬 더 값진 독자성이 있는 경관으로 간주한다.
세조의 재상 한명회가 노닐던 압구정 일대를 그린 겸제 정선의 진경산수화에는 당시의 남산, 삼각산, 압구정 포구의 뱃놀이 등, 강변에 노니는 백구와 간간이 보이는 정자와 별서들뿐이어서

그야말로 당시의 멋들어진 한강변의 경관을 여실히 보이고 있으니, 오늘날에 보는 거대한 아파트군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해서 그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 이토록 나쁘게 바뀌어버렸는가 하는, 자탄의 심정을 금할 수가 없을 만큼 경관이 변화했다.

현대는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개인적 취향으로 자연을 끌어들이는 정원생활이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집합적인 생활 방식으로서 물이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는, 즉 공공의 의미가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 말하자면 연못보다는 하천경관으로, 자연풍치보다는 특이한 도시경관으로, 그리고 자연적인 형상보다는 계획과 인공적인 조작 결과로서 물의 경관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의 경관이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 것은 극히 최근에 와서의 일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도시에서의 하천은 하천개수나 치수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도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도시경관 자원으로 보는 시각과는 거리가 있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하천에 대한 인식은 좀 더 시민이 접근하기 쉽고 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것인가로 변화되고 있다. 도시의 경관을 독자성이 있는 문화자산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물에 대한 의식, 나아가 경관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경관이라는 대상이 하나의 중요한 경관자원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비로소 우리의 문화경관은 다른 나라와 비견되고 상대적인 독자성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

아래의 '성찰적 물 운동'의 관점에서 [가], [나], [다]의 '물'에 대한 인식을 활용하여 [라]의 '물-문화경관' 개념을 비판하시오.(15점)	
논제분석	
what	how

요구사항(Requirementn)

–

✍ 원리 적용

논제에 맞게 개요를 작성해 보도록 하자.

(가)

사람들은 지식인의 본분이란 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관리인"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도, 자기의 직분과 역할을 오해한 나머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으며 또한 끊임없이 권력과 충돌하면서 자기 나라 역사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았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그들은 "만사의 염탐"을 잘못 판단했는데 이것이 대수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시기에 처할 적마다 그들이 민중을 오도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민중을 오도한다고! 이것은 말하자면 민중이 스스로의 이익에 등을 돌리도록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한 나라 안에서 지식인들도 그 나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사람들은 지식인의 행위와 직능의 테두리가 문화적 보수주의라고 생각하며, 지식인들이 이 테두리를 넘어섰다고 생각되기만 하면 즉시 쓸데없는 헛수고를 한다고 비난하는데 사실 이 비난은 옳은 것이다. 생각해 보라. 지식인들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 더욱이 그들은 본질적으로 무력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전혀 "생산"하지 않으며, 기껏 봉급에 의존하여 먹고 사는데, 그 때문에 지식인들은 정치사회에서는 물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박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힘도 없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들이다. 경제적 힘도, 사회적 힘도 가지지 못한 그들은 자기들 자신이 만사를 판단하도록 부름 받은 엘리트라고 자처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거기에서 그들의 도덕주의와 이상주의가 비롯되는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이 앞으로 다가올 먼 미래를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지금 이 시대를 미래라고 하는 극히 추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

거기에 또 지식인의 "독단주의"가 운위된다. 그들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신성불가침의 절대적 원칙, 그러나 매우 추상적인 원칙을 들먹거린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란 물론 마르크시즘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비난은 다시 한 번 모순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마르크시즘은 기본적으로 도덕주의와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인들 자체에 이 모순이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별달리 거북스럽게 여기지는 않는다.

어쨌든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현실주의를 지식인들에게 보여주려 할 것이다. 지식인들이 자기들의 기능, 자기들의 존재이유를 저버리고 "끝없이 부정하려는 정신"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동안 일본에서건 프랑스에서건 정치인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가를 조용히 재건함으로써 분별 있는 경험주의—서구 세계의 전통과, 어떤 경우에는 서구 세계의 새로운 경험(또한 이론)과 정확히 연결된—를 증거해 주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식인을 비판하는 태도는 일본보다도 유럽의 경우가 훨씬 가혹하다. 일본에서는 지식인을 일종의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며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이 필요하며, 어떤 지식인들은 항상 위험인물로 남아 있겠지만 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배제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태도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지식인들의 몰락이 이야기되고 있다. 미국식 사고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는 체하는 이들 지식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의 진보는 결국 이 보편주의자들을 극도로 전문화된 여러 집단의 연구자들로 대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자체의 모순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비판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 그것은 이 모든 비판 석에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근본적인 비난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비난이란 "지식인이란 자기와 관계없는 일에 참견하려 드는 작자"이며 사람들이 옳다고 받아들인

진리와 그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행위 전체를, 인간과 사회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사회가 발전돼 나가고 그에 따라 생활양식과 사회적 기능 및 구체적인 문제점들의 고도한 다양화가 그 특징이 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때문에 추상적이고 그릇된 개념인데도—을 내세워 부정하려 드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 장 폴 사르트르, 『지식인을 위한 변명』

(나)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王宮)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越南)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십 원을 받으러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情緖)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제십사(第十四) 야전병원(野戰病院)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 서 있다 절정(絕頂)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이십 원 때문에 십 원 때문에 일 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일 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 김수영, 『어느 날 고궁(古宮)을 나오면서』
*너어스 : (영) nurse. 간호사.

(다)
선비란 전시대적 성격이 짙기는 했으나 한편 오늘의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미점이 없지도 않다. 비민중적이며 세속에 어둡고 공리공론(公理空論)을 일삼는 관념적 인간이라고는 하지만 때로 그들은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용기를 대의를 위해 발휘하기도 했다. 직언(直言)을 하면 왕의 노여움을 사 목이 달아나는 것이 뻔한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태연히 간언(諫言)을 서슴지 않기도 했고, 나라가 위태로우면 관군(官軍)이 무색하게 의병을 일으켜 외적과 싸우는 등 충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옳은 일을 위해선 서거정(徐居正)의 말대로 "벼락이 떨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서슴지 않는" 대쪽 같은 절개를 보이기도 했다.
'사색당쟁(四色黨爭)'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옛 선비에 변절이란 도시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아들 손자대까지 그들은 일편단심 변할 줄을 몰랐다.
매천(梅泉)같이 초야(草野)의 일개 무명 선비조차 망국(亡國)을 보다 못해 순국(殉國)을 했다. 선비로서 의병대장 또는 순국열사로 길이 청사에 빛날 인물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오늘날 선비 예찬론이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의 그 굳은 지조, 순국의 애국 사상, 안빈 도락(安貧道樂)하는 생활 태도 때문이 아닐까 한다. 긍정적 면에서 선비의 좋은 점을 오늘의 시대에 되살려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에게는 '선비'의 전통이 거의 남은 것이 없다. 일본의 무사도, 유럽의 기사도는 근대에까지 무엇인가 전통을 남겼고 현대 사회에 긍정적으로 일부 계승된 족적이 남아 있으나, 우리에게는 '선비'의 전통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선 그들의 전근대적 성격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선비에게는 세속적 면, 가령 경제 활동에 너무나도 무능했다. 경제 활동을 극도로 천시했으므로 더욱이 일제(日帝)의 식민지 치하에서 살아남을 능력이 없어 의를 지킨 '선비'일수록 경제적 낙오자가 되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비민중성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식민지 치하의 우리 민족의 항일 투쟁엔 민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선비'는 그들의 생리로 보아 3·1운동 이후의 민중적 차원의 항일 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김창숙(金昌淑) 등 일부 유생(儒生)의 대쪽같이 곧은 절개는 남아 있었으나 거의가 개인적 순절에 불과했고, 역사적 항일조류에서는 사실상 소외되었다.

– 송건호, 『선비정신』

(라)

우리의 현실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다. 인간은 법률적으로는 평등하게 태어났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불평등한 사회의 영향을 받아 불평등한 상태로 태어난다. 그리고 전 생애에 걸쳐 불평등한 사회의 각종 병폐들을 차별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그리하여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차별적 경험만큼 건강도 차별적 영향을 받게 되어 건강의 불평등이 양산된다.

우리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났느냐'이다. 돈 있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와 돈 없고,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미래는 극명하게 갈린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의 건강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태아기와 영유아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삶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개입은 논리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중략……

이러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적 현상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정신과 신체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병원성 세균이 우리 신체로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듯이 우리 몸의 신경면역체계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술과 담배, 약물 복용 등 나쁜 건강 행태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각종 질병들과 상해를 일으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건강의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 윤태호, 『날 때부터 불평등한 사람들의 나라』(『프레시안』, 2009.6.2.)

논제 1. 제시문 (가)의 핵심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논제 2. 제시문 (나)의 '화자' 와 제시문 (다)의 '선비'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400자 내외)

논제 3. 〈논제 1〉과 〈논제 2〉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지식인상' 을 정립하고, 제시문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술하시오.(1200자 ±120자)

5. 상황에 맞게 원리를 적용한다

- 원리 접근
- 기출 연습
- 신전 연습

5. 상황에 맞게 원리를 적용한다

✍ 원리 접근

위 삽화는 철수가 논술 시험지를 앞에 두고 답안을 쓰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장면이다. 시험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연습할 때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막상 실전에 임하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당황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특히 논리적인 글을 써야 하는 논술시험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할 수 있다. 그래서 복잡한 과정을 억지로 대입시키는 방식보다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평소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위 삽화에서처럼 철수는 시험지를 앞에 놓고 세 가지를 순서대로 떠올리고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재를 본 학생이라면 앞에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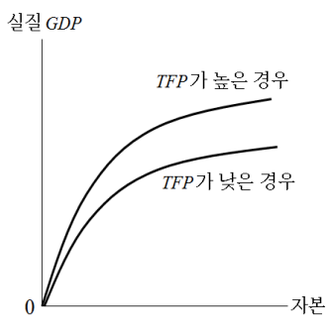
지금부터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전반부에서는 기출문제를 통하여 원리를 확인하고 후반부는 연습문제를 통하여 원리를 적용해 본다.

✍ 기출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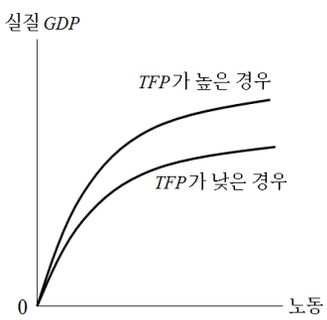
1 2010학년도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문항 2)

[가]

한 국가의 실질GDP는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에 의해 결정되며, 그 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고 가정하자.



<그림 1> 노동이 일정한 경우



<그림 2> 자본이 일정한 경우

여기에서 총투입생산성은 좁게 보면 각 국가의 기술수준에 의해, 넓게 보면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실질GDP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제도, 정책, 규제, 사회간접자본 등) 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 표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경까지 동아시아 몇 국가와 미국의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과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이 이러한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에 상대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보여 주고 있다. 1960년대 중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실질GDP와 총투입생산성은 미국의 실질GDP와 총투입생산성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표 1〉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과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의 상대적 성장 기여도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	상대적 성장 기여도		
		자 본	노 동	총투입생산성
한국(1966-1990)	10.27%	39.6%	43.8%	16.6%
싱가포르(1966-1990)	8.75%	64.6%	33.1%	2.3%
홍콩(1966-1991)	7.29%	40.9%	27.6%	31.5%
대만(1966-1990)	9.40%	33.6%	38.7%	27.7%
미국(1966-1990)	3.03%	37.9%	42.3%	19.8%

[나]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 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 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우리 국조(國祖) 단군(檀君)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또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달성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기타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또 1차, 2차의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가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고 믿는다.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논제 1]

제시문 [가]의 그림을 이용하여 표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장 특성을 설명하고, 이 특성이 향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도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 모든 국가들에서 실질GDP와 자본, 노동, 총투입생산성 간의 관계는 동일하다고 가정할 것.

(600 ± 100자)

[논제 2]

두 제시문을 기초로 하여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무대의 주연 배우로 등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다음 사항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시오.

(1,000 ± 100자)

① 현재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기에 족한가?

② 제시문 [나]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닌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소원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현재 시점에서 타당한가?

… 문제 이해 및 분석

□ 주제 :

□ 주제에 대한 견해

□ 논제에 따른 개요

문제해결

[논제 1]

[논제 2]

2 2011학년도 고려대 논술 모의고사(2010년 5월 8일 시행)

(1) 근대적인 의미에서 변증법은 어떤 것이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3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개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먼저 정립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관념이나 이론 또는 운동이 존재한다. 그러한 정립은,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물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한정된 가치밖에 없으며 또 여러 약점이 있을 것이므로 종종 대립물을 산출할 것이다. 이 대립되는 관념이나 운동은 처음의 것, 즉 정립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반정립이라고 한다. 정립과 반정립의 투쟁은 어떤 해결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 해결은 정립과 반정립 각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모든 장점을 보존함으로써, 또한 양자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모든 약점을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정립과 반정립을 초월한다. 제3의 단계인 이 해결을 종합이라고 한다. 일단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종합은 또다시 변증법 3요소의 1단계가 될 수 있다. 즉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도달한 특수한 종합이 일면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종합은 다시 정립으로서 새로운 반정립을 낳는 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관점은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오해와 혼란은 모순에 대한 변증법 논자들의 부정확한 표현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모순이 사고의 역사에서 최고의 중요성을 갖고 있고, 매우 생산적이며, 실로 사고가 진보하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본다. 변증법 논자들은 생산적인 모순들을 회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순이란 세계 도처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논리학의 이른바 모순율, 즉 모순되는 두 진술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원리에 대한 공격이 된다. 변증법 논자들은 모순의 유익함에 호소함으로써 전통적인 논리학의 이 법칙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변증법이 새로운 논리학이 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변증법 논자들에 의하면, 모순은 유익하거나 창조적이거나 진보를 낳는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도 인정했다. 그런데 모순의 창조성은, 우리가 진술들 간의 모순을 허용치 않고 모순이 내포된 이론은 어떤 것이든지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바꾸어 모순을 묵인하면, 모순이 그 즉시 모든 다산성을 잃고 만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모순은 이제 더 이상 지적인 진보를 산출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순을 묵인하면 우리 이론이 갖고 있는 모순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론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순을 용인하면 모든 비판은 그 힘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모순을 용인할 경우, 비판은 물론 모든 지적인 진보 역시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변증법 논자들에게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모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단순히 다산성 때문이라면 모순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변증법 논자들이 모순을 굳이 받아들인다면 모순은 무익한 것이 될 것이고,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 및 지적인 진보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립과 반정립 사이의 모순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의하면, 우리는 모순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탐색하게 된다. 더구나 이 결의는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순을 용인할 경우 그 어떤 종류의 과학적인 활동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과학의 전면적인 붕괴를 뜻하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논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모순되는 두 진술을 인정할 경우, 어떠한 진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밝힐 수 있다.

또한 모순율은 모순이 자연, 즉 사실의 세계에서는 결코 생길 수 없으며, 모든 사실은 서로 모순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예컨대 양전기와 음전기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요 애매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모순의 실례는 다음의 두 문장일 것이다. 즉 "여기에 있는 물체는 1938년 11월 1일 오전 9시와 10시 사이에 양전기를 띠고 있었다."는 문장과, 같은 물체에 대해서 그것이 같은 시각에 양전기를 띠고 있지 않았다는 문장이다. 이것은 두 문장 간의 모순이다. 그것에 대응하는 모순적인 사실은 하나의 물체가 동시에 양과 음 쌍방의 전기를 띠고 있으며, 따라서 어떤 음전기를 띤 물체를 당기는 동시에 당기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모순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2) 스탈리니즘에 있어서의 마틴 루터는, 아직 없다. 크렘린의 서슬에 맞선 사람은, 이단 신문소에서 화형이 되었다. 권위는 아직도 튼튼하다. 하느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000년 동안 미루어져 온 것처럼, 공산 낙원의 재현은 30년 동안 미루어져왔다. 여기까지가 그가 알아볼 수 있었던 벼랑 끝이었다. 벼랑을 뛰어넘거나 타고 내리지도 못했을 뿐더러, 이 무서운 밀림에 과연 얼마나 한 자리를 낼 수 있을지, 자기 힘에 대한, 지적 체력에 대한 믿음이 자꾸 줄어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북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물음을 누군가와 힘을 모아 풀어나간다는 삶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벌써 전쟁이 나기 전에 알고 있던 일이었다. 오랜 세월을 참을 차비가 되어 있었다. 역사의 속셈을 푸는 마술 주문을 단박 찾아내지 못한다고 삶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참고, 조금씩, 그러나 제 머리로 한치씩이라도 갈을 내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그는 포로로 잡히고 말았다. 북조선 같은데서, 적에게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명준은 자기한테 돌아온 운명을 한탄했다. 적어도 남만큼 한 충성심을 인정받으면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남은 세월을 조용히, 그러나 자기 힘이 미치는 너비에서 옳게 써나간다는 삶조차도 꾸리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다. 제국주의자들의 균을 묻혀가지고 온 자로서, 일이 있을 적마다 끌려나와 참회해야 할 것이었다. 마치 동네 안에 살면서도 사람은 아닌 문둥이처럼. 그런 처지에서 무슨 일을 해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정말 까닭이었다. 그렇다면? 남녘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눈에는, 남한이란 키르케고르 선생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 아닌 광장이었다.

미친 믿음이 무섭다면, 숫제 믿음조차 없는 것은 허망하다. 다만 좋은 데가 있다면, 그것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게으를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정말 그것은 자유 마을이었다. 오늘날 코뮤니즘이 인기 없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한마디로 가리킬 수 있는 투쟁의 상대 — 적을 인민에게 가리켜 줄 수 없게 된 탓이다. 마르크스가 살던 때에는 그렇게 뚜렷하던 인민의 적이 오늘날에는, 원자탐지기의 바늘도 갈팡질팡할 만큼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난과 악의 왕초들을 찾기 위하여, 나뉘고 얽히고 설킨 사회 조직의 미궁 속을 헤매다가, 불쌍한 인민은, 그만 팽개쳐버리고, 예대로의 팔자풀이집, 동양철학관으로 달려가서, 한 해 토정비결을 사고 만다. 일류 학자의 분석력과 직관을 가지고서도, 현대사회의, 탈을 쓴 부패 조직의 모습을 알아보기 힘드는 판에, 김 서방 이 주사를 나무라는 건 아무래도 너무하다. 그래서 자유가 있다. 북녘에는, 이 자유가 없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없었다. 그건 제 멋 짓밟기다. 남한의 정치가들은 천재적이었다. 들어찬 술집마다 들어차서, 울랴고 내가 왔던가 웃으랴고 왔던가를 가슴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대중을 위하여, 더 많은 양조장 차릴 허가를 내준다. 갈보장사를 못 하게 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여성 단체의 부르짖음은 그날치 신문 기삿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고작이다. 그들의 정치철학은 의뭉스럽기 이를 데 없다. 그런 데로 풀리는 힘을 막으면, 물줄기가 어디로 터져나올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자녀에겐, 진심으로, 교회에 나가기를 권유하고, 외국에 보내서 좋은 가르침을 받게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그러나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만 한다. 박헌영 동지가 체포되었다 하오. 전해 듣게 된 그 흉한 소식. 아버지.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때, 중립국에 보내기가 서로 사이에 말이 맞았다. 막다른 골목에서 얼이 빠져 주저앉을 참에 난데없이 밧줄이 내려온 것이었다. 그때의 기쁨을 그는 아직도 간직한다. 판문점. 설득자들 앞에서처럼 시원하던 일이란, 그의 지난날에서 두 번도 없다.

[중략]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웠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 가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다.

선장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에 닿자면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야, 없다는 게?"
"미스터 리 말입니다."
이튿날.
타고르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빼곡히 들어찬 남중국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간다.

(3) 여기 두 종류의 속담이 있다. 하나는 "빵 반쪽이라도 있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다수에 대항하는 소수는 반드시 패한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은 쇠보다는 강하지만 파리보다 약한 존재이다.", "적보다는 친구를 조심하라."는 것이다. 전자의 속담들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데 비하여 후자는 누가 봐도 명백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심리학자인 펑카이핑과 나는 후자의 속담 유형이 미국에서보다 중국에서 더 흔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우리는 미시간대학과 베이징대학의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일련의 속담들을 제시해주고 각 속담이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를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미국 학생들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지 않은 속담들을 더 선호한 반면, 중국 학생들은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속담들을 선호했다. 이러한 차이가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속담들에 더 친숙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나라 사람 모두에게 친숙하지 않은 유태인 속담을 이용하여 또 다른 연구를 수행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즉, 모순을 포함하지 않은 속담보다 모순을 포함한 속담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선호가 훨씬 더 높았다.

'모순에 대한 선호'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동서양의 차이는 매우 뿌리 깊은 근원을 가지고 있다. 고대 중국인들은 변증법적 사고라 부를 만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모순이 되는 주장들을 타협을 통해 수용하는 것이었다. 모순되는 두 주장 모두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고방식의 핵심이다.

동양인들의 생각에, 우주는 정적인 곳이 아닌 역동적이고 변화 가능한 곳이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대립, 역설, 변칙이 늘 발생하며, 신구•선악•강약이 모든 사물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대립은 사실상 서로를 완성시키고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도교에서는, 모순 관계에 있는 두 주장들이 역동적인 조화의 상태로 존재하며, 서로 대립적인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상호 통제한다고 생각한다. 노자(老子)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추한 것이 있기 때문이고, 착한 것이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착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생기게 하고,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은 서로 성립하게 하며, 긴 것과 짧은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하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은 설 기대고 있다."라고 하였다.

서양 사고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동일률'은 상황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일관성을 강조한다. 즉, A는 맥락에 관계없이 A인 것이다. 또한 '모순율'은 한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이 동시에 참일 수 없음을 강조한다. 즉,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현대의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의 논리학 원리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양인들은 순전히 형식 논리상 모순된다는 이유로 결론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개념이란 단지 사물의 반영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두 개념을 동시에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4) 지금까지 헤겔의 논리학이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모순이라는 용어를 매우 독특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헤겔은 "객관은 여러 가지 것의 완전한 자립성인 동시에 구별되는 것의 완전한 비자립성이라는 절대적 모순"이라고 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모순은 명백히 진술이나 판단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거짓인 진술 또는 판단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헤겔은 객관적인 것,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자체에 있는 사태를 보여 주기 위해서 모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러한 부류의 모순을 '변증법적 모순'이라고 명명하였다.

사물을 인식하는 우리들의 오류가 아니라 사물 그 자체의 본질 속에 모순의 기원이 있다고 헤겔은 생각했다. 사물들이 동일한 관계에서 하나의 특징과 그에 모순되는 반대물을 동시에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객관적 현존으로 모순을 이해할 때 그에 대한 진술은 형식상 모순된 명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헤겔은 철학사상 최초로 실재적 대립을 모순으로 표현했고, 관념론의 입장에서 모순에 대하여 뚜렷한 의미를 부여했으며, 모순을 객관적 사태로 파악했다고 할 수 있다.

헤겔의 변증법적 모순 개념은 사회적 모순을 바라보는 관점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사이의 모순은 발전과정의 진보와 새로운 것의 등장에 유리한 주객관적 전제들이 밝혀짐으로써 생긴다. 그것은 모든 운동을 특징짓는 안정성과 변화의 보편적 모순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형태이다. 발전과정에서는 늘 새로운 것과 낡은 것 사이의 모순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양극성은 동일한 하나의 사실 연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새로운 형태로 재생산된다. 결국 모순은 역동적 대립관계의 발전 국면을 전개시킬 뿐만 아니라, 항상 새롭게 산출되는 극성(極性)의 성숙한 국면을 나타낼 수 있다.

많은 변증법적 모순의 현상들이 문학에서 갈등의 형태로 드러난다. 갈등은 대립되는 이해와 경향의 일시적인 상호배척이며, 사회적 관계의 발전과 형태 변화의 역동성을 분명하게 반영한다. 사회의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은 문학적으로 서술되고 묘사되는 과정에서 그 내적인 필연성을 드러낸다. 즉 문학적 형상화는 모순들의 일반적 구조에 따라 모순의 전개과정과 해결을 지향하여, 다양한 모순들에서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일치에 이른다. 이런 의미에서 헤겔의 모순 개념은 무엇이 참된 모순인가에 관해서 독자적인 이해를 발전시켰다고 평가된다.

(5)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인 결과를 낳는가? 자원 고갈,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현실의 많은 문제에서 우리는 개인의 합리성이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합리성의 역설'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합리성의 역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두 사람의 개별적 의사결정이 자신의 이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갑과 을이 각자 선택지 A와 B중에서 하나를 취한다. 이 경우,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네 가지 결과, AA(갑과 을 모두 A를 선택), AB(갑은 A를, 을은 B를 선택), BA(갑은 B를, 을은 A를 선택), BB(갑과 을 모두 B를 선택)가 가능하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 원칙 중 하나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최소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최소극대화 원칙'이라 한다. 가령, 갑이 A를 선택할 때, 을도 A를 선택하면 갑은 4의 이득을 얻고 을이 B를 선택하면 갑은 1의 이득을 얻는다고 하자. 이때 갑이 A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최소 이득은 1이다. 갑이 B를 선택할 때, 을도 B를 선택하면 갑은 2의 이득을 얻고 을이 A를 선택하면 갑은 3의 이득

을 얻는다고 하자. 이때 갑이 B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최소 이득은 2이다. B를 선택할 때 얻는 최소 이득이 A를 선택할 때 얻는 최소 이득보다 크므로 갑은 최소극대화 원clr을 따른다면 B를 선택할 것이다.

'사회적 합리성' 은 더 이상 사회구성원들의 이득을 동시에 높일 수 없을 때 달성된다. 예를 들어, AA의 경우 각자 4의 이득을 얻고 BB의 경우 각자 3의 이득을 얻는다고 하자. 아울러 AB와 BA에서는 A를 선택하는 사람은 5의 이득을 얻고 B를 선택하는 사람은 1의 이득을 얻는다고 하자. 이때 갑과 을 모두 BB보다 AA에서 더 큰 이득을 얻으므로 BB라는 결과는 사회적 합리성을 결여한다. 반면 AB나 BA 어느 것도 AA에 비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이득을 주지 않으므로, AA라는 결과는 사회적 합리성을 가진다.

최소극대화 원칙에 따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 합리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때 '합리성의 역설' 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자.

상황 1 : 이득이 큰 순서대로 결과를 나열하면 갑의 경우에는 BA, AA, BB, AB 이고, 을의 경우에는 AB, AA, BB, BA 이다.

상황 2 : 이득이 큰 순서대로 결과를 나열하면 갑의 경우에는 BA, AA, AB, BB 이고, 을의 경우에는 AB, AA, BA, BB 이다.

상황 3 : 이득이 큰 순서대로 결과를 나열하면 갑의 경우에는 AA, BA, BB, AB 이고, 을의 경우에는 AA, AB, BB, BA 이다.

Ⅰ.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15점)

Ⅱ.제시문 (4)의 논지를 밝히고, 제시문 (1)과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30점)

Ⅲ. 제시문 (3)에 나타난 동양적 사고의 관점에서 제시문 (2)의 주인공의 마지막 선택에 관해 논하시오. (30점)

Ⅳ. 제시문 (5)의 상황 1, 상황 2, 상황 3 각각에서 갑과 을이 최소극대화 원칙을 따를 경우 어떤 선택을 할지 분석하고, 그러한 선택의 결과를 합리성의 역설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25점)

※ 유의 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2. 답안에 제목을 달지 말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Ⅰ은 350~400자), Ⅱ는 600자(±50자), Ⅲ은 600자(±50자)가 되게 할 것. Ⅳ는 자수에 제한 없이 쓰되 답안지의 테두리선을 벗어나지 말 것.

… 문제 이해 및 분석

□ 주제 :

□ 주제에 대한 견해

□ 논제에 따른 개요

문제해결

[논제 1]

[논제 2]

[논제 3]

[논제 4]

✍ 실전 연습

1

(가) 1900년 출판된 '오즈의 마법사'는 원래 동화가 아니라 정치 풍자소설이었다. 악의 무리를 이끄는 동쪽의 마녀는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알고 보니 별 볼일 없는 오즈의 마법사는 연방정부, 허수아비와 깡통나무꾼은 농촌과 도시의 실업자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이런 설정은 당시 중서부 대평원지대의 농민운동에서 출발했던 인민당(populist party)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인민당 강령의 핵심은 은화를 무제한 발행하자는 것이었다. 인플레를 불러 금융자본에 타격을 주고 빚더미에 눌린 농민을 구해주겠다고 했다. 인민당은 한때 연방의회에서 20여석을 차지할 정도로 기세를 올리다 곧 몰락하고 말았다. 정치적 선동으로 농민과 뜨내기 노동자들을 휘어잡기는 했지만 현실적 정책을 내놓을 능력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는 용어만 남겼을 뿐이다.

포퓰리즘의 기원은 로마다. 공짜 빵과 서커스로 평민들을 '매수'하려 했던 선동정치가를 '포퓰라레스(Populares)'라고 했다. 로마 시민이 하는 일 없이 놀고먹을 수 있게 해주느라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정치가들은 정복전쟁과 식민지 수탈로 이를 해결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인은 식민지를 폐허로 만들고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고 했다.

오늘날 로마식 재원 마련은 어림없는 일이다. 그래도 국민을 빵과 서커스로 구워삶으려면 나라 곳간을 들어먹는 수밖에 없다.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인 아르헨티나의 페론이 그랬다. 20세기 초반 아르헨티나는 세계 5~6위 부국이었다. 1946년 집권한 페론이 최저 임금을 크게 올리며 갖가지 분배정책에 열을 올리자 순식간에 국고가 비고 세계의 빈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요즘 남미에 다시 포퓰리즘 바람이 거세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그 선두에 있다. 1998년 집권 후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 소작농에게 나눠주고 무료 교육, 무료 의료로 빈곤층의 환심을 사는 정책만 펴왔다. 국제적 반미전선 지도자라는 기분을 내기 위해 주변국들에 퍼준 돈만 300억 달러가 넘는다. 2003년부터 시작된 고유가 덕분에 호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았다면 벌써 나라가 거덜났을 것이다. 빵과 서커스로 국민을 타락시키는 선전·선동형 정치의 말로(末路)는 경제 파탄과 나라의 몰락일 수밖에 없다. 말로 우쭐대고 선심으로 인기를 탐하는 지도자를 둔 죄로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나)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귤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 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濟州島)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 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없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을 흘러가서 어떤 빈 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

(沙門)과 장기(長崎)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 나를 그 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했다.

1) 분석하기

(가)	요약하기 (200자 내외)	
	핵심어	
	주제	

(나)	요약하기 (200자 내외)	
	핵심어	
	주제	

2) 주제

3) 토론하기

❊ 〈보기〉의 밑줄친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인민당'의 정치적 선동과 제시문 (나)에서 '허생'이 벌인 상행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비판하시오.

〈보기〉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봉사자임을 자각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산업 사회의 주권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건전한 소비 의식을 지닌다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안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양심적이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이 정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고등학교 생활경제(대한교과서) 62쪽 –

4) 서술하기

※ 제시문 (가)에 나타난 남미 지도자들의 통치 행위가 〈보기〉를 근거로 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주장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법 적용 원칙과 관련하여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500字 내외)

〈보기〉

> 로마법에서는 권리의 행사를 정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법률상의 권리를 이용하는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라고 권리의 절대성을 인정하여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았다.
>
> – 고등학교 법과사회(교학사) 25쪽 –

2

(가) 국어는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을까? 1999년 현재 국어는 국어의 발생지인 한반도에서 약 6,9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세계 142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564만 명 정도의 동포들 또한 대개 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일부 있지만 그리 많은 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7,400 내지 7,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것은 사용 인구로 보면 세계 15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어는 상당히 중요한 언어의 하나에 속한다.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려는 움직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한국어과가 설치된 대학이 25개 이상이 되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국교 정상화가 되던 1960년대 말에는 5개교에 불과하던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이 오늘날은 65개교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호주의 입시 제도인 HSC(High School Certificate), 미국의 SAT(Scholastic Aptitude Test)Ⅱ에 한국어가 채택되어 초·중등학교에서도 한국어가 정식 선택 과목이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약 50개국, 약 300개 대학 및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한편, 국어 어휘들이 세계어로 인정되어 외국의 사전에 오르는 예들도 있다. 우리의 전통 음식인 '김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경기에 사용되는 용어들, 예컨대 '차렷', '시작', '갈려', '그만', '얼굴', '몸통', '아래', '하나', '둘' 등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하략〉

(나) 19세기 파리에서 한 요리 잡지가 이름난 요리사들을 모아 특별 강좌를 열었다. 강좌는 큰 인기를 끌었고 1895년 잡지 이름을 딴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가 문을 열었다. 몇 해 전 화제가 됐던 TV 드라마 '내 이름은 삼순이'에서 주인공이 제빵 기술을 배운 이 요리학교는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미국·호주·일본·한국 등 10여 나라에 분교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약 1만8000명이 이곳에서 프랑스 요리를 배워 그 명성을 세계로 전파한다.

전북 전주시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는 700여 채의 전통 한옥이 모인 '전주 한옥(韓屋)마을'이 있다. 1930년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곳은 문화재 등록이 추진될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는다. 방문객이 숙박하면서 온돌과 마루 등 한국의 옛 주거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한옥생활체험관과 전통술박물관, 전통문화센터, 전통공예품전시관 등이 있다. 부채 그림 만들기, 전통 음식 만들기 등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지난해 약 5만명의 외국인이 이곳을 찾았다.

문화가 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좌우하고 대외 이미지가 그 나라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다. 문화관광부가 이번에 **한글·한식(韓食)·한복(韓服)·한옥·한지(韓紙)·한국 음악** 등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6개 분야를 '한(韓)스타일'로 육성하겠다고 나섰다. 대중문화에서 시작된 한류(韓流)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문화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업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8659억 달러(세계 10위)였다. 1위는 미국(7조

2013억달러)이었고, 일본이 4위(2조6550억달러), 중국이 8위(1조2242억달러)였다. 무역 규모, 경쟁력 지수, · 심리적 친근도를 종합해서 산출된 수치다. 이 중 한국에 대한 심리적 친근도를 높이는 데 고유 문화만큼 잘 먹힐 수 있는 것도 없다.

우리 도시와 지방에선 우리의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가 없다. 한복 입는 사람도 거의 사라졌다. 서울에 처음 온 외국인이 "지금 어느 나라에 온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식민지와 전쟁, 산업화를 겪으면서 전통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다. 고유 문화는 '세계화'의 전장(戰場)에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그 무기가 먼지를 뒤집어쓰고 창고에 내버려져 있었다.

1) 분석하기

(가)	요약하기 (150자 내외)	
	핵심어	
	주제	

(나)	요약하기 (150자 내외)	
	핵심어	
	주제	

2) 주제

3) 토론하기

❊ 〈보기〉의 밑줄친 구절을 제시문 (가)에 나타난 한국어에 적용할 때, '문화 절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보기〉

진정한 문화의 세계화는 서구 문화 일색의 획일화 과정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즉, 세계 각국의 민족 문화가 공존하면서,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명제는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자세를 암시해 주고 있다.

– 고등학교 사회(디딤돌) 269쪽 –

4) 서술하기

❊ 제시문 (나)의 밑줄친 부분에 나타난 여섯 가지 '한(韓)스타일' 육성 분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보기〉에 나타난 국제 무역의 역사적 의미를 논거로 삼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700字 내외)

〈보기〉

> 역사적으로 볼 때, 무역을 존중한 시대와 쇄국 정책을 실시하던 때와는 국민 생활 수준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세 암흑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는 국제 무역을 등한시하여 경제가 정체된 반면, 16~17세기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국제 무역이 강조되던 때에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역을 중심으로 세계로 진출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그 당시 생활 수준과 국력은 세계를 주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
> – 고등학교 생활 경제(대한교과서) 174쪽 –

3

(가)

경쟁과 분서

같은 장소에 생활하는 두 개체군이 같은 종류의 먹이를 요구할 때 이들 사이에는 경쟁이 일어난다. 경쟁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먹이와 서식처가 비슷한 개체군들이 함께 살면 이들 사이의 경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이것을 경쟁 배타의 원리라고 한다.

그러나 자연계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개체군이라 할지라도 공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개체군이 경쟁을 피해 부분적으로 생활 공간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서식지 분리 또는 분서라고 한다.

공생

두 개체군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함께 생활하는 경우를 공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뿌리혹박테리아와 콩과 식물의 경우 뿌리혹에 서식하는 박테리아가 질소 화합물을 콩과 식물에 주는 대신 콩과 식물은 박테리아에게 탄수화물을 준다. 이와 같이 서로 이익을 주며 살아가는 경우를 상리 공생이라고 한다. 한편, 한쪽은 이익을 얻고 다른 쪽은 이익도 손해도 없는 공생 관계도 있는데 이를 편리 공생이라고 한다.

피식과 포식

군집의 개체군은 서로 복잡한 먹이 그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종류의 개체군은 다른 종류의 개체군과 필연적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성립되며 잡아먹는 쪽을 포식자, 잡아먹히는 쪽을 피식자라고 한다. 이 때 피식자의 수가 증가하면 포식자의 수가 증가하고 포식자의 수가 증가하면 피식자의 수가 감소한다.

(나)

영국 造船조선해운 분석기관은 중국이 지난 1월과 2월 세계에서 발주한 선박물량 78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가운데 49%인 380만CGT를 따내 두 달 연속 세계 선박 受注수주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한국이 따 온 선박물량은 중국의 절반인 200만CGT에 불과했다. 중국이 선박 수주에서 한국을 제친 것은 처음이다. 한국 조선업계는 1999년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선 뒤 한 번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중국의 조선산업 경쟁력이 한국보다 10년쯤 뒤떨어져 있다고 말해 왔다. 특히 대당 建造건조 가격이 1억 달러를 넘는 값비싼 LNG선이나 초대형 유조선 등은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에 한참 못 미친다고 분석했다.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시대에 한참 뒤진 이야기다. 90년대 우리도 처음엔 기술수준이 낮고 값싼 벌크 화물선을 중심으로 선박 수주량을 늘려 나갔다. 그러면서 기술과 경험을 쌓았고 그걸 바탕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LNG선, 유조선, 호화 여객선 같은 高고부가가치 선박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됐다.

중국이 선박 수주에서 한국을 제쳤다는 것은, 한국이 만들 수 있는 선박은 중국도 다 만들 수 있다고 세계 시장에 선언한 것과 같은 이야기다. 중국은 90년대 말부터 '한국 타도'를 외치며 조선산업에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해 왔다. 100개 넘는 조선소가 생겨나면서 선박 건조능력은 2002년 이후 5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현재 9개인 초대형 조선소를 2015년까지 17개로, 대형 도크는 7개에서 23개로 늘릴 계획이다.

일본이 세계 조선산업 정상에서 영국과 네덜란드를 밀어낸 게 1960년대 중반이다. 일본은 그 후 40년 가까이 조선산업을 호령했다. 90년대 말 가까스로 일본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던 한국 조선산업에 중국 공습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조선만이 아니다. 전자, 철강, IT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난 20년 한국을 먹여 살렸던 5대 업종 모두가 중국에서 밀려든 해일에 잠길 판이다.

1) 분석하기

(가)	요약하기 (150자 내외)	
	핵심어	
	주제	

(나)	요약하기 (150자 내외)	
	핵심어	
	주제	

2) 주제

3) 토론하기

※ 제시문 (가)의 세 가지 작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문 (나)의 논지에 적용한 후, 이를 토대로 한국 조선 산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4) 서술하기

❊ 〈보기〉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와 유사한 문화적 사례를 근거로 들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500±50字)

〈보기〉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일본은 앞서가고 중국은 쫓아오는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여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고생을 많이 할 위치에 있는 게 우리 韓半島한반도"라고 했다.〈중략〉 기업은 본능적으로 그 사업이 利益이익을 낼 수 있느냐를 우선시한다. 아무리 겉보기가 그럴 듯해도 많이 만들어 많이 팔아 많은 이익을 낼 수 없다면 無意味무의미한 것이다.

4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선진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한다. 사회적 명예와 권력과 富부가 높고 강하고 많을수록 그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헌신의 필요성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이다. 1,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는 이튼 스쿨 출신만 2000여명이 전사했다. 노동자 가정 자녀들의 희생자 비율보다 몇 배나 높았다. 세계적 부자 워런 버핏은 전 재산의 85%인 374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했다. 자녀들에게 돌아간 유산은 불과 몇 %도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쌓여 그들 사회의 튼튼한 基礎기초가 되고, 자기 실력으로 쌓은 富부와 권력의 正當性정당성이 확보되며,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는 사회적 안목도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선비의 전통이 끊어진 토대 위에서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하는 나라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느 곳보다 더 절실한 사회라는 말이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철하게 도덕 의식을 실천하고 자기 희생을 솔선 수범하지 않으면 그들의 힘과 돈은 도전 받게 되고 사회 역시 모래 위에 쌓은 城성처럼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판·검사들은 무더기로 브로커에 놀아나고, 의사들은 법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불법 돈 로비를 한다. 사회의 상층부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디에 권위가 설 땅이 있겠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인사 태풍이 사회 전체를 뒤집듯 휩쓸어 가는 것도 결국 곳곳에서 권력의 횡포를 막아낼 권위의 방파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법원, 대학, 의료계, 문화계에 권위가 서 있다면 정치 권력이 결코 제 집 안방 드나들 듯 버릇없이 굴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

윤춘삼 씨는 그제야 소주를 한 잔 훅 들이키고 다음을 계속했다. ―섬사람들이 한창 둑을 파헤치고 있을 무렵이었다 한다. 좀더 똑똑히 말한다면, 조마이섬 서쪽 강둑길에 검정 지프 차가 한 대 와 닿은 뒤라 한다. 웬 깡패같이 생긴 청년 두 명이 불쑥 현장에 나타나더니, 둑을 허물어뜨리는 광경을 보자, 이내 노발대발 방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엉터리 둑을 막아 놓고 섬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소위 유력자의 앞잡인지 뭔지는 모르되, 아무리 타일러도, '여보, 당신들도 보다시피 물이 안팎으로 이렇게 불어나는데 섬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오?' 해 봐도, 들어 주긴커녕 그 중 힘깨나 있어 보이는, 눈이 약간 치째진 친구가 되레 갈밭새 영감의 괭이를 와락 뺏더니 물 속으로 핑 집어던졌다는 거다.

그리곤 누굴 믿고 하는 수작일 테지만 후욕 패설을 함부로 뇌까리자,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갈밭새 영감도,

"이 개 같은 놈아, 사람의 목숨이 중하냐, 네놈들의 욕심이 중하냐?"

말도 채 끝내기 전에 덜렁 그 자를 들어 물 속에 태질을 해 버렸다는 것이다. 상대방은 '아이고' 소리도 못 해 보고 탁류에 휘말려 가고, 지레 달아난 녀석의 고자질에 의해선지 이내 경찰이 둘이나 달려왔더라고.

"내가 그랬소!"

갈밭새 영감은 서슴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다는 거다. 다행히도 벌써 그 때는 둑이 완전히 뭉개지고, 섬을 치덮던 탁류도 빙 에워 돌며 뭉그적뭉그적 빠져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 조마이섬을 지키다시피 해 온 영감인데……살인죄라니 우짜문 좋겠능기요?"

게까지 말하고 나를 쳐다보는 윤춘삼 씨의 벌건 눈에서는 어느덧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법과 유력자의 배짱과 선량한 다수의 목숨……. 나는 이방인처럼 윤춘삼씨의 캉캉한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1) 분석하기

(가)	요약하기 (200자 내외)	
	핵심어	
	주제	

(나)	요약하기 (200자 내외)	
	핵심어	
	주제	

2) 주제

3) 토론하기

❊ 제시문 (나)의 논지를 '법은 언제나 가진 자의 편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제시문 (가)를 근거로 하여 논지의 적정성 여부를 말하시오. (주의 :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할 것)

4) 서술하기

❊ 제시문 (나)에 나타난 갈밭새 영감의 행위를 〈보기〉의 관점에서 비판할 경우, 예상되는 반론을 논박하시오. (600±50字)

〈보기〉

법치주의는 인간의 자의적 지배를 거부하고 법에 의한 통치, 법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함으로써 사법적(司法的)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치주의 사회의 실현으로 가능하게 된다.

–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교학사) 20쪽 : '법치주의'

5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국의 경제학자 낸시 폴브레는 현대 경제의 발전이 이기심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뿐 아니라 여성의 이타적인 돌봄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가슴(Invisible Heart)'에도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이처럼 여성의 가사노동을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해석하자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경제재정자문회의 차원에서 25~40세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2006년 말 57%에서 2017년 71%까지 끌어올리는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였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미진하다.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해 50.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나마도 여성 취업자 대부분(67.7%)이 비정규직이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 전체의 참가율보다 훨씬 낮다. 자녀출산 후 생후 2년까지 여성의 취업률이 25.9%까지 떨어진다는 조사도 있다. 사회적으로 영 · 유아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직장 생활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보육비용이 일반 봉급생활자에게는 턱없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부 조사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67.9%가 육아부담을 취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였다. 저출산 문제는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핵심적인 대책이 보육문제 해결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나)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대신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진 돈, 시간, 노력 등을 일단 어딘가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동시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모든 대안들 중 가장 가치 있는 대안을 기회 비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회 비용은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항상 발생하기 마련인데, 만일 우리가 선택한 것이 포기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선택은 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D 플레이어의 구입과 컴퓨터 학원 등록을 놓고 망설이던 현지가 학원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이 경우 학원 등록에 대한 기회 비용은 구입하기를 포기한 CD 플레이어가 된다. 김철민 사장이 자동차 20대와 자전거 200대 중에서 자동차 20대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면, 자동차 20대 생산에 대한 기회 비용은 자전거 200대가 된다. 또한 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도로 건설과 빈곤층 아동 급식 프로그램 중 도로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면, 도로 건설에 대한 기회 비용은 빈곤층 아동 급식 프로그램이 된다. 이를 엄밀하게 말하면 빈곤층 아동의 영양 부족으로 인한 건강 상실이 기회 비용이 될 것이다.

1) 분석하기

(가)	요약하기 (200자 내외)	
	핵심어	
	주제	

(나)	요약하기 (200자 내외)	
	핵심어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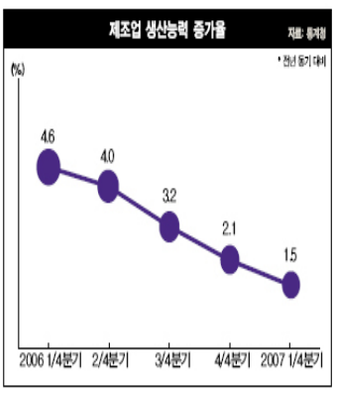
2)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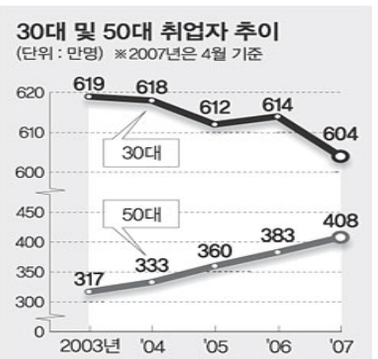
3) 토론하기

❊ 제시문 (가)의 내용 중 저출산이 사교육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가정할 때, 사교육비를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교평준화 정책』 폐지를 검토할 때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말하시오. (주의 : 존폐에 따른 입장을 분명히 할 것)

4) 서술하기

※ 아래 도표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제시문 (가)의 현상과 관련지어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나)의 기회 비용적 관점에서 논술하시오.(800자 內外)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6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솟구치는 기름 값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면 계기판 기름 표시가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승용차를 쓰는 사람, 집이 일터에서 멀어 운전하는 사람 등 사연은 제각각일 것이나 모두들 주유소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든다.

현실은 이렇듯 분명한데, 현실에 대한 해석과 처방은 정부와 정유업계,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 극명하게 갈라져있다. 정부와 업계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논쟁하는 동안에도 소비자들의 시름은 커져만 간다.

이제 복잡한 논쟁은 접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하고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 우선 높은 기름 값을 유지하는 고유가 시대에 웃는 자가 누구며 우는 자가 누군지를 따져보자.

당연히 고(高)유류세 정책을 통해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정부와 '세금우산' 아래서 적절한 이윤을 만끽하고 있는 정유업계가 전자(前者)에, 일반시민이 후자(後者)에 속할 것이다. 이제는 우는 자의 입장에 서서 우는 자의 문제를 풀어 주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유류세 인하를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유류 값 수준은 서민 가계 지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물류비 급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의 유류세는 관세 · 수입부과금 · 교통세 · 교육세 · 주행세 · 판매부과금 · 부가가치세 등 한 가지 품목에 온갖 세금 종류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후진국형(型)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 기회에 단순화하고 세목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 자연스럽게 세제(稅制) 선진화와 세금 인하의 길을 터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

[1] 경기 상승 또는 호황 국면

경제 내의 총수요가 활성화되어 생산이 증가하고 실업이 줄어드는 국면을 가리켜 '경기 상승' 또는 '호황' 이라고 한다. 그리고 경기 호황이 지나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를 경기 과열이라 한다. 이는 국민 경제의 그릇에 너무 많은 물이 흘러들어와 용기를 넘쳐흐르는 경우로, 경제의 총생산 능력에 비해, 재화를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너무 많아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국민 경제의 총수요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로 구성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경기 과열은 바로 각 경제 주체의 이런 지출 중 적어도 일부가 과열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경기 침체 국면

경제 내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경기 침체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경기 과열과는 반대의 경우이다. 이런 현상은 경제 내의 총생산 능력에 비해, 총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게 된다. 재화의 구매력이 부족하면, 생산이 부진하게 되고, 생산이 부진하면, 생산 요소들이 놀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1929년 10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1930년대에 전세계를 휩쓸었던 세계 대공황도 이런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갑자기, 그리고 심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도 외환 위기 직후 이와 유사한 현상을 잠시 겪은 때가 있다. 이렇게 경제 내의 수요가 극도로 부진하게 되면, 그 치유책 또한 수요를 부양시키는 수밖에 없다.

1) 분석하기

(가)	요약하기 (150자 내외)	
	핵심어	
	주제	

(나)	요약하기 (150자 내외)	
	핵심어	
	주제	

2) 주제

3) 토론하기

※ 제시문 (가)의 고유가 문제를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보기에 나타난 두 가지 품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논리적으로 변호하시오.

〈보기〉

품목	가격 변동시 수요량의 감소율	탄력성	가격 상승시 총지출의 변화	가격 하락시 총지출의 변화
필수품	작다	작다	증가	감소
사치품	크다	크다	감소	증가

4) 서술하기

※ 아래 [도표 1]에 나타난 상황을 제시문 (나)의 경기변동과 관련지어 분석한 후,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 [도표 2]를 참조하여 제시문 (가)에 나타난 고유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술하시오. (600±50字)

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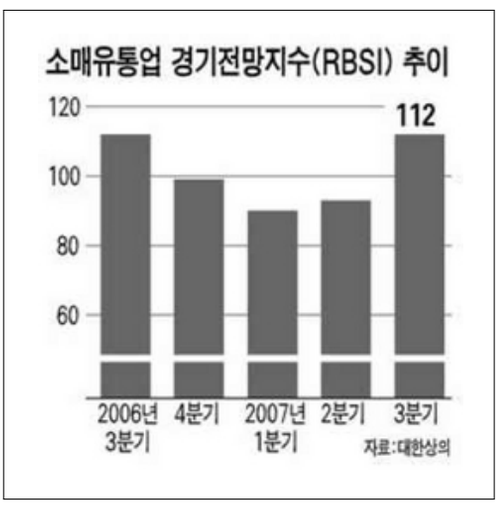


도표 2

7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식물이 정말 아픔을 느낄까? 뽕나무에 전류계를 연결하고 막대기로 때렸더니 나무가 맞고 있는 동안 전류계가 강한 반응을 보였다. 아파하는 느낌이 분명했다. 코끼리는 언제나 바람을 안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아카시아 잎을 뜯어먹는다. 먹히는 나무는 떫은 맛의 타닌을 분비하고 주위에 에틸렌가스로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를 받아 주변 나무는 2~3분 내에 소화가 잘 안 되고 맛이 없는 잎을 만든다. 바람을 안고 먹으면 먹히는 나무의 신호가 앞으로 퍼지지는 않는다. 한 대학교수는 아카시아를 몽둥이로 마구 때렸더니 15분 후에 타닌이 2.5배나 증가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100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3m 이내에 있는 맞지 않은 나무도 덩달아 타닌이 증가했다.

24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감각이 없지만 영혼은 있다' 고 했고 18세기에 린네는 '식물이 활동은 못하지만 감각은 있다' 고 말했다. 20세기에 들어와 시몬이란 식물학자는 "당신 정원에 동물이 아니면서도 움직이는 것이 있다" 며 식물도 근육 단백질을 이용해서 세포질을 움직인다고 했다. 과학자들 연구를 통해 식물은 가스와 전파로 서로 대화를 하며 그 속도가 1분에 24m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해충의 공격이 100m 떨어진 나무까지 알려지는 데 4분 정도 걸린다는 것이다.

1983년 '식물이 음악을 듣는다' 며 식물 음악을 만든 미국인 덴 칼슨은 그것으로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에 올랐다. 필자가 만든 '그린 음악' 도 1994년 이래 우리나라 하우스 농사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린 음악을 들은 작물은 튼튼하게 자라 해충을 물리치고 맛도 좋고 수량도 많다.

우리 곁에 있는 식물은 때리면 아파하고 친구들에게 비보(悲報)를 전하고 음악을 들을 줄 안다. 저희들끼리 조잘대고 웃고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디언한테 이런 말이 있다. "그대는 꽃들이 말을 한다는 사실을 아는가?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눈다. 만일 그대가 꽃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꽃은 그대에게 말을 할 것이다."

(나)

하늘에 깔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1) 분석하기

(가)	요약하기 (200자 내외)	
	핵심어	
	주제	

(나)	요약하기 (200자 내외)	
	핵심어	
	주제	

2) 주제

3) 서술하기

❊ 제시문 (가)를 읽고 글감을 발견한 독자가 (나) 시를 썼다고 가정할 때,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이 (나) 시에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서술하시오.(600±50字)

〈보기〉

작품의 아름다움과 의미는 작가가 의도한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심미적 취향과 가치관과 활발한 대화를 거쳐서 독자의 내면에서 새로이 구성된다. 즉, 작품은 독자의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독자의 수용을 통한 **창조적 재구성**이라 한다.

❊ 보기에 나타난 문제상황을 제시문 (나)의 주제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시오.(800±50字)

〈보기〉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돈 있다구 뭔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루밖엔 뵈지 않드라."

– 문학 교과서(디딤돌) 이태준의 '돌다리' 中에서

8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람은 항온(恒溫) 동물이다. 바깥 기온이 한겨울의 시베리아처럼 영하 40도로 내려가든 열사의 사막처럼 50도를 넘든 체온은 36.5도로 항온을 유지해야 생명이 유지된다. 중심 체온이 35도로 1.5도만 떨어져도 심장 · 뇌 · 폐 등의 기능이 떨어지고, 25도 이하가 되면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우리 몸의 항상성은 생명 유지의 근간이다.

몸이 이렇듯 마음도 그러하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의 근간이 인체의 '항온' 시스템, 즉 몸의 항상성이라면, '항심(恒心)'은 우리가 애써서 도달해야 할 마음의 항상성이다. 사이클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성과도 낼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좋은 날과 궂은 날에 따라 마음 상태가 널을 뛴다면 어찌 집중력을 기대할까. 이런 까닭에 멘털 게임이라는 골프는 말할 것도 없고 양궁이나 야구선수들도 실은 항심을 갖기 위해 명상 훈련을 한다. (중략)

증시가 아무리 대세 상승이라 해도 증권 전문가들은 '일희일비족(族)'에게는 투자를 삼갈 것을 충고한다고 한다. 온종일 "얼마 됐나" 확인하며 조바심 내는 사람들, 돈을 벌어도 불안에 떠는 사람들 말이다. 항심이 없으니 소심하고, 소심하므로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니 수익도 없다는 것이다.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위기와 찬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세평(世評)에 흔들리지 않고 항심을 유지하는 것. 사이클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일정한 퍼포먼스를 내는 것. 왜 그렇지 않겠는가. 오르막과 내리막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생(生)이라면 결국은 슬럼프를,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다.

(나)

옛 사람이 높은 선비의 맑은 향기를 그리려 하되, 향기가 형태 없기로 난(蘭)을 그렸던 것이다. 아리따운 여인의 빙옥(氷玉)같은 심정을 그리려 하되, 형태 없으므로 매화(梅花)를 그렸던 것이다. 붓에 먹을 듬뿍 찍어 한 폭 대(竹)를 그리면, 늠름한 장부, 불굴의 기개가 서릿발 같고, 다시 붓을 바꾸어 한 폭을 그리면 소슬(蕭瑟)한 바람이 상강(湘江)의 넋을 실어 오는 듯했다. 갈대를 그리면 가을이 오고, 돌을 그리면 고박(古樸)한 음향이 그윽하니, 신기(神技)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기에 예술인 것이다.

종이 위에 그린 풀잎에서 어떻게 향기를 맡으며, 먹으로 그린 들에서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심안(心眼)이다. 문심(文心)과 문정(文情)이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백아(伯牙)가 있고, 또 종자기(鐘子期)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뜻을 알면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결코 독자(讀者)를 저버리지 않는다. 글을 잘 읽는 사람 또한 작자(作者)를 저버리지 않는다. 여기에 작자와 독자 사이에 애틋한 사랑이 맺어진다.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시대(時代)의 공민(公悶)이요, 사회(社會)의 공분(公憤)이요, 인생(人生)의 공명(共鳴)인 것이다.

1) 분석하기

(가)	요약하기 (200자 내외)	
	핵심어	
	주제	

(나)	요약하기 (200자 내외)	
	핵심어	
	주제	

2) 주제

3) 비판하기

❊ 제시문 (가)의 ㉠과 제시문 (나)의 ㉡에 담긴 필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문제가 있다면, 〈보기〉를 근거로 삼아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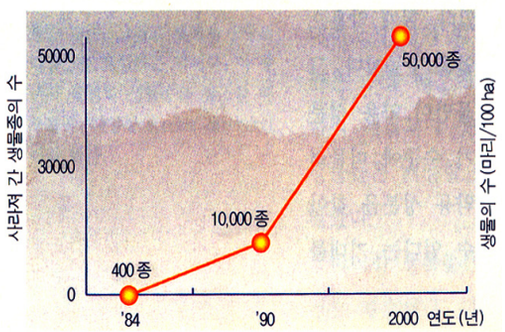
〈보기〉

소유욕은 이해(利害)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제의 맹방(盟邦)들이 오늘에는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친선 사절을 교환하는 사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에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인 것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사로 그 향(向)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디딤돌) 346쪽 : '무소유'

4) 서술하기

※ 아래 〈도표〉와 〈그림〉에 나타난 문제상황을 제시문 (가)의 항심(恒心)과 관련하여 분석한 후, 제시문 (나)의 문심(文心)과 문정(文情)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논술하시오. (600±50字)

도표	그림
	

9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988년 미국 피츠버그의 막노동자 윌리엄 포스트가 160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 그는 집과 자가용 비행기부터 샀다. 동생들에겐 음식점과 가게를 차려줬다. 당첨금을 나눠 받다 보니 석 달 만에 빚을 졌다. 동생은 청부업자를 사서 포스트 부부를 죽이려 했다. 포스트는 이혼을 여섯 번 했다. 갖은 소송에 휘말려 한 해 변호사 비용만 1억원이 넘었다. "모두들 일확천금을 꿈꾸지만 바로 거기서 악몽이 시작된다는 건 아무도 모른다." 파산한 포스트가 내린 결론이다.

1993년 230억원 복권에 당첨됐던 재미교포는 기부를 너무 많이 하다 8년 만에 파산한 경우다. 이 50대 여성은 당장 딸의 모교에 150만 달러를 기부했고 한국을 방문해 서울대, 연세대 등에도 장학금을 냈다. 지역 한인회장을 지내며 교민사회에도 돈을 적지 않게 썼다고 한다. 파산 직전에도 정치헌금만 28만 달러를 낼 만큼 손이 컸다.

사상 최고액인 2897억원 복권에 당첨됐던 미국 사업가 잭 휘태커가 5년 만에 빈털터리가 됐다고 미 언론들이 그제 보도했다. 도박과 소송으로 탕진하고 남은 마지막 돈은 누군가 수표를 위조해 가로챘다고 한다. 그는 당첨 직후 복권판매상에게 집과 차를 선물하고 당첨금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집에는 끊임없이 도둑이 들었고 차에 현금 55만 달러를 뒀다 털리기도 했다. 불운도 이어져 손녀와 남자친구가 휘태커 집에서 잇따라 약물로 죽었다.

하루아침에 횡재한 사람의 70%가 몇 년 안에 그 돈을 다 쓴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3분의 1은 파산한다는 조사도 있다. 한 복권단체가 조사해 보니 많은 당첨자들이 직장을 때려치우고 새집과 자동차부터 샀다. 흥분한 상태에서 급격하게 생활패턴을 바꾸면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 곳곳에서 기부금을 내라고 손을 내민다. 당첨 후가 전보다 불행하다는 사람이 많았다.

(나)

음식이란 목숨만 이어 가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나 생선이라도 입술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미 더러운 물건이 되어 버린다. 삼키기 전에 벌써 사람들은 싫어한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은 정성 때문이니, 전혀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늘을 속이면 제일 나쁜 일이고, 임금이나 어버이를 속이거나 농부가 농부를 속이고 상인이 동업자를 속이면 모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속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입과 입술이다.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생각하여 입과 입술을 속여서 잠깐 동안만 지내고 보면 배고픔은 가셔서 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해야만 가난을 이기는 방법이 된다.

금년 여름에 내가 다산(茶山)에서 지내며 상추로 밥을 싸서 덩이를 삼키고 있을 때 구경하던 옆 사람이 "상추로 싸 먹는 것과 김치 담아 먹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답해 "그건 사람이 자기 입을 속여 먹는 법입니다." 라고 말하여, 적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맛있고 기름진 음식만을 먹으려고 애써서는 결국 변소에 가서 대변 보는 일에 정력을 소비할 뿐이다. 그러한 생각은 당장의 어려운 생활 처지를 극복하는 방편만이 아니라 귀하고 부한 사람 및 복이 많은 사람이나 선비들의 집안을 다스리고 몸을 유지해 가는 방법도 된다.

1) 분석하기

(가)	요약하기 (150자 내외)	
	핵심어	
	주제	

(나)	요약하기 (150자 내외)	
	핵심어	
	주제	

2) 주제

3) 논술하기

❊ 행복의 기준은 상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보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가)에 나타난 현상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600자±50字)

〈보기〉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교훈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 법정, '무소유' 중에서

4) 논술하기

※ 제시문 (가)에 나타난 문제상황을 아래 도표와 관련지어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논술하시오. (600자±50字)

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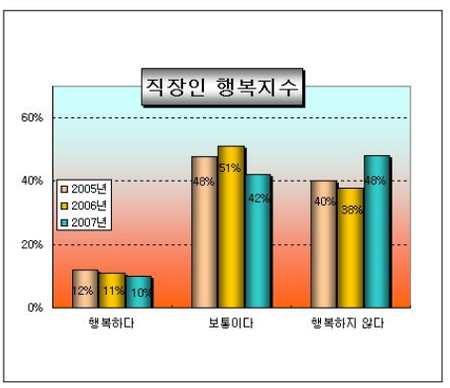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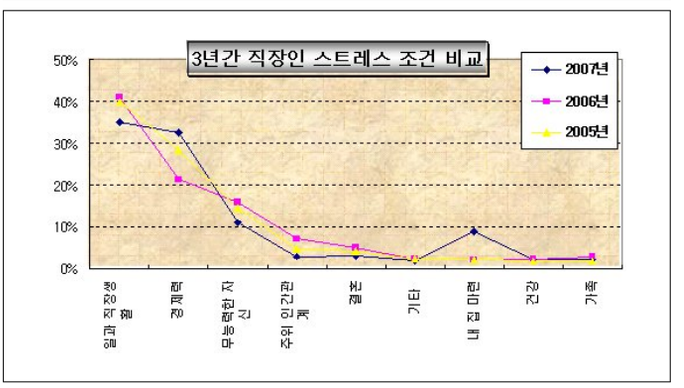


도표 2



10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제유가가 사상 최초로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 가격인 두바이 가격도 드디어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다. 불과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오른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석유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공급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유가가 앞으로 더욱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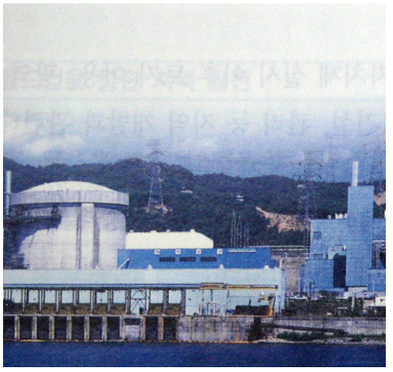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한 해 에너지 수입액은 870억 달러.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4분의 1을 초과하고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철강제품 수출을 합한 액수와 맞먹는 규모다. 지난해 원유 수입액은 5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나 증가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대규모 원유 비축시설을 확장해 오고 있지만, 고유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원유를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에 관한 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약소국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나타나고 있다. 원유를 정제한 휘발유, 그리고 경유와 같은 석유제품 생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높은 원유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늘어난 원유 수입은 어디에 사용된 것인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30% 이상은 석유제품 수출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석유제품 수출은 금액으로 206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와 선박 수출에 버금가는 규모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네덜란드, 러시아,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6위 석유제품 수출국이 되었다. 석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 우리는 결코 약소국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수출이 크게 늘면서 외국의 대표적인 석유 트레이더들이 한국에 석유제품의 물류중심지를 건설하고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석유물류중심지가 조성된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석유제품의 대규모 상업적 저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에너지 위기와 같은 유사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자료 1] 원자력 발전소 건설 찬성



[자료 2]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

- **산업 발전 측면**

국산화 추진 과정에서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과 육성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으며 관련 분야의 기술 인력 확보와 양성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경제적 측면**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하여 건설비는 비싸지만, 연료비가 월등히 싸다.

- **환경 보전적 측면**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인 온실 가스의 배출원이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

- 정부는 그 어느 대보다 거세어진 민중의 핵발전소 반대 의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 시대 착오적인 신규 또는 추가적인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하라.
- 핵폐기장 건설 문제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과 가동 중인 핵발전소 폐쇄만이 해결책이다.
- 반인륜적인 핵폐기물의 국가 간 거래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국가의 공적 자금은 핵기술이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

1) 분석하기

(가)	요약하기 (200자 내외)	
	핵심어	
	주제	

2) 논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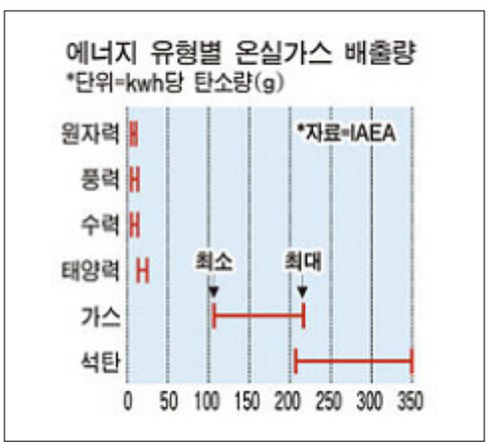
❊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제시문 (나)에 나타난 주장 가운데 찬성쪽 견해를 선택하여,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후, 그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3) 논술하기

※ 아래 도표1에 나타난 문제상황을 에너지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한 후, 제시문 (가)의 관점을 적용하여 도표 2를 논거로 삼아 '대체에너지 개발' 의 필요성을 논술하시오.(600±50字 內外)

도표 1

도표 2



1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외국인이 살기에 불편하기는 유럽의 독일을 뺨치는 게 아시아의 한국이다. 외국의 여러 기관들이 조사한 한국인의 문화적 수준은 내놓을 만하지 못하다. 매년 발표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 간 경쟁력 보고서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폐쇄성을 세계 49개국 중 44위권에 올려놓고, 싱가포르 정치경제연구소의 '외국인들이 느끼는 아시아 각국의 삶의 질 비교' 보고서에서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개방성 수준이 베트남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일전 호주 시드니의 국제정책 두뇌집단인 로위연구소가 발표한 국가별 호감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전체 15개국 중에 동티모르에 이어 10위 수준에 머물렀다. 언젠가 한국의 유엔 대표부 단장에 흑인이 새로 취임해 왔다. 한국정부 대표들과 유엔대표부 단장을 비롯한 외국 직원들과의 공식모임이 열렸다. 한국의 정부 대표들이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하는 대상은 흑인 단장이 아니라 정식 직원도 아닌 백인 인턴사원이었다. 그 이후로 유엔대표부에는 원칙이 하나 생겼다. '한국에 대표를 파견할 때는 반드시 백인으로 하라.'

(나)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 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오늘날 문화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서구 문화 중심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구의 문화 상품들이 비서구 국가의 문화들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과 인터넷의 대중화, 위성 통신의 발달 등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정한 문화의 세계화는 서구 문화 일색의 획일화 과정이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이 실현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즉, 세계 각국의 민족 문화가 공존하면서,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정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명제는 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자세를 암시해 주고 있다.

(라)

세계화 시대에는 지구 전체를 고려하는 이른바 '지구적 세계관' 또는 '지구적 관점'이 요청된다.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적 관점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중심적 세계관과 비교해 볼 때, 지구적 세계관의 핵심은 '지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이다. 지구적 사고는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인류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간주하며, 인류의 미래 대비 능력을 중시한다.

[논제 1] 아래 기사문을 읽고 논지를 파악한 후, 비판적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700±50자)

* 단, 위 제시문을 논거로 삼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포함하시오.

〈보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위원장 레지 드 구테)는 한국 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한국이 실제와는 다른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이미지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당사국(한국)이 민족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영토내에 사는 서로 다른 민족국가 그룹들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순수혈통'과 '혼혈'과 같은 용어와 그에 담겨 있을 수 있는 인종적 우월성의 관념이 "한국 사회에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유의한다"고 덧붙였다.

– 00일보 : 유엔, 한국 '단일국가' 이미지 극복 권고 –

[논제 2] 위의 논의를 토대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민족국가의 위상을 논술하시오.(700±50자)

12

(가)

거장의 작품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간직한 낡은 건물과 가로(街路)도 관광객들을 매료시킨다. 도시 간 디자인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전통 건물의 개·보수와 유지 관리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 카프리섬이나 그리스 산토리니섬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된 것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지역만의 개성이 남아 있어서다.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으로 인사동과 북촌을 꼽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래서 선진국 도시들도 과거의 건물과 가로변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마천루의 도시 뉴욕의 경우, 미드타운 등에 대해 5~7층 높이의 건물이 줄지어선 가로변 풍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파리시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 인허가 기준이 도심 가로변 풍경의 통일성 유지이다.

보존할 만한 특이한 건물이나 가로가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디자인은 창의성이 가장 큰 무기이다. 도시 전체에 특색 있는 야간조명을 설치한 프랑스 리옹은 '빛의 도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보행자 도로와 쉽게 길을 찾는 표지판으로 유명한 영국의 브리스톨,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로 도심을 재구성한 스웨덴 스톡홀름,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천국을 만든 브라질 쿠리티바도 전세계 도시들이 벤치마킹하는 명품 도시들이다. 이들 도시는 행정 당국의 정책과 지역 특유의 전통을 지키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만들겠다는 주민들의 오랜 노력이 빚어낸 성과물이다. 디자인 코리아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성공하려면 우리만의 독창성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 외국 유명 도시만을 모방하려 한다면 국적 불명의 짝퉁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나)

한 미술 잡지가 국내 최고 경매 기록(45억2000만원·올해 5월 서울옥션)을 세운 박수근 유화 '빨래터'의 진위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실어 파문이 예상된다. 1월 1일 창간되는 미술시장 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발행인 강병철 ㈜자음과 모음 대표)는 창간호에 실린 '대한민국 최고가 그림이 짝퉁?'이라는 기사에서 "대한민국 미술품 경매 최고가인 '빨래터'가 짝퉁 의혹을 받고 있다"며 1995년 시공사에서 나온 '박수근 작품집'에 실려 있는 비슷한 이미지의 '빨래터'(개인 소장) 도판을 싣고 두 작품을 비교했다. '아트레이드' 류병학 편집주간은 이 기사에서 "시공사 '빨래터'의 물줄기 선들은 어두운 바탕색 위에 두터운 마티에르(질감)로 표현했는데, 서울옥션의 '빨래터'는 그냥 그어진 선일 뿐"이라며 의혹의 근거를 제기했다.

▶ 올 5월 45억2000만원에 낙찰된 박수근의 '빨래터'(37×72㎝·사진 위쪽)와 시공사 도록에 실려 있는 '빨래터'(50.5×111.5㎝·사진 아래쪽). / '아트레이드' 제공

(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으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다. 소득 중에서 얼마를 저축하고 어떤 재화를 얼마나 소비할 것인지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 재화를 구매한 사람은 자기 신용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비하는 데 윤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물론, 소비하는 데에는 윤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의 소비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構成員)인 개인(個人)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作用)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因襲)이라는 것과의 구별(區別)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繼承)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客觀化)하고, 이를 비판(批判)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現在)의 문화 창조(文化創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遺物)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 불변(固定不變)의 신비(神秘)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存在)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創造)한다고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훌륭한 문화적 전통의 소산(所産)으로 생각되던 것이, 후대(後代)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예도 허다하다. 한편,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評價)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암의 문학은 바로 그러한 예인 것이다. 비단, 연암의 문학만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민족 문화의 전통과 명맥(命脈)을 이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두가 그러한 것이다. 신라(新羅)의 향가(鄕歌), 고려(高麗)의 가요(歌謠), 조선 시대(朝鮮時代)의 사설시조(辭說時調), 백자(白磁), 풍속화(風俗畵) 같은 것이 다 그러한 것이다.

[논제] 〈보기〉의 밑줄 친 현상과 관련있는 내용을 찾아 문제상황을 설정한 후, 구체적인 논거를 들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오.(주의 : 모든 논의 과정은 제시문을 활용할 것. 800± 50자)

〈보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현상을 **'거짓 합치 효과'** 라고 부른다. 우리가 헌법 개정에 찬성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생각한다고 믿는다. 어떤 일을 망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위안을 삼느다.(중략) 결국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헤아리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데이빗 마이어스, 『사회 심리학』

13

(가)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다)

미국 영화가 전통적으로 당대의 시대정신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90년도에 개봉1)되어 대성공을 거둔 '나홀로 집에(Home Alone)'와 '후크(Hook)'는 오늘날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매컬리 컬킨이라는 아역 배우를 일약 유명하게 만들어 준 '나 홀로 집에'는 케븐 맥칼리스터라는 여덟 살 난 소년이 우연히 홀로 집에 남겨져 겪게 되는 고독과 모험을 그린 영화다. 그의 가족들은 깜박 그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유럽으로 크리스마스 휴가 여행을 떠난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그는 처음에는 자유를 즐기지만 결국에는 고독을 느끼게 되고, 이윽고 침입해 들어오는 도둑들과 대면해서 그들을 퇴치해 집을 지킨다. 그런 후에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며 영화는 끝난다(물론 가족들은 그동안 케븐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한다).

이 단순한 구성의 코미디영화가 미국에서 90년도 흥행 1위와 영화사상 흥행 3위를 차지한 이유의 이면2)에는, 그것이 현대 미국인들의 불안 심리에 호소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미국 가정주부들의 대부분은 직장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 아이들은 '나 홀로 집에' 버려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아이들은 처음에는 물론 그러한 자유를 즐기고 좋아한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들은 고독을 느끼게 되고, 이윽고 가정을 파괴하는 위협적인 요소들(소리없이 스며들어와 집을 파괴하는 도둑들)과 대면하게 된다. 영화 속의 케븐은 다행히도 그 사악한 요소들과 대면해 싸워서 그 위협을 이겨 내지만, 많은 아이들은 불행히도 악의 힘에 밀려서(예컨대 나쁜 친구, 마약, 고독, 텔레비전 등) 차츰 가정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러므로 '나 홀로 집에'는 사실 모든 미국 어린이들의 현실이자, 모든 미국 주부들의 악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것이 어린이 케븐과 그의 엄마라는 사실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이 영화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미국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감독의 이름이 미대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처럼 크리스토퍼 컬럼버스라는 사실은 우연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시사적이다.

1)개봉 : 새 영화를 처음으로 상영함

2)이면 :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뒷면

(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뿌리가 되는 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질서 의식이 급속히 상실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경제 위기보다 더욱 본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하나의 징표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한 가지는 이기주의적 풍조가 만연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도시화 산업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도 서구식 개인주의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원래 개인주의는 개개인의 권익을 존중하되, 배타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남은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최대한 추구하는 이기주의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결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방종과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은 지지 않고 무한한 자유만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올바른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 윤리도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작년 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복역한 20대 남성 2명을 구제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1호'인 오태양씨 등 11명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유엔에 내기로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18일 "오태양씨를 비롯한 병역거부 복역자 11명이 한국 정부로부터 형사 처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제18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진정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유엔 위원회에서 구제 권고를 받은 2명은 여호와의 증인들로 순전히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 거부였지만 추가로 진정을 낼 오씨 등은 종교와 무관한 병역 거부자들이어서 유엔의 심의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논제 1] 제시문 (나)~(라)의 상황을 통해 제시문 (가)를 현실에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시오.

[논제 2]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상황을 설명하시오.

[논제 3] 제시문 (가)~(라)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14

(가)

비프: 아버진 줏대가 없어. 찰리 아저씬 이런 짓은 안 할 거다. 아니 그래, 집안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털어놓다니.

해피: 찰리 아저씬 바득바득 싸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렇지.

비프: 아버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내 눈으로 많이 봤다구!

린다: 그럼 찰리 아저씨를 아버지로 삼으려무나. 그건 안 될 테지. 내가 뭐 너희 아버질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윌리 로먼은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이름이 신문에 난 적도 없지. 아버진 유달리 뛰어난 분은 아니지만 역시 인간이다. 그분에게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해.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지. 그래, 아버지가 늙은 개처럼 무덤 속에 묻혀야 옳단 말이냐? 안 될 소리다. 그런 불쌍한 분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 넌 아버질 돌았다고…….

비프: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린다: 너뿐만이 아냐.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가 돌았다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셨는지 자식이 모르는 체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지칠 대로 지치셨어.

해피: 사실이에요.

린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한 번 지치면 그만이다. 아버지께선 이번 3월까지 36년 동안이나 한 회사 일을 봐 오셨다. 방방곡곡에 그 회사 상표를 선전해 줬건만 이제 와서 나이 먹었다고 월급을 안 주다니.

(중략)

찰 리 : 어두워지는데요.

(린다, 반응이 없다. 무덤만 응시할 뿐)

비 프 : 어머니, 이젠 그만 가셔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 문도 닫을 시간이 됐으니까요.

(린다, 움직이지 않는다. 사이)

해 피 : (몹시 노기를 띠고) 그런 짓을 하신다는 건 잘못이야.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도와 드리려고 했는데요.

찰 리 : (중얼거리며) 으 …… 음.

비 프 : 어머니, 그만 가세요.

린 다 : 왜 아무도 안 올까요?

찰 리 : 장례식은 조촐하게 잘 됐습니다.

린 다 : 하지만, 그이가 아는 분들은 다 어디 있죠? 모두들 그이를 욕하는지도 모르죠.

찰 리 : 뭣 때문에요? 그저 세상이란 야박한 곳이죠. 고인을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린 다 : 참 알 수 없는 일예요. 하필이면 이런 때에. 35년 만에 처음으로 빚을 다 갚고 홀가분해졌는데 말예요. 월급이나 조금 받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치과에도 다녀왔으니까요.

찰 리 : 몇 푼 월급만 가지고야 어렵죠.

린 다 : 정말 알 수 없군요.

비 프 : 즐거웠던 시절도 있었죠. 출장갔다 돌아오실 때라든지, 일요일이면 현관 입구를 만드신다든지, 지하실 고치시는 일, 그리고 베란다를 새로 내신다, 욕실을 따로 지으신다, 차고를 만드신다. 찰리 아저씨, 아버진

물건 파시는 일보다는 현관 만드시는 일이 더 능숙하셨던 것 같아요.

찰 리 : 그래, 시멘트만 좀 있으면 행복한 분이었네.

린 다 : 그이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비 프 : 아버진 당치않은 꿈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같이 당치않은,

해 피 : (비프와 싸우기라도 할 듯이) 그런 소린 하지 말아.

비 프 : 아버진 자신을 올바로 평가할 줄 모르셨거든.

찰 리 : (해피가 대들며 대답하려는 것을 막고, 비프에게) 자네 어른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네. 자넨 모르겠지만 춘부장은 외판원이었단 말일세. 외판원에게는 인생의 밑바닥이란 있을 수 없어. 직공이라든지 법률가라든지 의사처럼 판에 박은 직업이 아니라는 말이네. 반짝이는 구두에다 미소를 지으며, 저 멀리 푸른 하늘 밑을 달리는 분일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반겨 주지 않는다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뿐인가, 모자에 자국만 몇 개 생겨도 그걸로 끝장이 나는 거야. 그러니 아무도 춘부장을 나무랄 수는 없단 말일세. 외판원이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꿈이란 담당 지역처럼 떼어놓을 수 없어.

비 프 : 아저씨, 아버진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셨어요.

해 피 : (분개하며) 그런 소리 집어치워!

비 프 : 얘, 너 나하고 같이 가자.

해 피 : 그렇게 쉽사리 넘어가지는 않아. 난 여기 뉴욕에 있겠어.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하신 일을 하고야 말겠어. (턱을 버티고 비프를 본다.) 로먼형제 목장이라구!

비 프 : 제격에 맞는 일을 해야 해.

해 피 : 좋아요. 난 형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허무하게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걸 보여 줄 테야. 아버진 훌륭한 꿈을 간직하셨어.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유일한 꿈이지 ……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는 꿈이란 말야. 아버진 여기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셨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루지 못하신 걸 내가 대신 해 보겠다는 거야. 바로 여기서 말야.

비 프 : (절망적인 시선을 해피에게 보내고,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어머니, 그만 가세요.

린 다 : 금방 가마. (찰리에게) 먼저 가세요. (찰리, 망설인다.) 조금만 더 있고 싶군요. 작별 인사도 할 기회가 없었어요.

(찰리, 저만큼 움직인다. 그 뒤에 해피, 비프는 린다의 후면 왼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 린다, 기운을 내어 거기 앉는다. 그다지 멀지 않게 플루트 음악이 시작되고 다음 대사의 뒤에 깔린다.)

린 다 : 여보, 날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우. 울 수도 없구료. 어떻게 된 거유? 울음도 안 나오니. 정말 알 수 없구료. 뭣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유. 날 좀 도와줘요. 울 수도 없다니까요. 또 출장 가신 것만 같구료. 돌아오시려우? 여보, 왜 울 수도 없을까요. 뭣 때문에 그런 짓을 했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구료. 오늘 마지막 집세도 냈다구요. 오늘말예요. 하지만 집이 텅 빌게 아뉴. (목이 메어 온다.) 이젠 빚도 없고 홀가분해졌는데. (울음을 억제할 수 없어 터뜨리며) 맘 편히 살 수 있어! (비프, 천천히 어머니에게 간다.) 빚도 갚았다우……이젠 맘 놓고 살 수 있는데…….

(나)

사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사내는 가끔 '여보'라고 중얼거리며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열 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그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후에 그가 우리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왔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몹시 춥군요." 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안이 말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안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지금 아주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
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지요?"

"물론 그렇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다)
지난 몇 십 년 사이에 고객의 위상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소매상점에서는 찾아오는 고객을 개인적으로 친절하게 대했다. 고객은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았고, 그의 일상까지도 상점의 주인과 함께 의논할 수 있었다. 물건을 사는 행위 그 자체에서 고객은 자기의 중요함과 품위를 느낄 수 있었다.
오늘날 백화점의 경우, 고객은 우선 거대한 건물과 수많은 점원들과 잔뜩 진열된 상품에 의해 압도된다. 이 모든 것에 비해 그는 자기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를 느끼게 된다. 백화점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으로서의 그는 아무런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한 사람'의 고객일 뿐이다. 백화점은 고객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는 단지 추상적인 고객으로서 대접받을 뿐이지 구체적인 고객으로서 중요시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현대의 광고 방법에도 잘 드러난다. 거대한 현대 광고는 상품의 효용성을 강조하여 합리적으로 소비자를 설득하기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한다. 즉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거나, 사교계의 부인과 유명한 권투선수에게 특정 상표의 담배를 붙여 물게 함으로써 권위 있는 이미지를 생기게 한다든가, 아름다운 소녀의 성적인 자극을 내세워 비판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든가, 어떤 셔츠나 비누를 삼으로써 뭔가 전 생애가 갑자기 변화하는 듯한 그런 공상을 자극하기도 한다.

(라)
미나모토죠에는 선술집과 음식점, 가라오케 등이 기미우라 역을 중심으로 난 좁은 골목을 따라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음식점과 술집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분위기를 갖추고 있으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주 찾아 가는 곳을 또 찾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할 경우에 서로가 잘 아는 곳에서 모이고 누구를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발소를 하는 마에바시를 만나려면 요네다가 하는 장어구이 집에 가야하고, 목수 일을 하는 카미를 찾으려면 마에하라 자매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가면 된다. 쯔노다 아줌마는 학부모 모임에서 사람들과 식사를 한 후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어린 시절 친구의 형이 하는 커피숍에 간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되면, 이사 온 사람들은 바로 조그만 케이크나 '데누구이(수건의 일종)'를 가지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인사를 가게 된다. 일종의 공식적인 인사인 셈이다. 이러한 인사는 새로운 가구가 주위의 이웃들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시작이다. 사람들은 이웃이 집을 비운 사이 서로의 집을 봐주고, 주부들은 특별세일이나 새로 개점한 가게에 대한 정보를 나누며 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지방 특산물을 선물로 건넨다.
도쿄 인근 지역에서 야채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한 달에 두서너 차례 미나모토죠를 방문한다. 이들은 주로 할머니들인데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의 야채를 가지고 와서는 거리에서 팔기보다 벌써 수년째 방문해 온 미나모토죠의 가정을 한 집 한 집 찾아간다. 쯔노다 아줌마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집에 찾아온 야채 파는 할머니에게서 야채를 사는데,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좀 더 사서 아이를 시켜 이웃에도 나눠준다. 지난번에 이웃이 보낸 선물에 대한 보답이다.
미나모토죠의 사람들은 도쿄시내 어딘가에 사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자신들의 집에서 장례식을 치른다.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장례식의 많은 부분은 장의사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장례에 필요한 제단, 향로, 제등, 관 등은 모두 장의사가 준비한다. 장례식에서는 초등학교 근처에 사는 모리구치 씨가 염과 같은 전문적인 일을 담당한다. 대신에 미나모토죠의 주민과 이웃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한다. 특히 죽은 이가 마지막 헤어짐의 인사를 하는 고구베쯔시키(告別式) 바로 전날에는 밤을 새워 쯔야(通夜)를 하면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접대를 한다.

[논제 1] (가)~(다)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시오.(800자 안팎)

[논제 2] (라)에 나타난 상황의 성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가)~(다)에 나타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1,000자 안팎)

15

(가)

오늘날은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국에서만 생산하여 공급할 수는 없다. 즉,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섬유나 전자 제품 등의 공산품을 전문적으로 생산, 수출하고 있다. 수출을 통한 수익으로 그 나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국제 무역의 이점을 최대한 살림으로써 다른 부존자원이 충분한 국가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이다. 전 국토가 사막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도 식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은 석유를 수출한 수익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식량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같이 큰 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기는 마찬가지이다. 즉, 고도로 산업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광물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심지어 미국은 세계적인 석유 생산국이지만 석유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같이 영토가 크고 산업이 발달한 나라일지라도, 국제 무역이 없다면 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국민 생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은 나라가 작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왜냐 하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이나 자원이 많을수록 국제 무역은 풍요로운 국민 생활을 위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무역을 존중한 시대와 쇄국 정책을 실시하던 때와는 국민 생활수준이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세 암흑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는 국제 무역을 등한시하여 경제가 정체된 반면, 16~17세기 상업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국제 무역이 강조되던 때에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역을 중심으로 세계로 진출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그 당시 생활수준과 국력은 세계를 주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 폐쇄적이었던 조선 시대는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중동 지역까지도 무역이 이루어졌던 통일 신라 시대에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매우 높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 무역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산업이 고도화분업화될수록 국제 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경제의 발전과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국제무역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나)

세계화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 시장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의류와 전자 공장은 산살바도르와 멕시코시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뉴욕과 LA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도와 중국이 이제 대규모 저임금 기술자와 컴퓨터 프로그래머 인력을 찾을 수 있는 최적지로 간주된다.

기업들은 특정 장소에 의존하지 않으며, 국내이건 국외이건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없다. 하룻밤 사이에 공장을 폐쇄해서는 그 나라 어디에서도, 더 나아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도 국가 · 지역 · 도시들이 세금 감면, 저임금, 환경 규제 완화 등 다른 곳보다 좋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 –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작가 홀리 스클라가 '바닥으로 내려가기 경쟁' 이라고 부른 – 에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미국 도시들은 중국과 멕시코의 경쟁 도시들과 맞설 가능성이 크며, 이들 모두 하향 입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1990년대 기업 운영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전 지구적 경쟁력' 은 사실상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세계 경제의

공통분모 – 기업의 투자로 '보상받기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이 포기할 것인가 – 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한 것은 세계화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 대다수가 이전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노동 조건의 악화를 경험하는 등 여전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이 설득하는 것과는 반대로, 미국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보통사람들은 세계화가 어서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빈부 격차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의 국제 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들에 살고 있는 20%의 인구는 세계 GDP(국내 총생산)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 살고 있는 20%의 인구는 세계 GDP의 약 1% 정도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런 차이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1960년에만 해도 부유한 나라에 사는 20% 인구의 소득은 빈곤한 나라에 사는 20% 인구 소득의 30배였다. 이것이 1995년에 이르러 82배로 늘어나면서 소득의 편중은 더 심해졌다.

개별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브라질의 경우, 1960년에 하위 소득 계층인 50%의 사람들이 전체 국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였는데, 그나마 1995년에는 11.6%로 줄어들었다. 반면 브라질의 최고 소득층인 10%의 사람들은 전체 국가 소득 중 63%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러시아의 경우, 상위 소득 계층인 20%의 사람들이 국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위 소득 계층인 20%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의 11배나 된다.

(라)

세계화 시대에는 지구 전체를 고려하는 이른바 '지구적 세계관' 또는 '지구적 관점'이 요청된다.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적 관점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중심적 세계관과 비교해 볼 때, 지구적 세계관의 핵심은 '지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이다. 지구적 사고는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인류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 간주하며, 인류의 미래 대비 능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지구적 사고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수준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국경을 넘어서는 사고로서, 어느 한 나라와 다른 나라들과의 다양한 관련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국제 무역과 자본 시장을 고려한 상호 의존성의 관계 설정이나, 세계 에너지 재고량에 비추어 본 각 나라의 에너지 소비량과 같은 문제는 한 나라 경계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둘째, 지구적 사고는 사고의 범주와 관련하여 초국가적 사고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는 전통적인 국가 주권의 원칙이 인류의 공동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를 종종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높은 수준에서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 주권의 권한 중 어떤 분야를 부분적으로 포기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셋째, 상호 의존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로서, 여기에서는 세계적인 발전의 큰 노선을 결정하는 세계적 요인(경제 성장, 고용, 교육, 식량, 보건, 원료, 에너지, 인구 등)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각 요인은 원인과 결과의 밀접한 관계의 망, 즉 상호 작용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한 관계와 의존성을 찾아내야 비로소 '세계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지구촌 문제의 상호 의존 관계 혹은 상호 연결망(네트워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망(眺望)을 할 수 있는 사고로서, 세계의 유한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계의 유한성과 인류의 생존 이익에 대한 비전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며,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공생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

한미 FTA의 산업별 예상 효과

업종		연 평균	기간별 연 평균		
			1~5년차	6~10년차	10~15년차
제조업	수출증가(억$)	25	17	29	30
	수입증가(억$)	3.7	4.5	3.3	3.4
	생산증가(억 원)	55,234	35,463	65,112	65,397
농업	대미수입증가(억$)	3.7	1.5	4.0	5.7
	대세계수입증가(억$)	2.3	1.0	2.4	3.5
	생산감소(억 원)	6,698	2,825	7,412	9,856
수산업	수출증가(억$)	62.1	37.4	86.7	
	수입증가(억$)	11.74	7.43	11.80	15.98
	생산감소(억 원)	281	234	286	3.23
제약업	생산감소(억 원)	904~1,688	576~1,002	1,232~2,375	
	소득감소(억 원)	372~695	237~412	508~978	

[논제 1] (가)~(라)의 공통 주제를 파악하고, 공통주제와 관련지어 각 단락의 성격을 밝히시오.

[논제 2] (가)~(라)에 나타난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마)에 제시된 미래 상황에 대하여 논평하시오.(단, 연구 결과의 정확성은 문제 삼지 않음.)

논술지도의 원리와 실제 III (인문계)

2011년 3월 일 인쇄
2011년 3월 일 발행

발 행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
121-270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4층
전 화 : 02)6393-5266
인 쇄 처 : (주)이모션덕유
전 화 : 02)2263-6414

RM 2011-2-413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비매품)